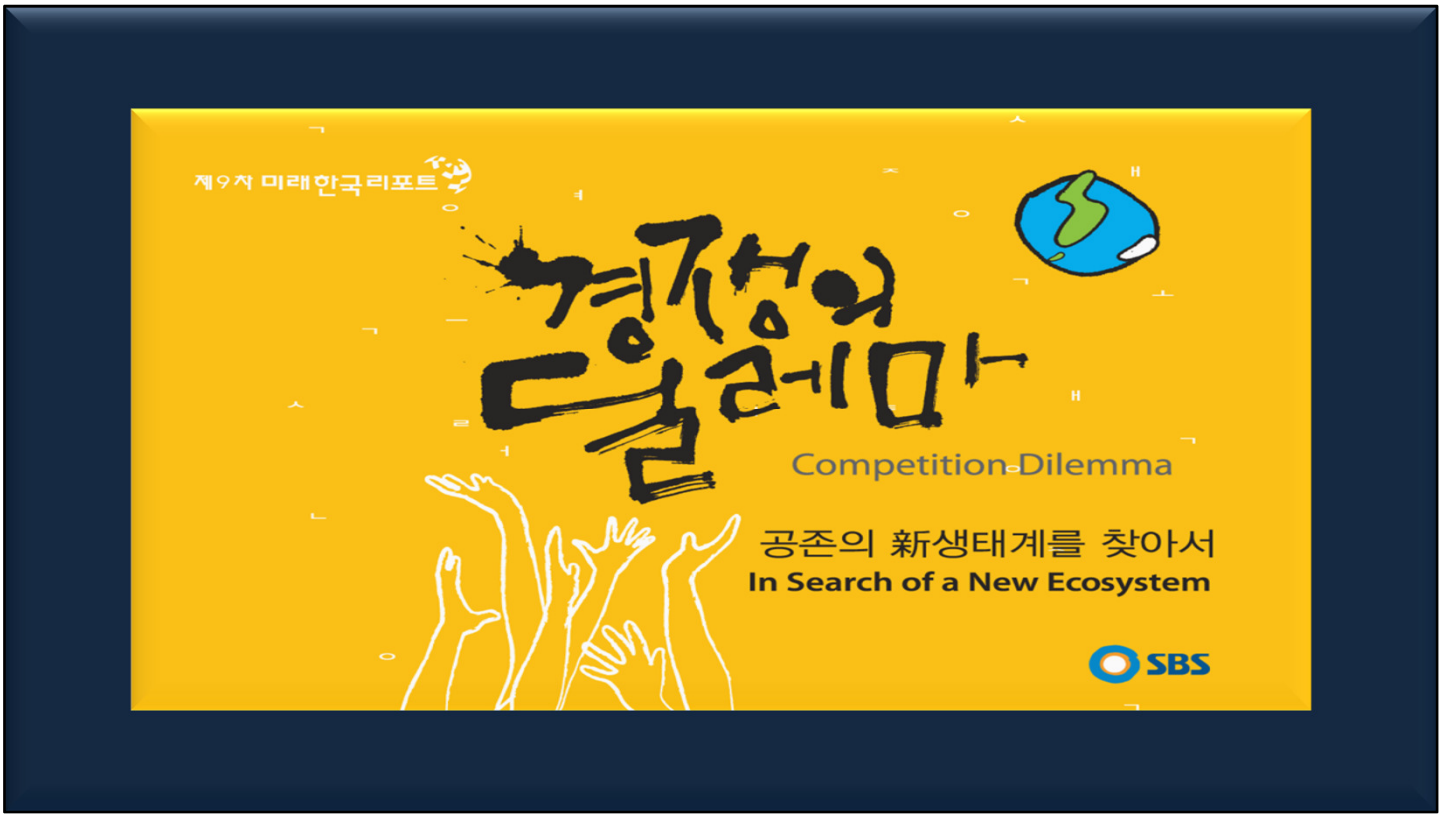


▶ 발표 일시: 2011년 11월 2일 서울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 오전 8시~9시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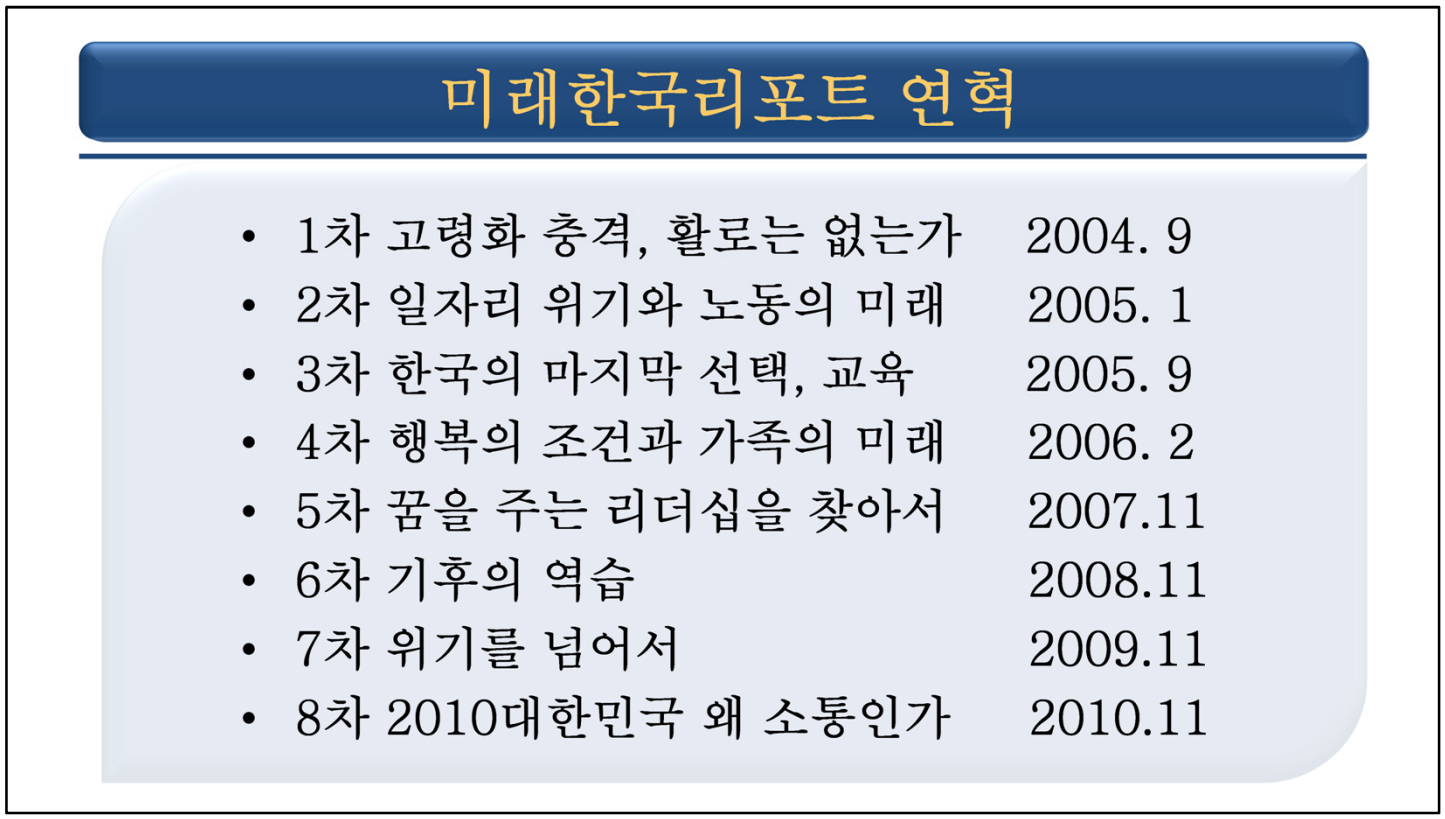
▶ 개회사: 우원길 / SBS 대표이사 사장

▶ 축사: 김황식 / 국무총리
현오석 / KDI 원장

▶ 발표자: SBS 보도국 신경렬 미래부장, 이정애 미래부 차장

▶ 특별연설: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제임스 멀리스 홍콩중문대학교 석좌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
정영환 맥킨지 & 컴퍼니 아태지역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
도준웅 맥킨지 & 컴퍼니 지디털 전략 전문가
조 오펜하이머 메릴랜드 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명예교수

▶ 강평: 홍준표 한나라당 당대표
손학규 민주당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제9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 사회를 맡은 SBS 8뉴스 앵커 김성준입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
한국사회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들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 동안 미래한국리포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겠습니다.
==========
<영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급속한 고령화,
<자막> 제1차 2004년 9월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경제 성장에도 오히려 줄어드는 일자리.
<자막> 제2차 2005년 1월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2004년 출범한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한국 사회가 딛고 넘어가야 할
시대의 화두를 제시해왔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 '노동의 종말' 저자
"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래한국리포트는 백년대계 교육에 이어
<자막> 제3차 2005년 9월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개인의 행복과 가정 문제로까지
사회적 관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자막> 제4차 2006년 2월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배리 맥고 / OECD 교육국장
"평생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앨런 칼슨 / 세계가족회의 의장
"모든 국가의 미래는 가족을 통해 생겨납니다."

미래를 이끌 리더십과
<자막> 제5차 2007년 11월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주제는
녹색성장의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자막> 제6차 2008년 11월 기후의 역습

박재완 / 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2008), 현 기획재정부 장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기후변화가 어떤 면에서 근본적이고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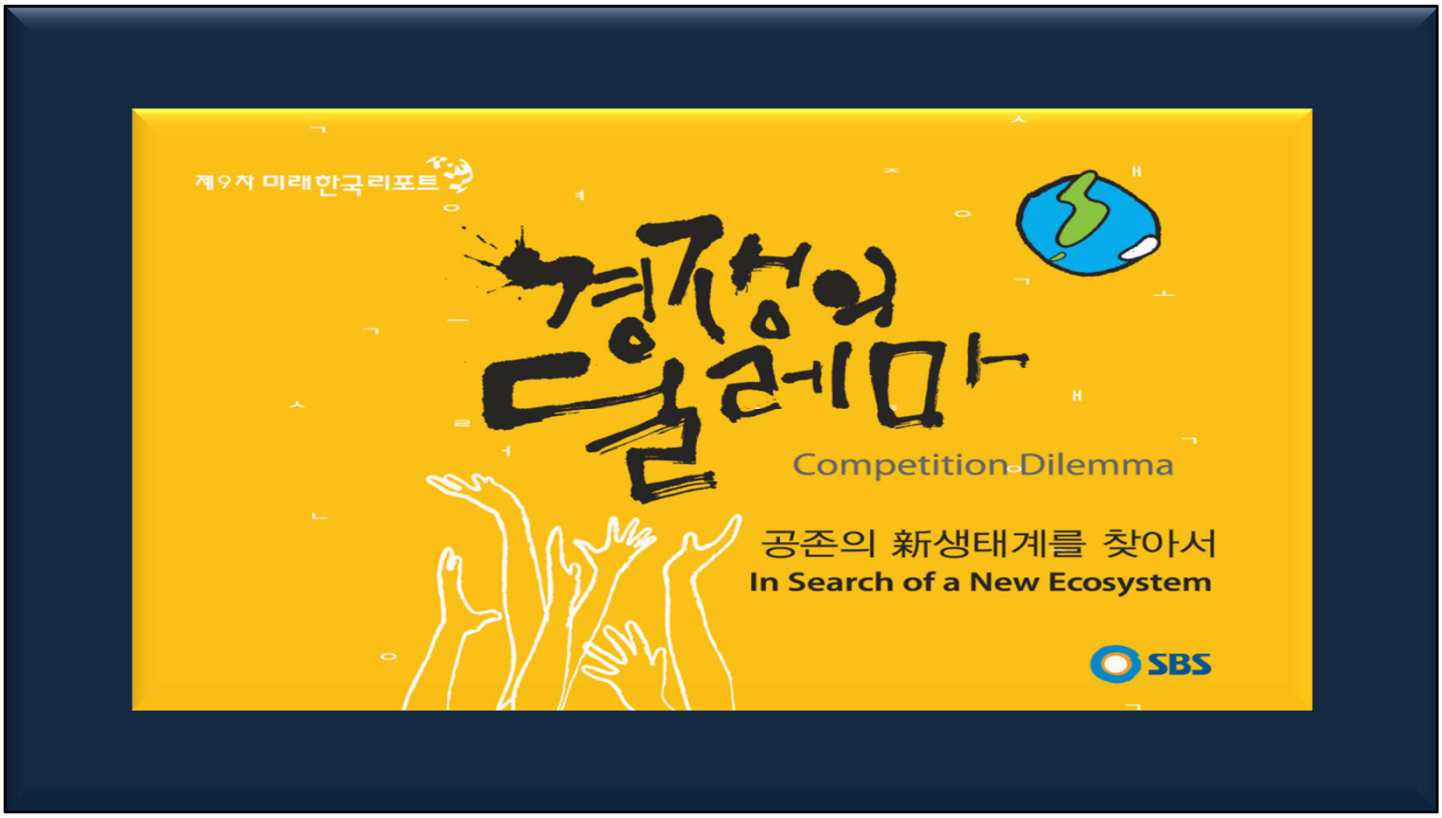
잦아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전략,
<자막> 제7차 2009년 11월 위기를 넘어서

그리고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소통'의 대안도 제시해,
국민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막> 제8차 2010년 11월 대한민국 '소통'

캐서린 한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대표
"성숙한 민주사회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토양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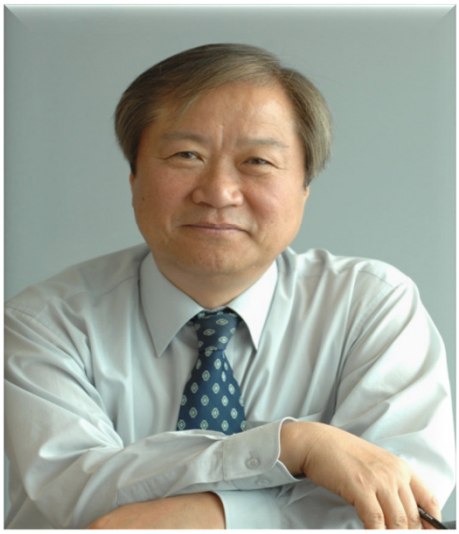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 방식에 갈수록 지쳐가고 있습니다.

2011년 제9차 미래한국리포트는
선진 사회 도약을 위한
'경쟁'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합니다.



보신대로 올해 미래한국리포트의 주제는 "경쟁의 딜레마" 입니다.
먼저 우원길 SBS 대표이사 사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우원길
SBS 대표이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우 원길 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님,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멀리스 교수님과
오페하이머 교수님 등 미래한국리포트에
연사로 나서주신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올해로
9번째를 맞습니다.
그 동안 일자리와 교육, 행복, 리더십,
기후변화, 그리고 소통과 같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비전을
한 발짝씩 앞서 제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경쟁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문은 교육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세계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좌절하는 수많은 꿈들을 또한
안타까워 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한경쟁'이 당연시돼왔던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이제는 경쟁의 규칙이나 규범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에서도 '파퓰리즘'으로
대변되는 지나친 경쟁은,
다음세대에 빚을 떠넘길 우려가 큽니다.

공정한 경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러 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쟁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고 있지는 않은지,
지나치게 개인간의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행복한 삶을 위한 경쟁은 어떤 모습인지, 결과를 함께 하는 똑똑
한 경쟁을 할 수는 없는지,
오늘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9차 미래한국리포트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필라)

환영사

현오석
KDI 원장

다음은 제9차 미래한국리포트에 공동기획으로 참여하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현오석 원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현오석입니다.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님과 윤세영 SBS 명예회장님, 발표를 맡으신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SBS와 KDI가 공동 기획한 '제9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KDI와 SBS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년 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공동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과 정부의 적절한 정책대응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전이되어 세계경제는 또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대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경쟁력은 원칙과 질서가 담보되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자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는 올바른 경쟁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회의 주제인 '경쟁의 딜레마'가 말해주듯우리의 경쟁문화는 많은 경우 무모하고 맹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비생산적인 경쟁문화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청소년들이 아닌가 합니다. 각자의 적성과 특기를 살리기보다는 획일화되고 서열화된 입시경쟁의 틀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왜곡된 경쟁문화가 수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양한 존재와 가치가 존중되는 공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편협하고 획일화된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도 재기는 물론 또 다른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경쟁문화를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황식
국무총리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래한국리포트 발표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SBS의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를 축하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세영 명예회장님과
우원길 사장님, 그리고 SBS 임직원께 감사드리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BS는 그동안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서
'고령화', '일자리', '교육', '기후변화' 그리고 '소통'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국가적 의제를 선정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주제인 '경쟁의 딜레마' 또한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최대의 화두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성장 잠재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한 경쟁,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배려 없는 경쟁입니다.

지난 60여 년,
우리는 세계가 경탄하는 압축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물신주의가 만연하면서
불공정한 경쟁, 배려 없는 경쟁이 득세하고
그 결과, 양극화가 잉태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되면
중산층의 구매력이 감소되어 지속성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회의 좌절과 불안을 고조시켜 이념대립이 커지고
선동과 포퓰리즘이 횡행하여
종국에는 정치적.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공생발전'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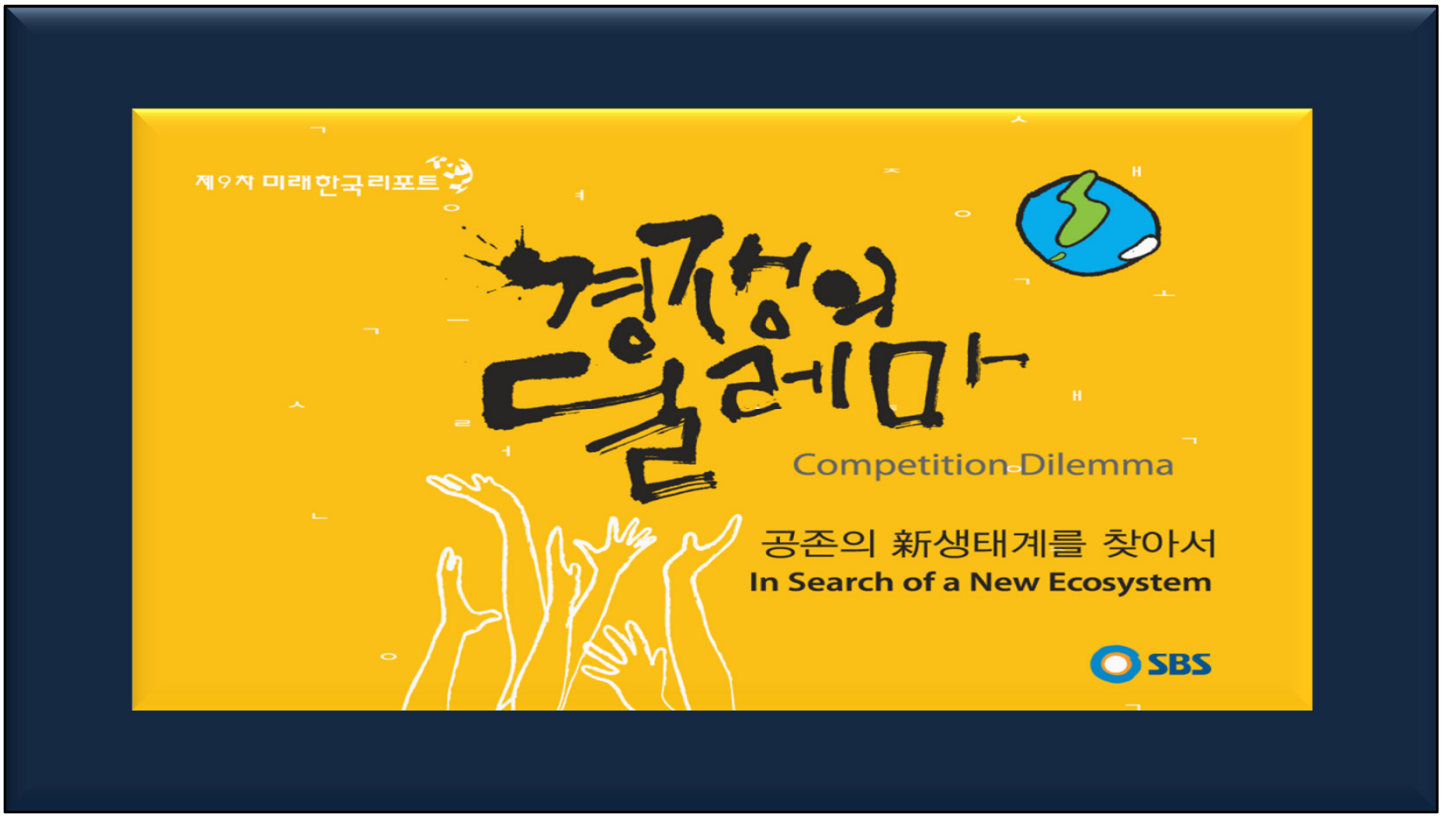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노동자 등 모든 주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경쟁의 틀'을 바꾸고
'공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여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과 노동계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SBS가
이처럼 뜻 깊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고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경쟁의 딜레마 ' 입니다.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던 치열한 경쟁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다같이 공존하는 신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고속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100억 달러를 겨우 넘던 경제규모는
1조 달러로 100배 가까이 성장하고

선진 20개국 정상들과 함께
지구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을
주도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룬 성괍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린 경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경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패자도 승자도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SYNC> 최윤호/증권사 차장
(경쟁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자기의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어렵고 치열하게 느껴집니다.

경쟁의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재도전의 기회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sync> 전 익/슈퍼주인
(대형마트와) 가격 경쟁에서 (소형슈퍼)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손님이 급감하고 매출이 떨어져서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양적 성장을 이끌었던
그동안의 경쟁 방식이
한계에 온 것은 아닐까요?

<SYNC> 리카르도 페트렐라/ 전 '리스본 그룹' 회장, '경쟁의 한계'저자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성장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고 왜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Now the most important is not to grow of course but how to grow is important. Why to grow is important.)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 속에 이뤄지는
스마트한 경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좌절보다는 희망을 주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따뜻한 경쟁,

다음 세대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경쟁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의 이정애 기자입니다.

우리 참 치열하게 경쟁해왔죠?

우리의 이런 치열한 경쟁은/
폐허였던 한국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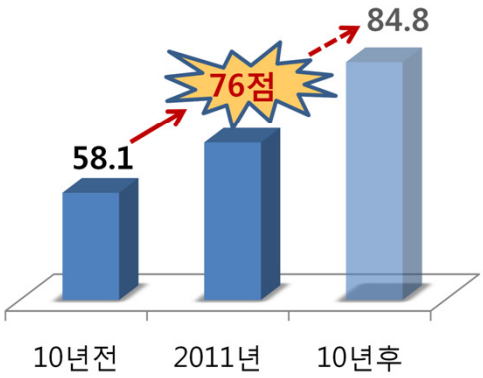
그에 힘 입어 한국은 20세기 최고의 성공 모델이 됐고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경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앞만 보고 치열하게 경쟁해온 사이,
과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국의 경쟁, 얼마나 치열한가?

경쟁 정도 평균점수(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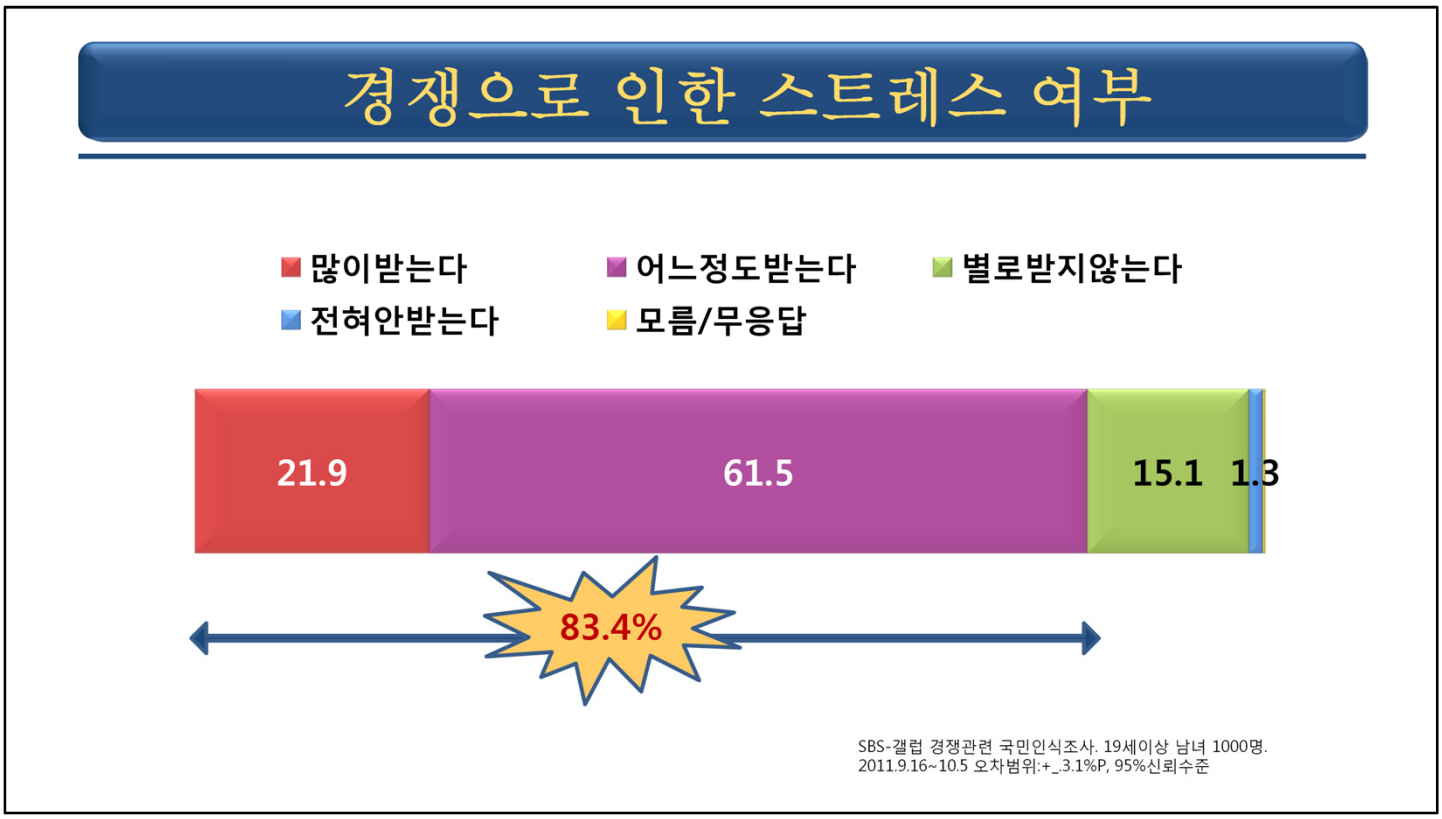
연령별	점수
19~29세	78.1점
30대	76.3점
40대	79.2점
50대	73점
60대 이상	72.7점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SBS가 갤럽에 의뢰해 국내 최초로
우리 국민들이 경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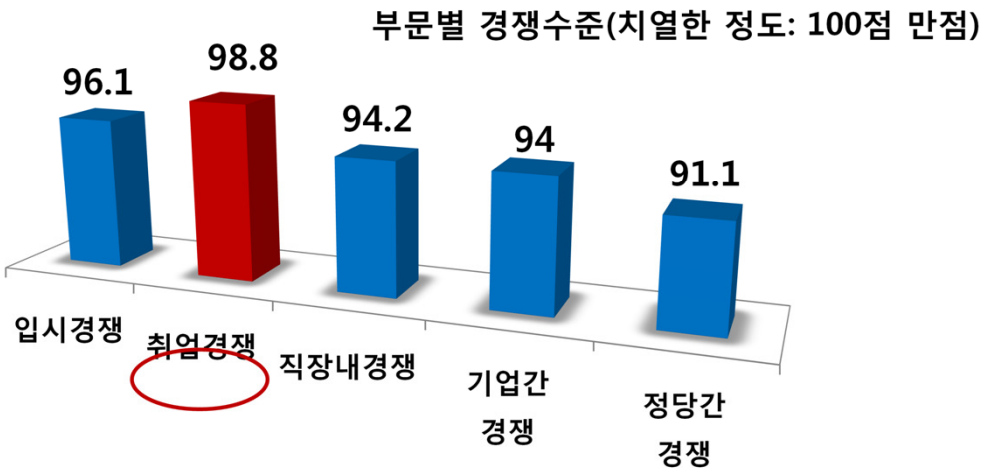
먼저 우리 사회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지 물었습니다.
10년 전에는 58점 정도로 느꼈는데
지금은 76점이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경쟁할 경우 10년 후에는 85점 정도로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40대와 20대가
경쟁을 더 치열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3.4%는 평소에도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부문 경쟁 수준 한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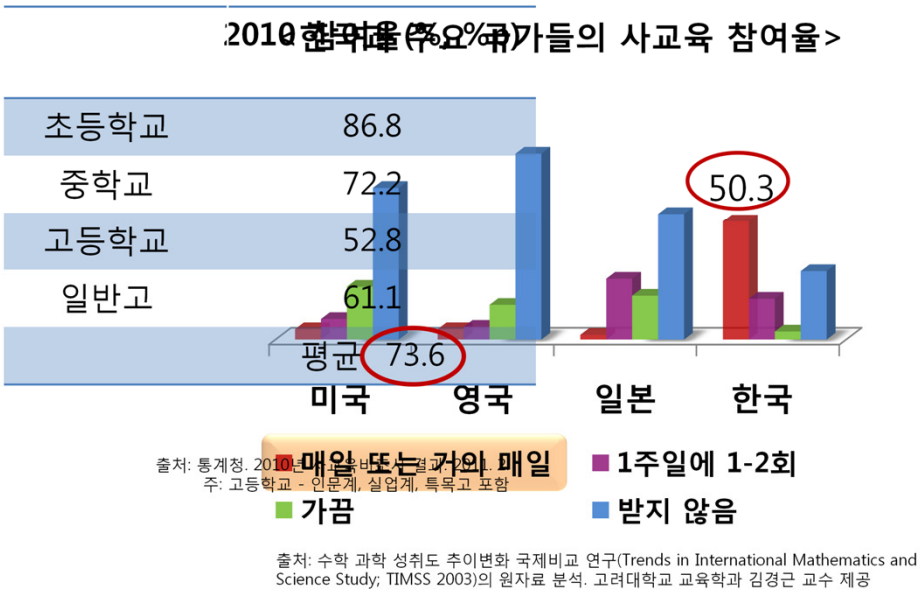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입시경쟁, 취업경쟁, 직장 안에서의 경쟁 …
거의 모든 분야에서 90을 넘어설 정도로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치열한 것은 역시 취업경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경쟁 참여율



출처: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1. 2
주: 고등학교 - 인문계, 실업계, 특목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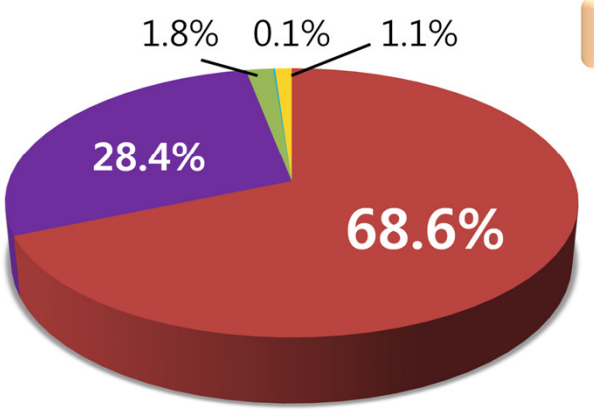
출처: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2003)의 원자료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 제공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자녀를 두신 분들…
경쟁하면 /
사교육부터 떠올리시죠?

통계청 조사결과 현재 초, 중, 고생의 열에 일곱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사교육 얼마나 과도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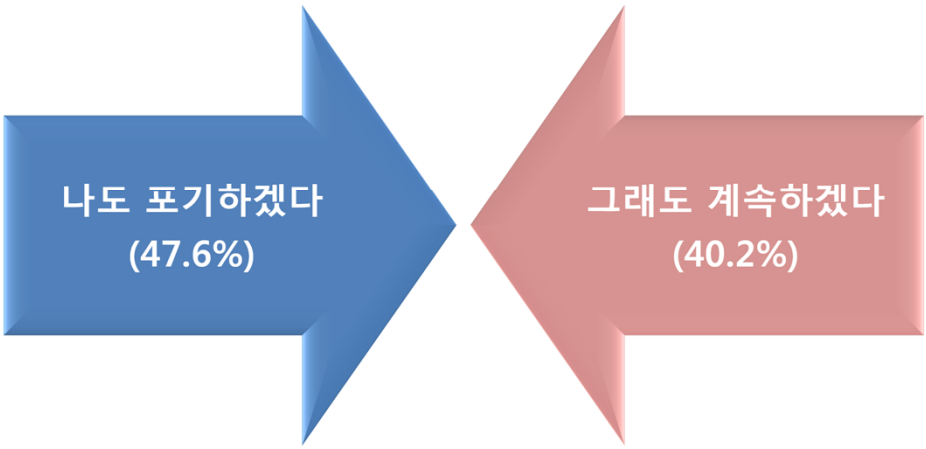
97% 과도하다!!!

- **매우 과도하다**
- **어느정도 과도하다**
- 별로 과도하지 않다
- 전혀 과도하지 않다
- 모름/무응답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이를 반영하듯 사교육 경쟁에 대해선
거의 모두가 "심하다"...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교육을 포기한다면?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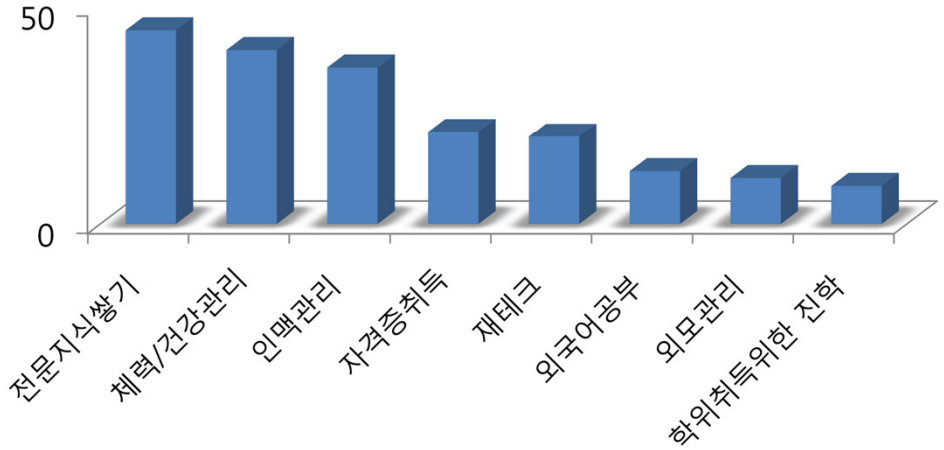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사교육을 포기한다면
내 아이의 사교육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47.6%는 "포기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사교육이
남들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하겠다" 는 답도 40.2%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포기하겠다고 답한 사람들도
결국은 포기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스펙' 쌓기 경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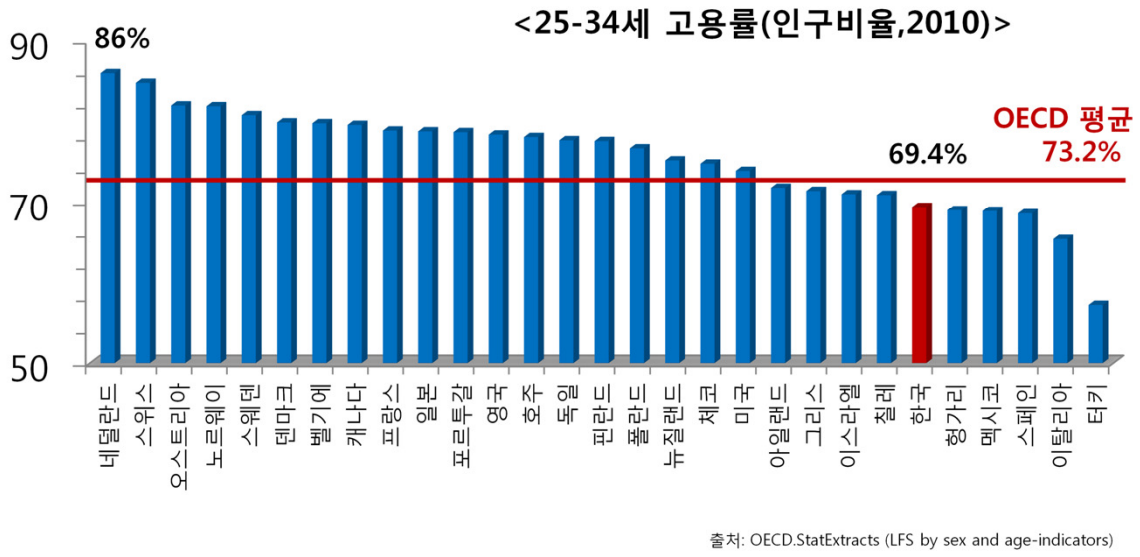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이런 과도한 경쟁 //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자격증 취득과 외모 관리까지
스펙 쌓기 경쟁이 끝이 없습니다.

청년고용은 OECD 꼴찌 수준



출처: OECD.StatExtracts (LFS by sex and age-indicators)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청년고용률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빼면
한국이 OECD 꼴찌수준입니다.

신규사업체 3년이면 반도 안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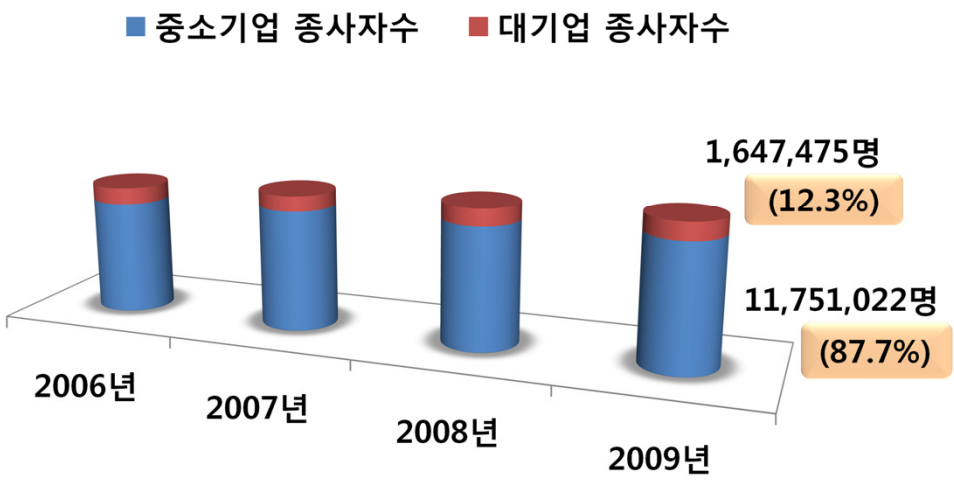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004	69.88	54.72	45.32	37.96	33.42
2005	73.09	57.52	46.68	40.29	
2006	73.78	56.31	47.29		
2007	71.78	57.23			
2008	74.79				
평균	72.63%	56.47%	46.42%	39.19%	33.42%

출처: 통계청. 2004~2009 사업체 생성, 소멸 현황분석. 2011.2.

치열한 취업 경쟁을 피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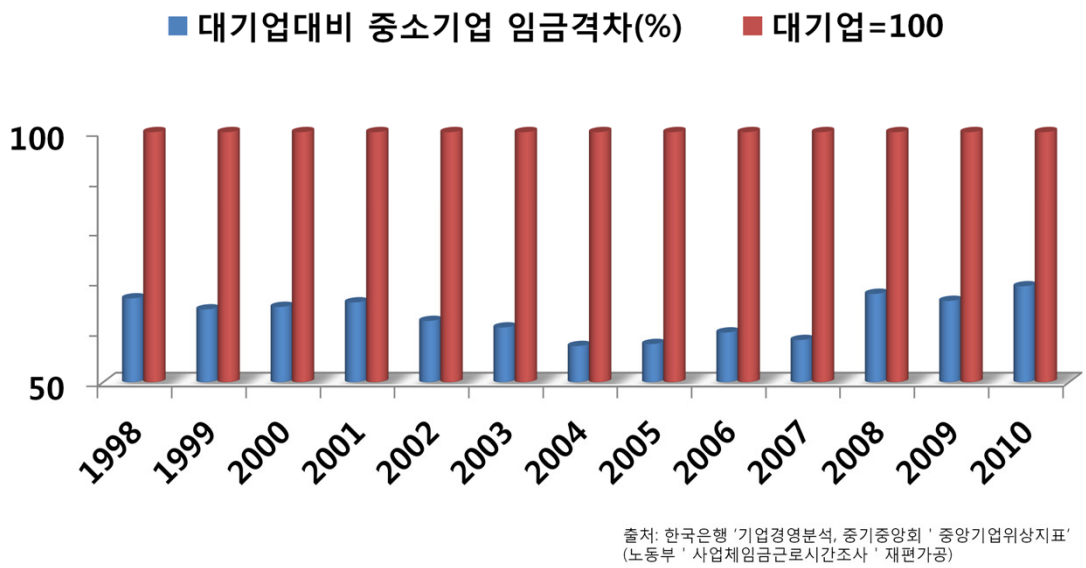
10명 중 1명만 대기업 입사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 가공
주: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기업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

이러다 보니 구직자들은 임금사정이 나은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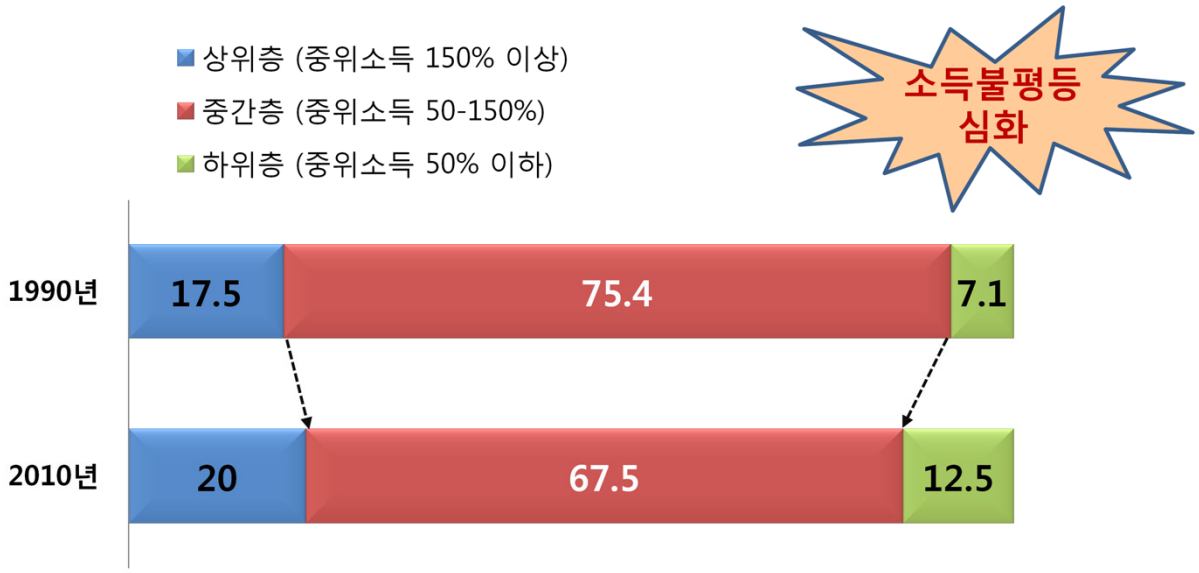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기중앙회 ' 중앙기업위상지표'
(노동부 '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재편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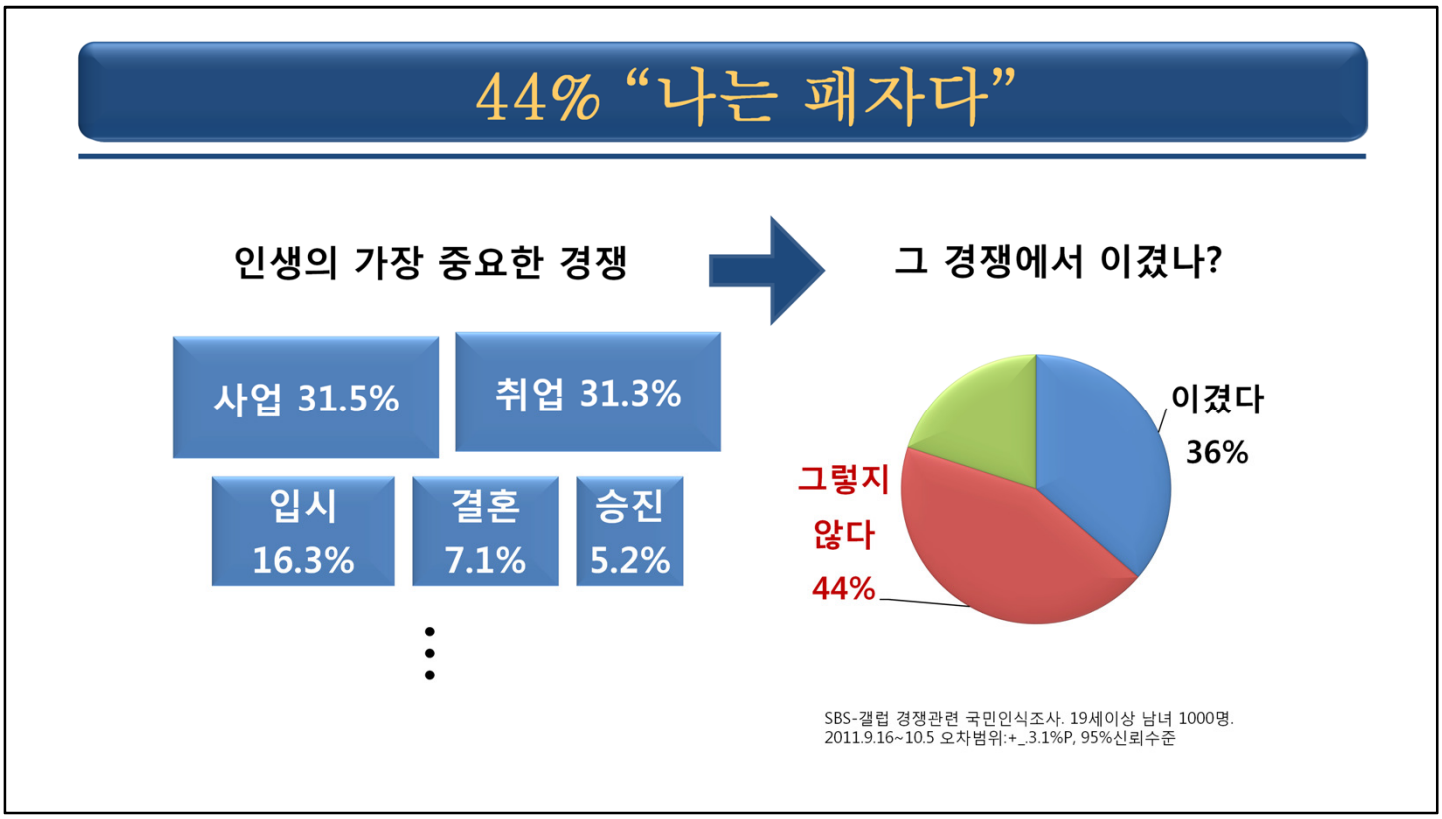
나머지 90%는 중소기업에서 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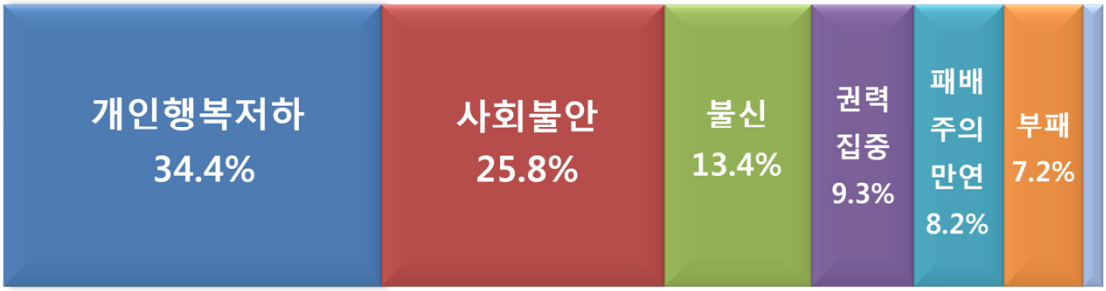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소득분배지표"(1990~2010)
도시(2인이상 비농가), 가처분소득 기준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사회의 근간인 중간층은 줄어들고 하위층은 늘어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쟁에서 당신은 이겼는지 물었습니다.
44%가 “나는 패자다”라고 답했습니다.

과도한 경쟁의 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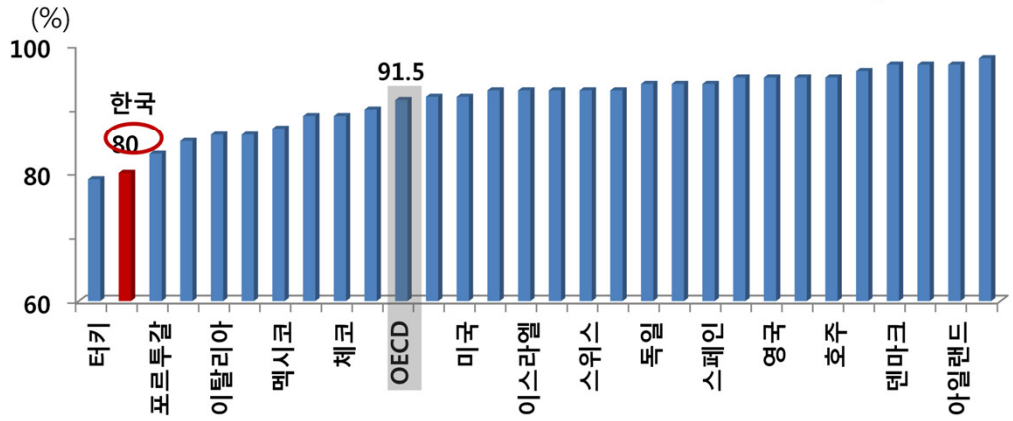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과도한 경쟁은 개인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불안과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기댈 데 없는 삭막한 사회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국,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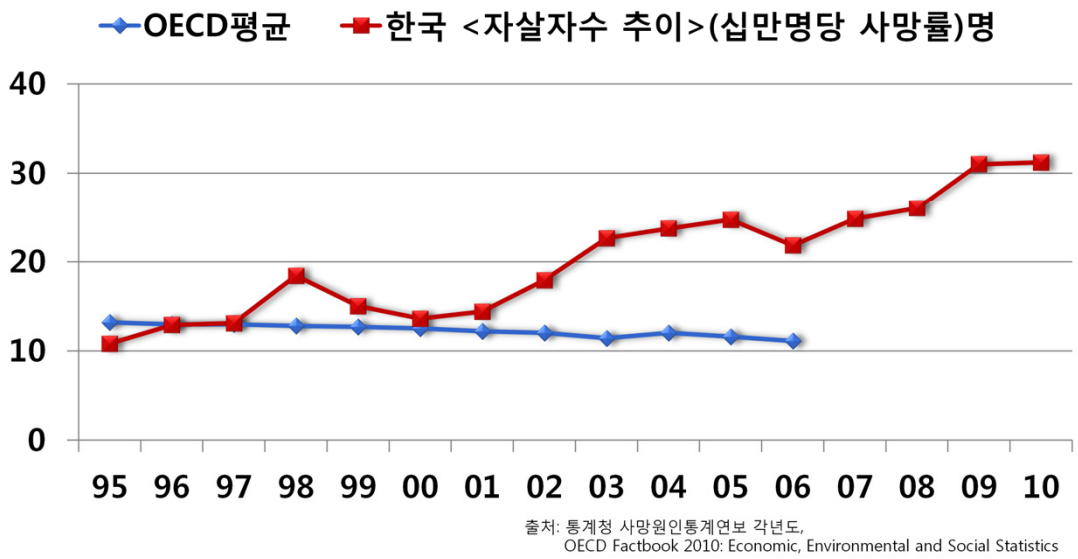


출처: Compendium of OECD Well-Being Indicators 2011

이렇게 사회가 불안할 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사회는 OECD 국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사람이 가장 없는
삭막한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자살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OECD국가들의 자살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근로 연령층 사망원인 1-2위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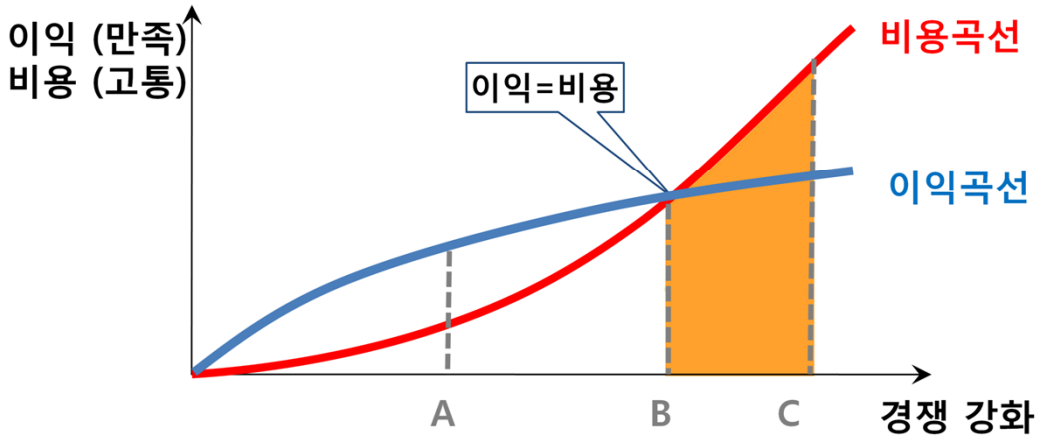
연령	1위 사망원인	사망률 (인구10만명 당)	2위 사망원인	사망률 (인구10만명 당)
10-19세	자살	5.2	운수사고	4.8
20-29세	자살	24.4	운수사고	9.0
30-39세	자살	29.6	암	16.8
40-49세	암	56.7	자살	34.1
50-59세	암	158.8	자살	40.1
60-69세	암	415.5	뇌혈관질환	88.9
70-79세	암	925.5	뇌혈관질환	357.1
80세이상	암	1530.0	뇌혈관질환	1162.3

출처: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더 충격적인 것은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와 50대도 암 다음이 자살일 정도로
우리사회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쟁단계?



출처: 캐나다 윈저 대학교 서상철 교수 제공

이런 어두운 단면은
우리가 경쟁을 하면할수록 경쟁의 효과는 사라지고
폐해만 커지는 단계에서 //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드 퀸 효과 (Red Queen Effect)?

동력 잃은, 효율성 없는 경쟁 - 경쟁의 딜레마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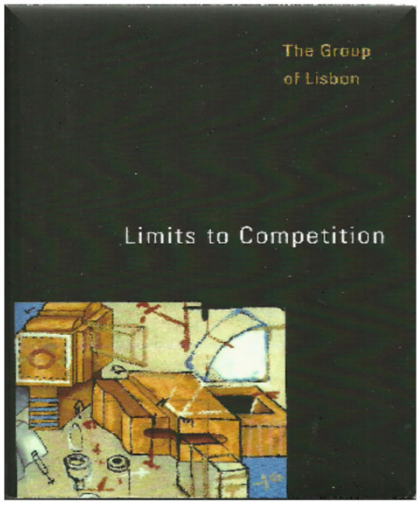
이미지: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동화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붉은 여왕, 레드 퀸의 모습입니다.

속편에 보면 레드 퀸과 엘리스가 함께 달리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런 레드퀸 효과에 빠지면서
동력도 잃고 효율성도 잃고...//
경쟁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경쟁의 한계(Limits to Competition)



유럽연합위원회(EU) 주축
서유럽, 북미, 일본의 학자 19명이
1995년 “경쟁의 한계“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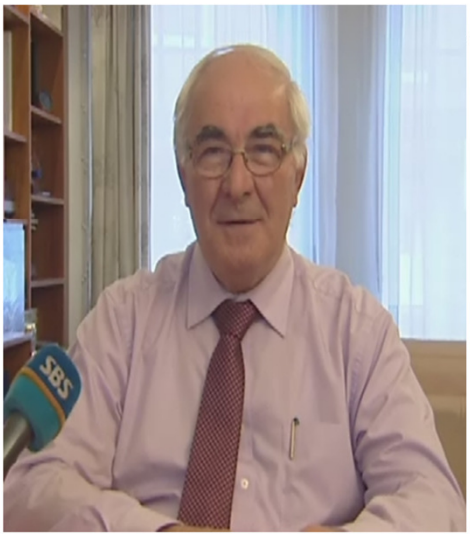
이미 유럽에선 1995년
이런 ‘과잉경쟁’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 위원회 주축의 학자 19명이
‘경쟁의 한계 ' 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요.

당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리카르도 페트렐라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VCR start

리카르도 페트렐라/ '경쟁의 한계' 저자대표



-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가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됐습니다. 20년 동안 경쟁은 사회와 (민주)정부를 파괴시켰고 복지사회도 무너뜨렸습니다. 경쟁은 사회적 연대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쟁은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이뤄진 과잉경쟁의 결과입니다. 경쟁이라는 말의 어원은 "같이 살기 위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같이 추구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과 대립하겠다거나 남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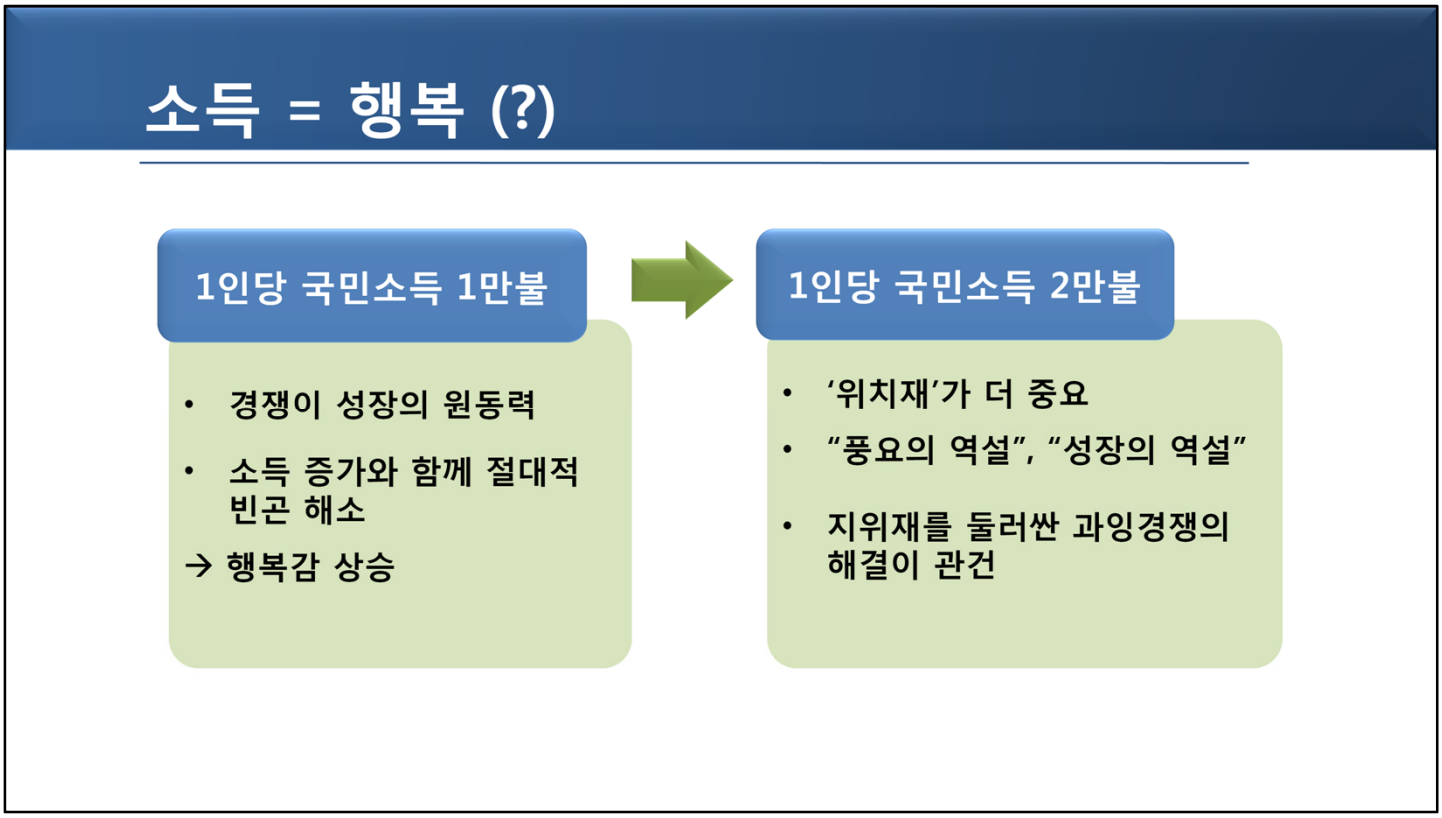
The fact, though, that we were right in writing this book because 20 years now demonstrated that competition has destroyed societies. Competition has destroyed the state. Competition has destroyed the welfare society. Competition has destroyed solidarity. Competition has destroyed everything // And these are very very long term consequences of excessive competition. The more so, that competition from Latin language means "to seek together the best solution to live together". Competition does not mean rivalry - I eliminate you." (58초)

특별연설

“경쟁과 사회의 질”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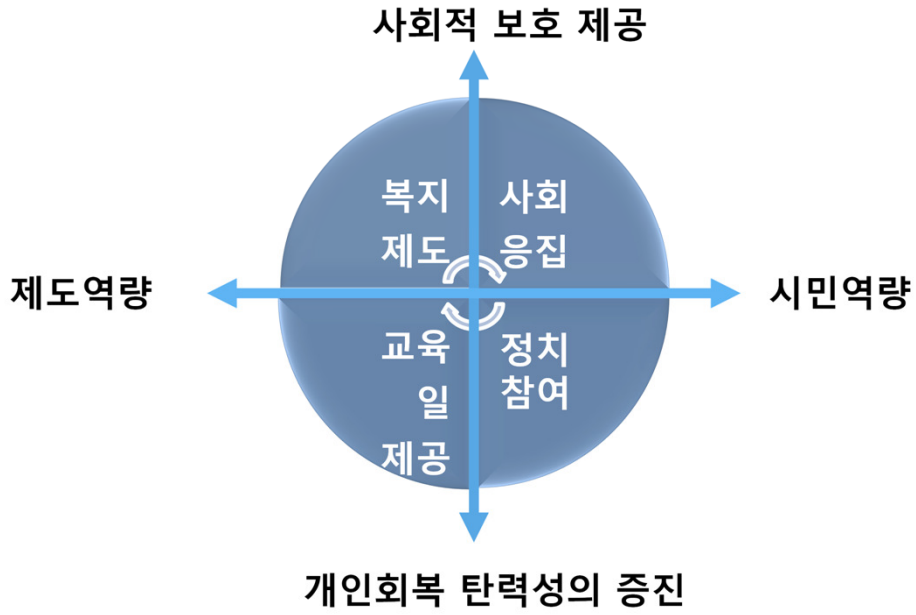
페트렐라 박사님은 과잉경쟁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경쟁과 ‘사회의 질 ' 사이에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의
특별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한국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가난하지만 평등한 사회에서 상승이동의 열망에 가득 찬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한 세대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치열한 경쟁은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국민들의 행복감도 높아졌습니다.
굶주림에서 해방되었고, 생활은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만불을 넘어선 현재는 전혀 다릅니다.
성장이 자동으로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나 환경처럼 남들과 대비해 희소성을 갖는 위치재(positional good)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역설’, ‘성장의 역설’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대학진학률은 84%이지만, ‘명문대학’ 졸업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지만,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꿈입니다. 제한된 지위재를 둘러싼 과잉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과 풍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감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의 질 (Social Quality) 이란?



그렇다면 과잉경쟁의 문제를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질이 높다는 점입니다.
사회의 질이란 GDP같은 경제지표로는 잡아낼 수 없는 사회발전의 척도로서, 전체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역량개발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는 제도역량과 시민역량이
균형적으로 잘 발달한 곳입니다.
제도역량은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복지역량,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역량으로 구성됩니다.
시민역량은,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적 응집성,
그리고 시민정치참여로 구성됩니다.

OECD 국가들의 사회의 질 순위 (2011)

순위	국가
1	덴마크
2	아이슬란드
3	스웨덴
4	노르웨이
5	핀란드
…	…
28	**한국**
29	멕시코
30	터키

30개국 중 2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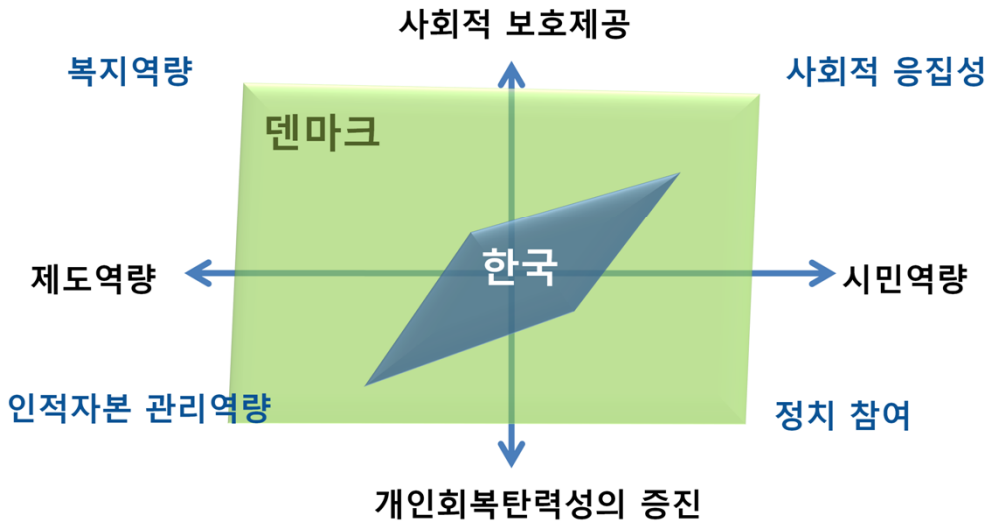
인적자본 18위
사회응집성 23위
복지 29위
정치참여 29위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38

한국사회의 질은
비교대상 30개 OECD 국가들 중에 28위에 불과합니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교육과 일자리 제공 능력은 18위로서 조금 양호하지만, 사회적 응집성은 23위, 그리고 복지역량이나 시민정치참여는 모두 29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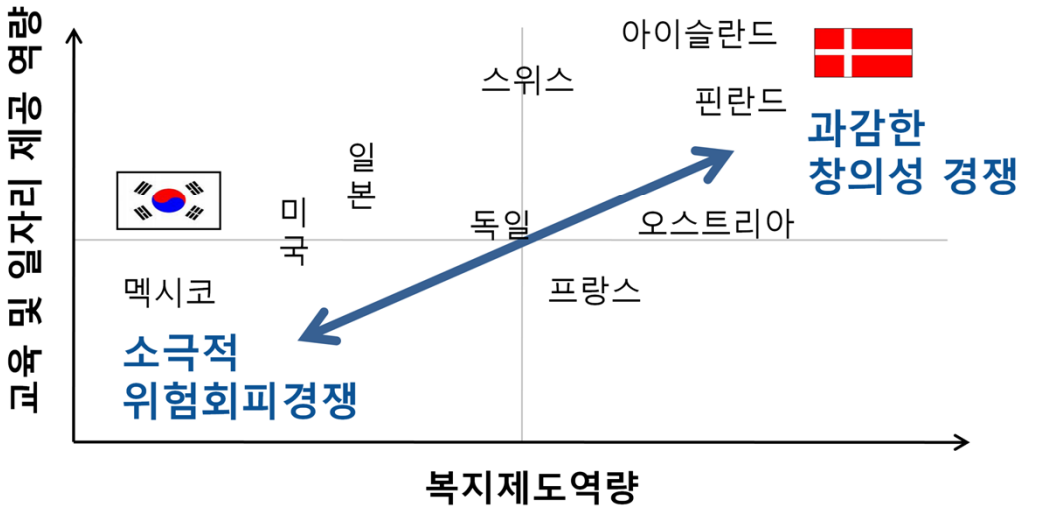
한국(28위)과 덴마크(1위)의 사회의 질 비교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전 세계에서 가장 질 높은 사회인 덴마크와 비교해 보면
한국이 얼마나 개선의 여지가 많은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두 사각형 간의 면적 차이가
두 나라간 질적 격차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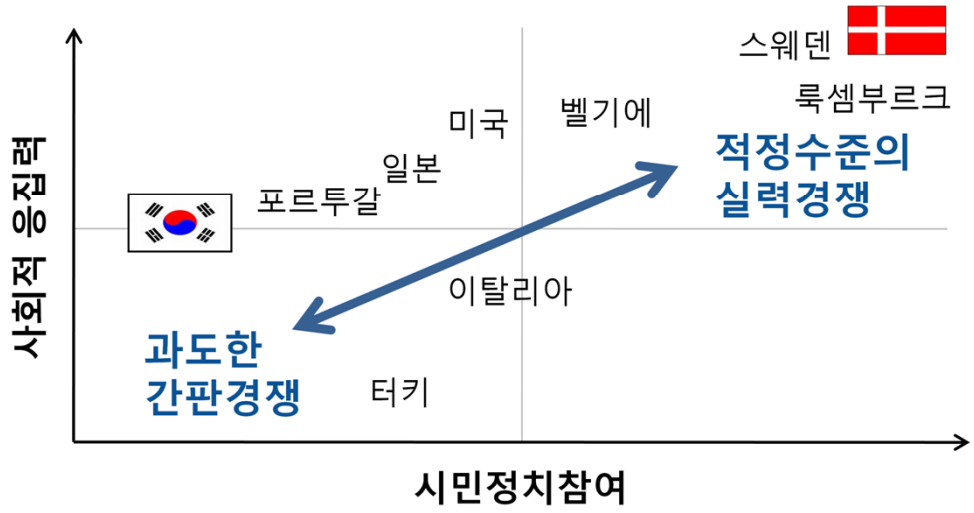
창의성 경쟁 vs. 위험회피 경쟁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그렇다면 이러한 질적 차이는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뛰어난 복지역량을 갖추고 풍부한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덴마크에서는 실패한 이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과감하게 창의적인 일에 도전합니다. 반면에 복지역량이 취약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실패가 용인되지 않다 보니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력경쟁 vs. 간판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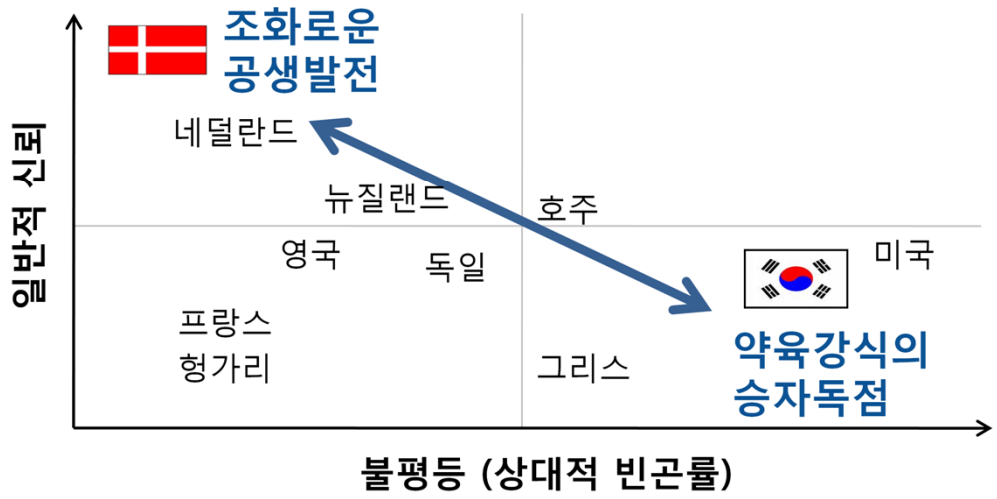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41

두 번째로 사회적 응집성이 높고 시민정치참여도 높은 덴마크나 스웨덴에서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시민적 해결의지가 높고,
또 문제를 풀어나갈 제도권 정치도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실력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한국은 투명성이 낮고, 각종 기관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치화된 객관적 평가에 매달리는 과도한 간판경쟁의 폐단이 나타납니다.

공생발전 vs. 승자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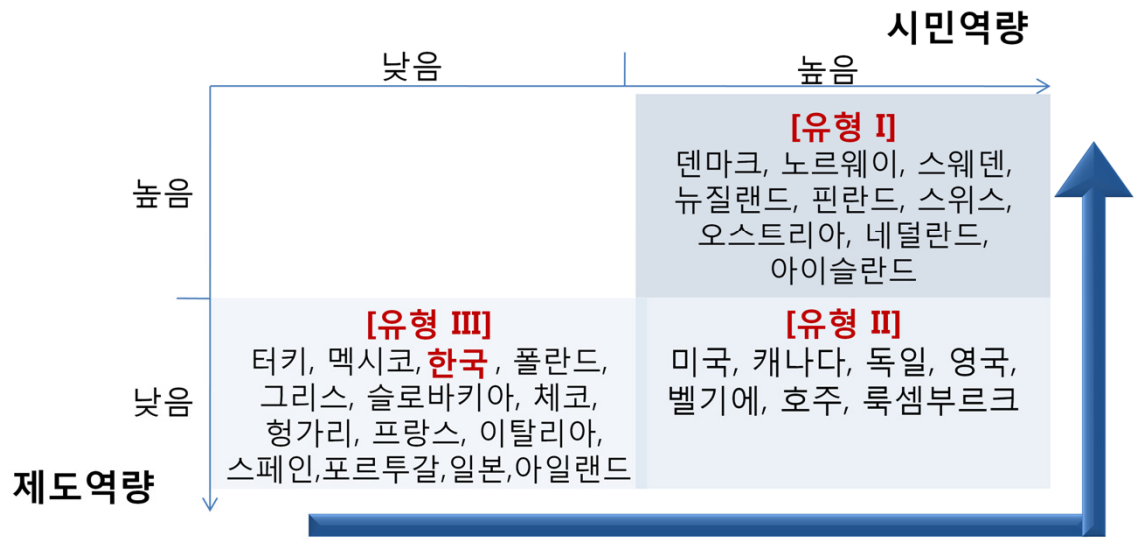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42

세 번째,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는
조화로운 공생발전이 가능합니다.
불평등이 적고 구성원간의 신뢰도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대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불신도 높은 한국은
약육강식의 승자독점에 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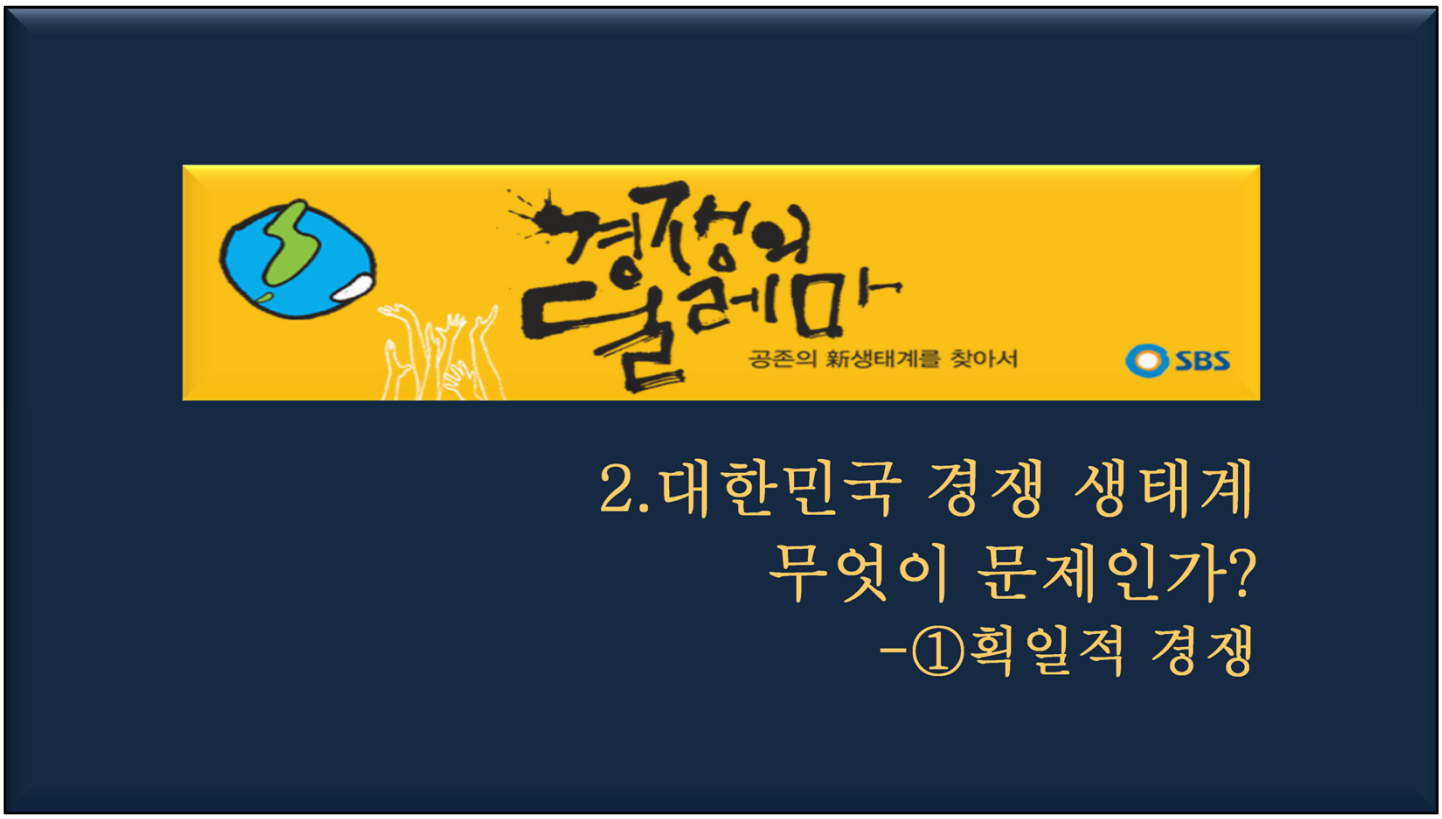
시민역량이 성숙해야 제도역량 높아진다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위험회피경쟁 대신 창의성 경쟁을,
과도한 간판경쟁보다 적정수준의 실력경쟁을,
약육강식의 승자독점보다는
평화로운 공생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낮은 소득 수준이었을 때
이미 높은 수준의 시민역량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복지역량도 높이고,
결과적으로 공생발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과잉경쟁의 해법은
사회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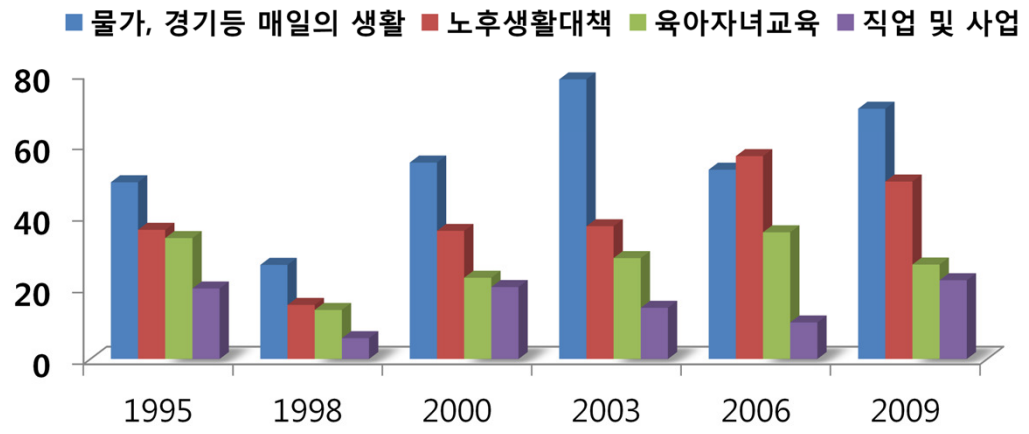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쟁 생태계, 과연 어떠한 딜레마에 빠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더 불안해진 한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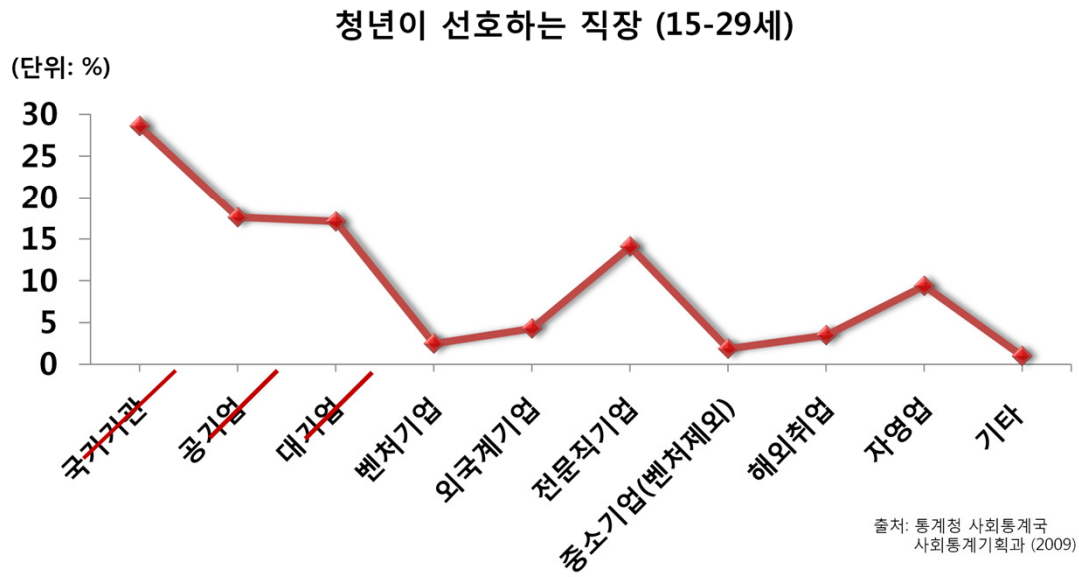
출처: 생명보험협회 정책개발부 상품수리팀 (복수응답) 2011.10

(보다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불안" 일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 직장으로 쏠림 현상



이런 불안감은
청년들로 하여금 무조건 검증되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수의 직장과 직업에서
치열하고 획일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쟁률 100:1

- **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

연도	선발인원(명)	출원인원(명)	경쟁률
2011	1,529	142,732	**93.3:1**

- **공무원 7급 채용시험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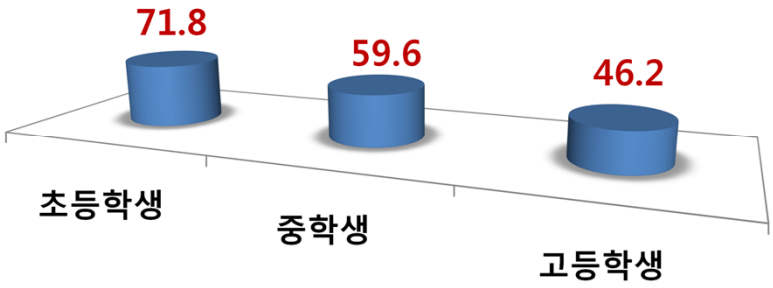
연도	선발인원(명)	출원인원(명)	경쟁률
2011	461	56,561	**122.7:1**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93대1이고
7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100대 1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학생들 장래희망도 쏠림 현상

10대 장래희망 직업에 쏠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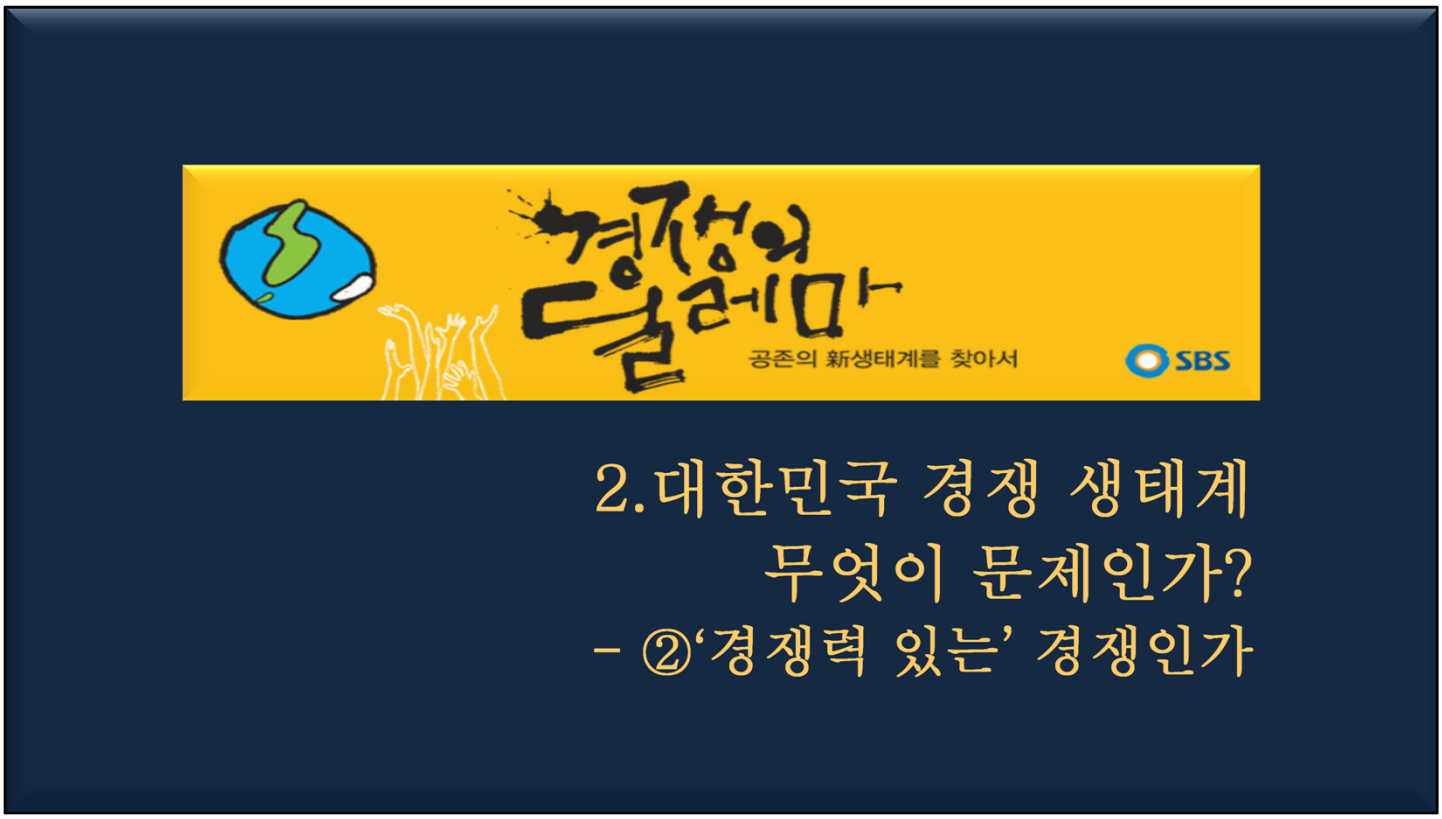


***선생님, 의사, 경찰, 회사원, 법조인, 교수 등**
30년 전부터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쏠림 현상!!!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국 593개교 초,중,고등학생 15,978명 대상 조사.20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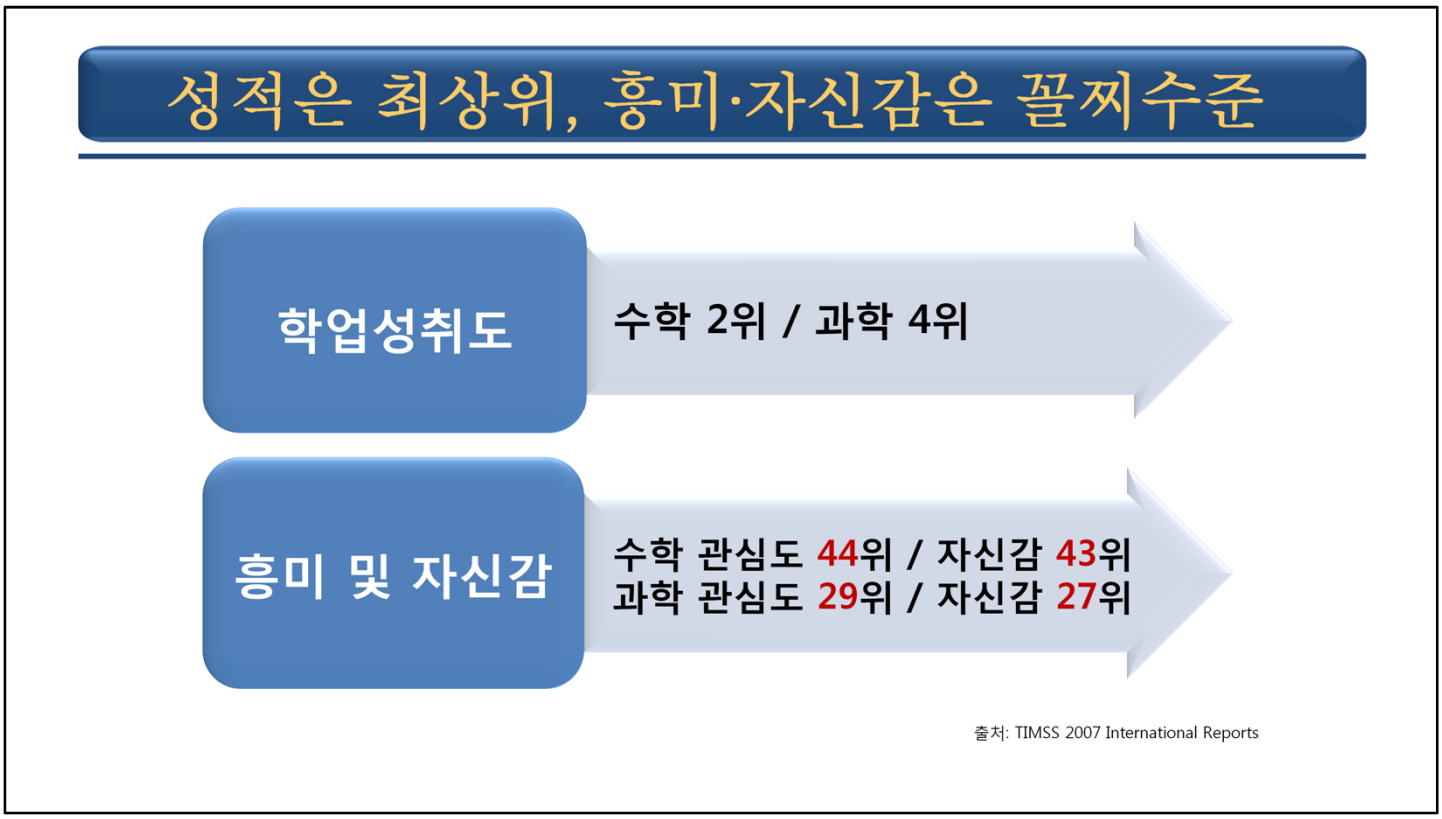
어린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봐도
절반 이상이 10개 직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직업도 새롭고 진취적인 직업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부모들이 선호하던 직업입니다.



두번째 딜레마는 경쟁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치열하게 경쟁에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그 결과가 만족할 만하고
그 경쟁이 경쟁력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중학교 2학년 수학, 과학 성적입니다.
가장 최근의 것을 보면
한국은 수학 2위, 과학 4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공부는 이렇게 잘하는데
수학에 대한 관심은
마흔 여덟개 나라 가운데 44등, 자신감도 43등입니다.

과학도 관심도는 스물 아홉개 나라 가운데 꼴찌,
자신감은 꼴찌에서 세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성적은 좋지만 관심이나 자신감은 없다!!!
해야하니깐 마지못해하는 것입니다.

학습시간 대비 수학 성적 최하위권

국가	PISA 수학 성적 (OECD 국가 중)	학습시간 당 수학성적
한국	1위	61점
핀란드	2위	108점
스위스	3위	85점
일본	4위	81점
네덜란드	6위	105점
스웨덴	20위	102점

OECD 평균 75점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 1위
(정규수업 외 주당 9시간)

학습시간 대비 수학성적
최하위권

출처: OECD , 2011, *Quality Time for Students: Learning In and Out of School* / OECD, 2010, *PISA 2009 Results*

공부한 시간을 보면 경쟁력은 더 떨어집니다.
한국이 수학성적 1위를 차지한 OECD PISA 자료입니다.

1위였던 한국성적을 시간당 성적으로 계산해보니 61점으로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켜 잘하게 된 것이지
같은 시간 내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게다가 순위에 집착하는 우리의 경쟁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실험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VCR START

VCR START

우리는 대학생 두그룹을 나누어
창의력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일곱개의 퍼즐을 이용해
사각형과 컵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두 그룹의 조건을 달리해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화면 조금 보고)
먼저 A그룹은
30분 안에 문제를 무조건 풀기만 하면
3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창의력으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 B그룹은
일단 3만원의 돈을 나눠준 뒤
문제를 늦게 푼 사람의 돈을 회수해
문제를 빨리 푼 상위 5명에게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풀이 속도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말하자면 경쟁 상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조건의 A그룹이
성과가 더 좋았던 것입니다.

<인터뷰> 문 아리나(A그룹/비경쟁 그룹)
"처음에 그 돈을 다 똑같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가 푸는 방식대로 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터뷰> 최유라(B그룹/경쟁 그룹)
"앞에 한명씩 계속 일등하고 이등하고 할때마다..5등안에 들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풀리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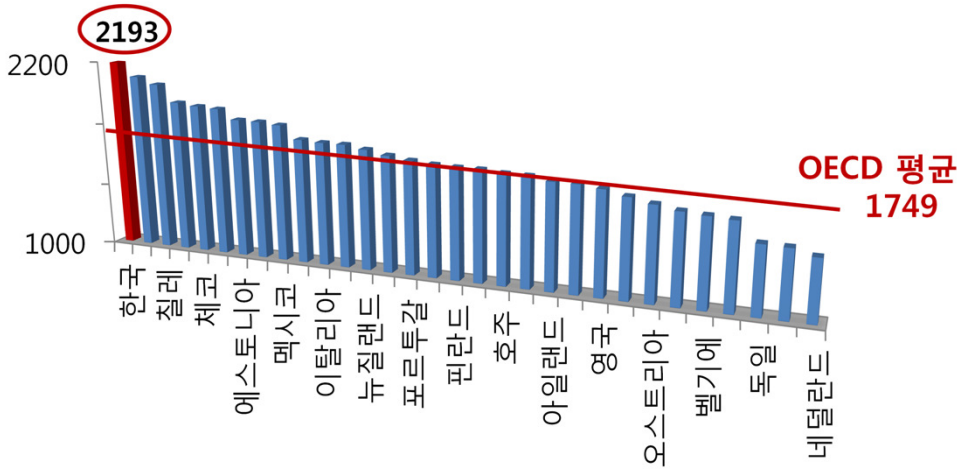
서로의 경쟁이 필요없었던 A그룹 학생들은
다른 사람 의식을 하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경쟁을 해야했던 B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풀어야한다는
조급함과 불안감이 커져서
문제 푸는데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선
경쟁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경일/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는, 벗어남 즉 이탈,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죠. 사람이 불안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 미련을 버리고 파격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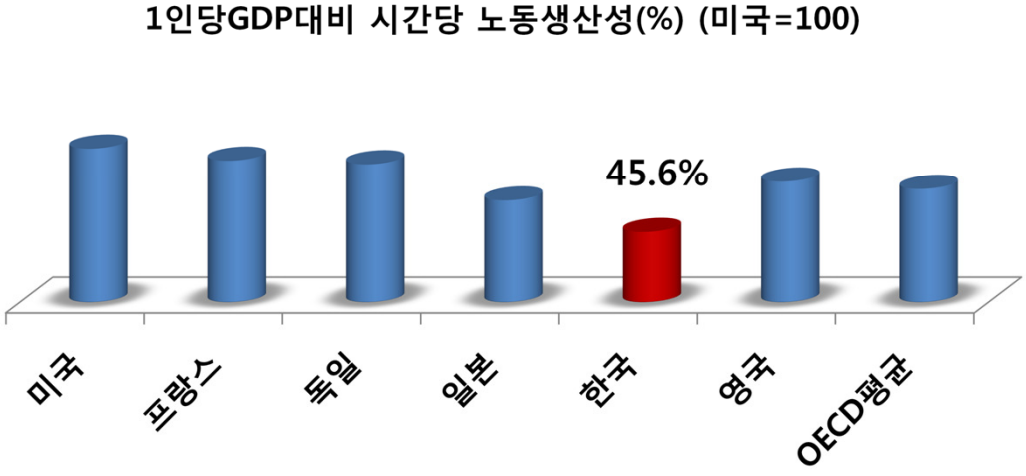
연간 근로시간 세계 1위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11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이번에는 연간근로시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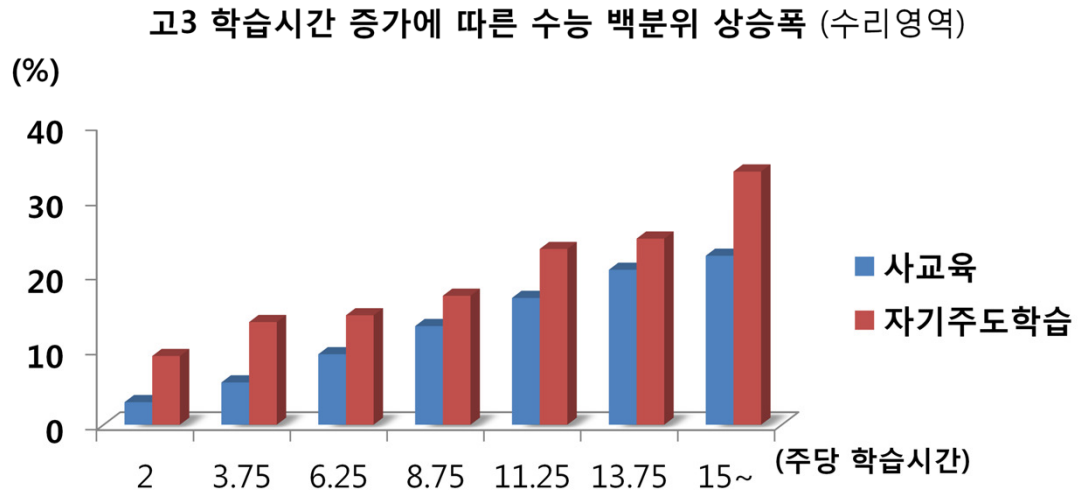
생산성, 미국의 45.6%



출처: OECD.Stat 2011. 10.

하지만 정작 노동 생산성은/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사교육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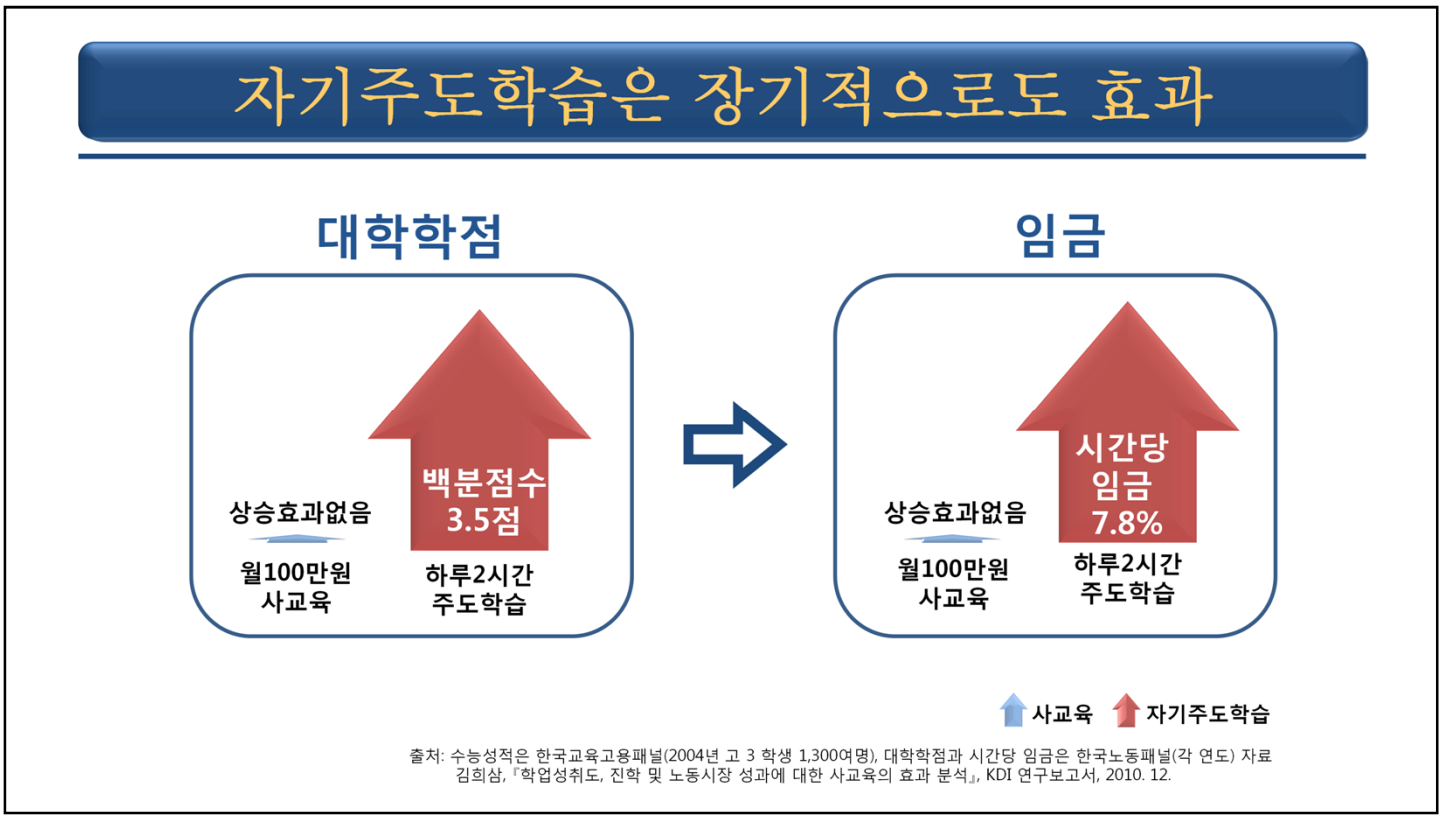


출처: 김희삼 (2011), "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한가?", KDI정책포럼 231호

사교육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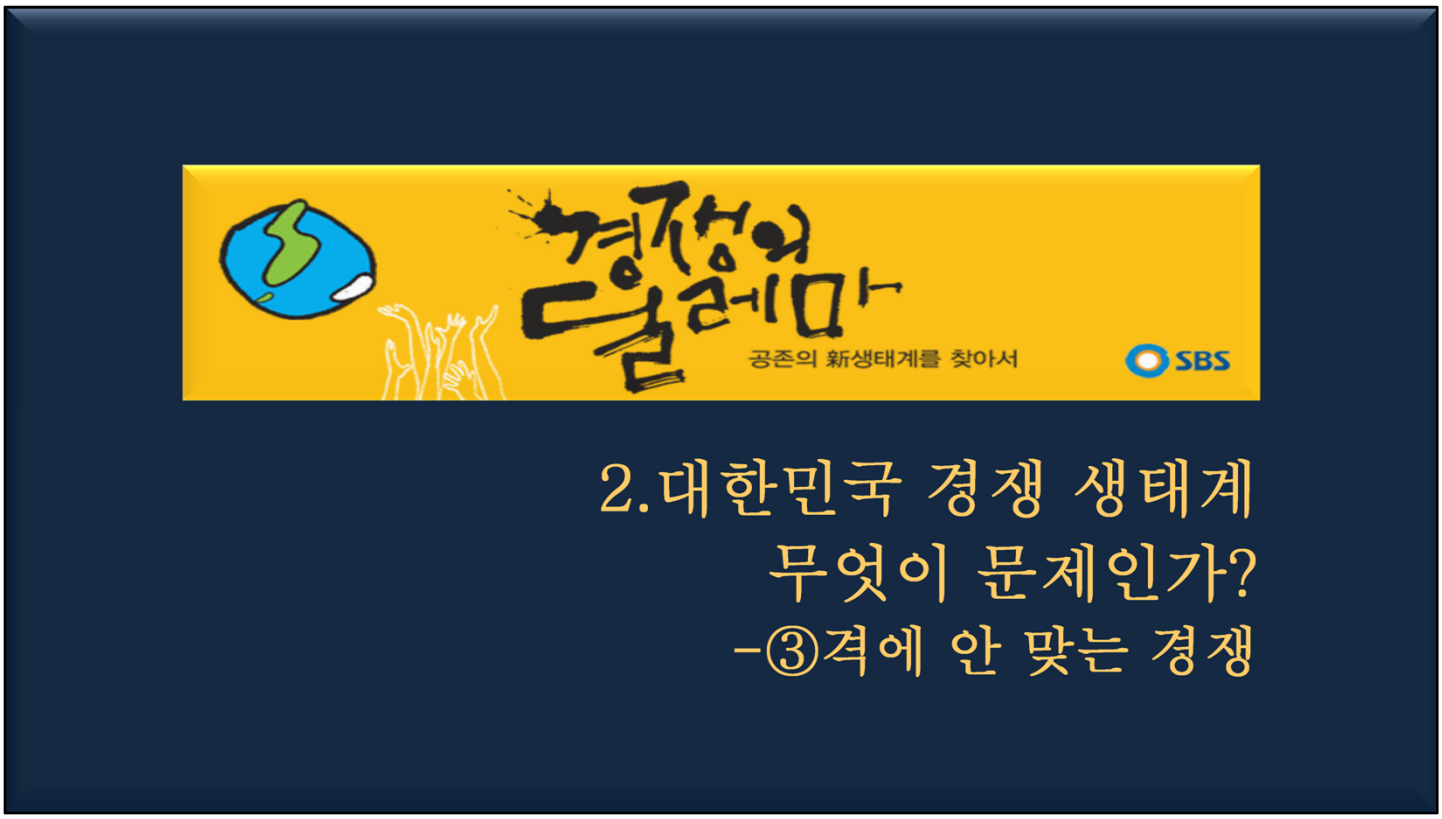
같은 학생들을 매년 추적조사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
KDI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자기주도 학습을 한 아이들의 성적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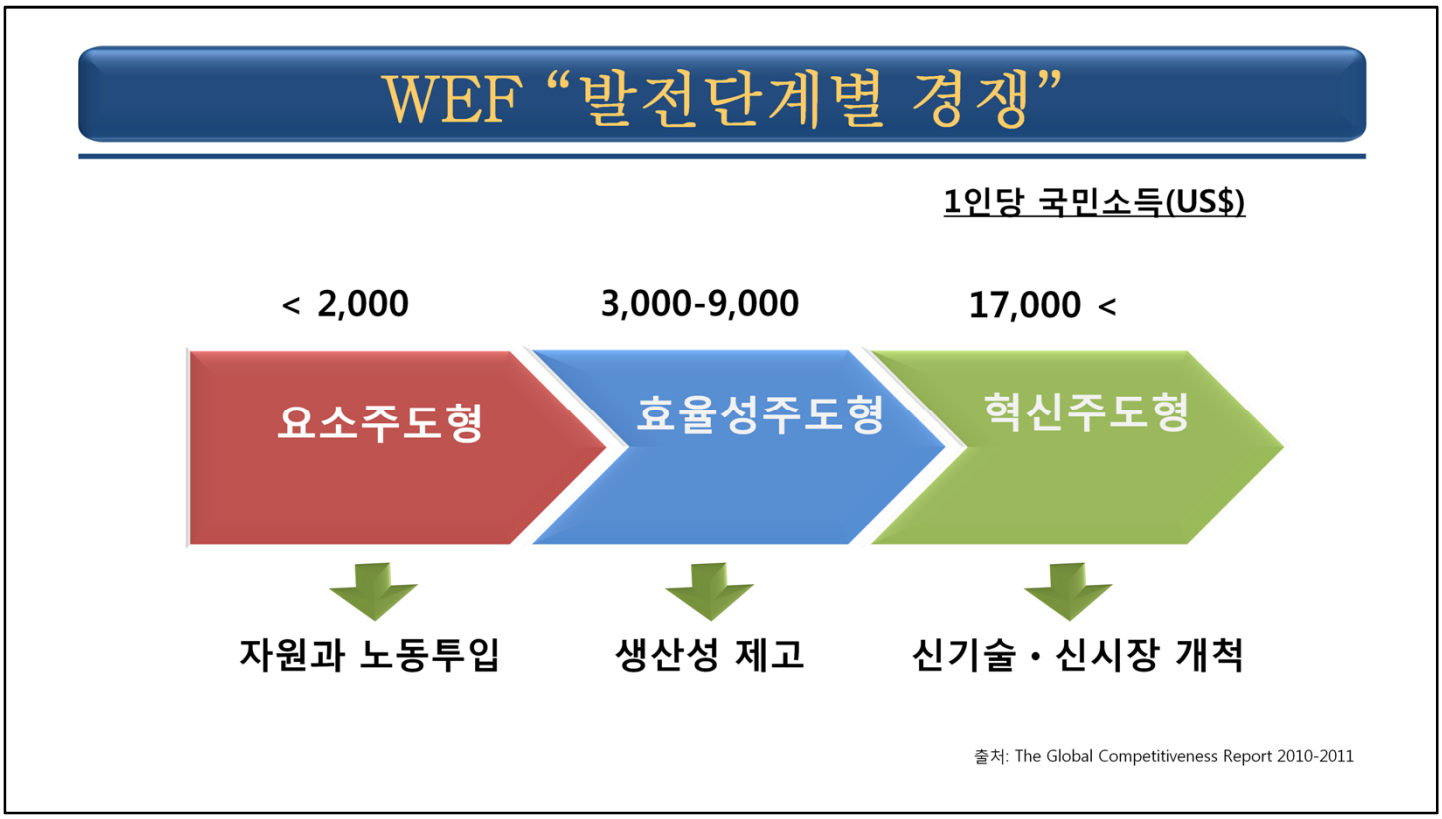


특히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학습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학점도 높고
취업 후 **시간당 임금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교육 경험은
대학학점이나 임금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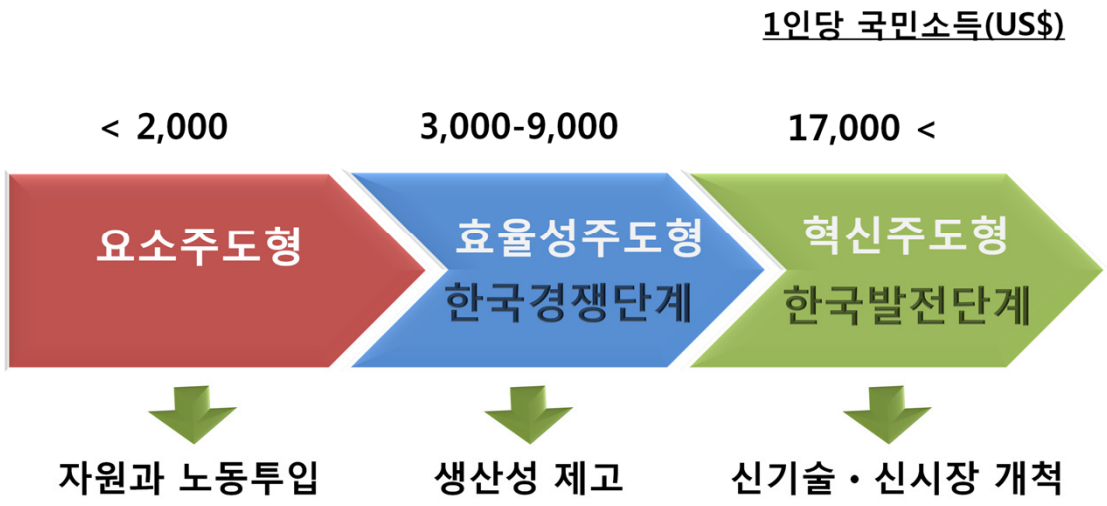
세번째 딜레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쟁의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에 따르면
발전단계별로 국가들이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수준별로
경제성장의 조건을 따져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 이하에선
충분한 자원과 노동 공급이 중요하고
3천에서 9천달러 사이는 생산성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만7천 달러 이상에선
신기술을 통한 신시장의 개척이 국가 성장의 주요 요건이 됩니다.

WEF "발전단계별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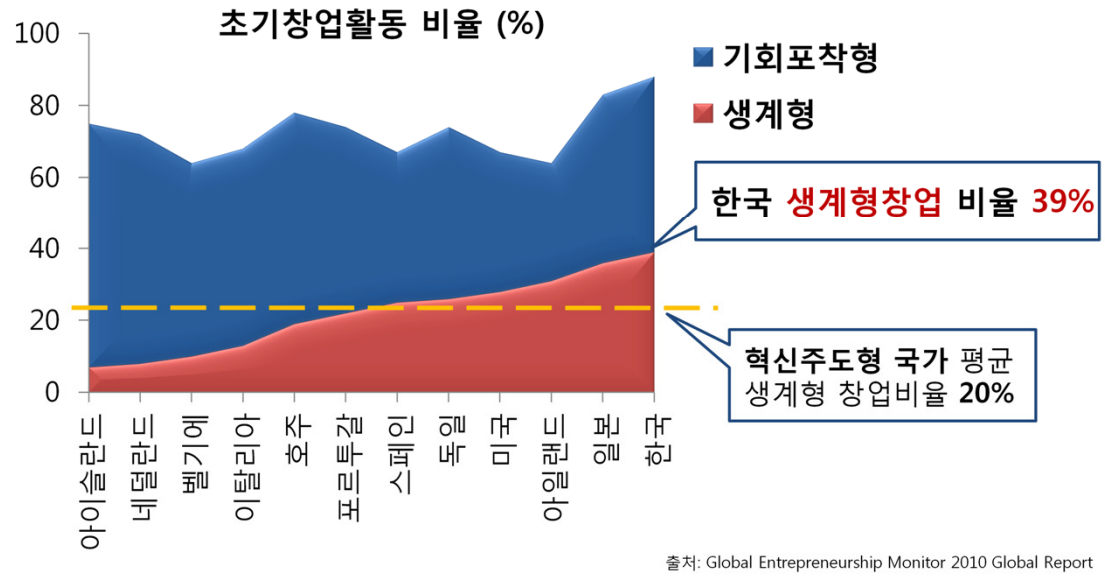
출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발전 단계별로는 혁신주도형 국가입니다.

==========

그런데 우리의 경쟁 모습은 아직도
효율성 주도형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높은 생계형 창업비중



출처: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0 Global Report

혁신주도형 국가에서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기회포착형'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잦은 휴,폐업

산업	신규사업체(%)	휴,폐업 사업체(%)
도매 및 소매업	25.15	26.81
숙박 및 음식점업	20.88	22.07
전산업	100.00	100.00

※문제점, 노하우 등 공유 안돼
실패한 곳에 바로 또 들어와 같은 이유로 망해

출처: 통계청. 2004~2009 사업체 생성, 소멸 현황분석. 2011.2.

그 생계형 창업 마저도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집중돼 있고
운영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아
서로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잦은 휴,폐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빈약한 창의적 직업

순위	국가	취업자 중 창의적 직업 종사자 (%)
1	**아일랜드**	**33.47**
2	벨기에	30.41
3	호주	30.14
4	네덜란드	29.54
5	뉴질랜드	27.07
…	…	
11	미국	23.55
…	…	
38	**한국**	**8.80**

•창의적 직업 종사자 (Creative Class):
신규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자로 과학자, 엔지니어, 예술가, 문화창조자, 관리자, 전문가 등 포함

39개국 중 38위

출처: Richard Florida (2005)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 pp.278-280.

과학자나 엔지니어 등 창의적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도
한국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을 밑돕니다.

쉽지 않은 기업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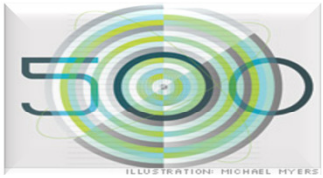
벤처기업 가운데 2010년 현재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은 4개에 불과

:넥슨, 휴맥스, 디에스, 엔에치엔

NEXON NHN HUMAX EASY DIGITAL™ DS

출처: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벤처협회 명예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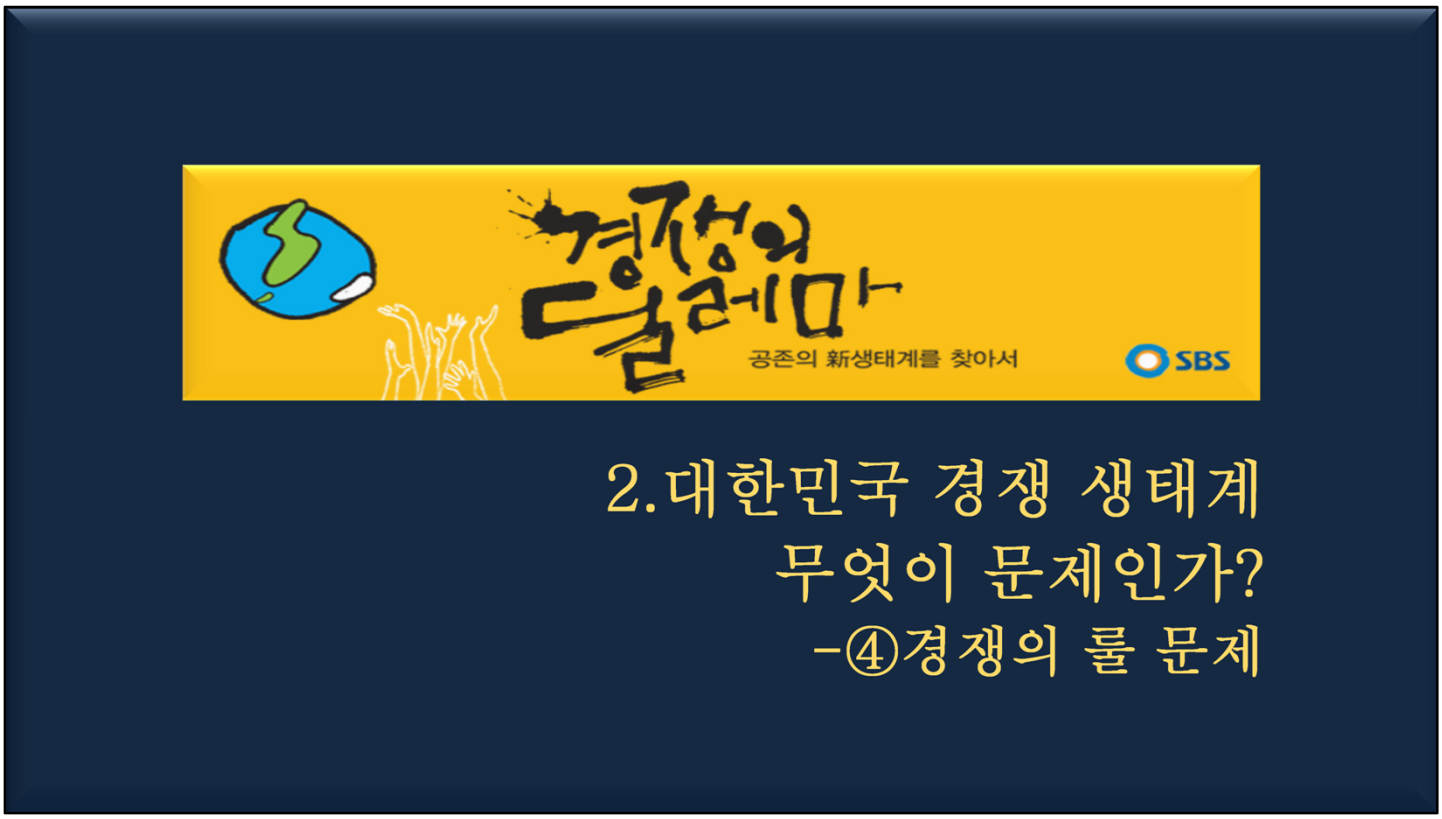
Fortune Global 500



*500대 글로벌 기업 中 한국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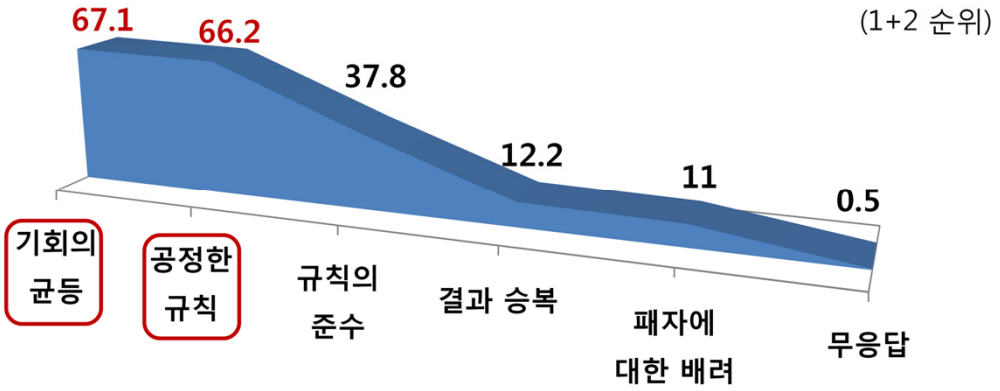
2000년 12개 →2011년 14개

이렇게 사회전반에 혁신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
벤처기업 가운데 1조원 이상으로 큰 기업은 4개에 불과하고
500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의 수도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생태계는
선순환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의 룰도 문제입니다.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67.1%가 기회의 균등을, **66.2%**가 공정한 규칙을 꼽았습니다.

경쟁의 규칙 얼마나 공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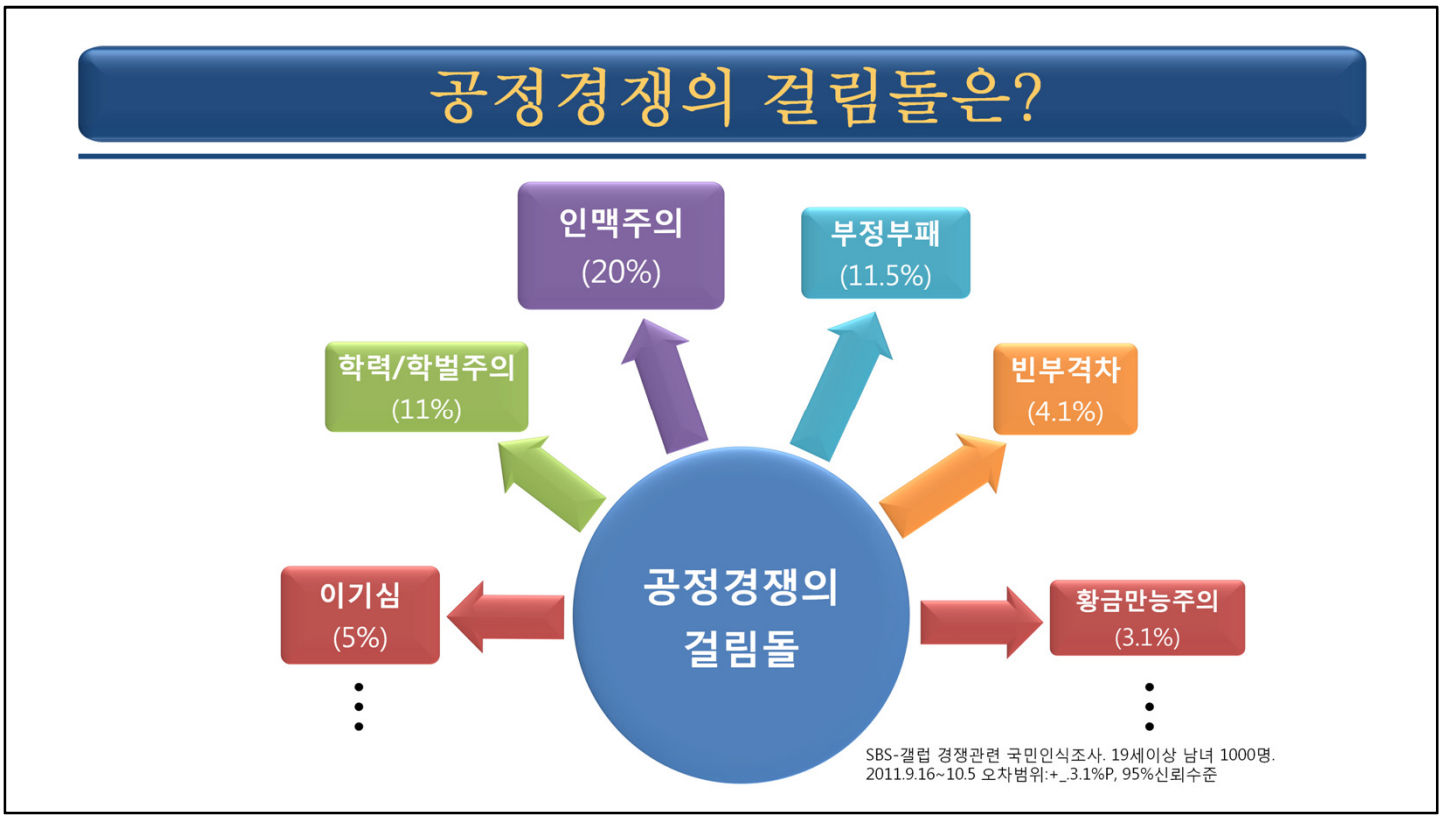
우리 사회 전반에서 경쟁의 규칙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공정하다	어느 정도 공정하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0.9%	30.4%	**60.8%**	**6.4%**	1.5%

공정하지 않다 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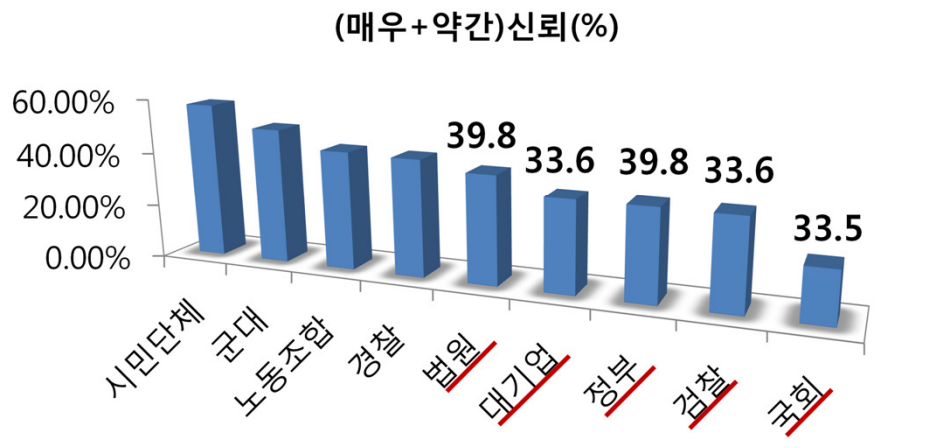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그러나 우리사회 전반으로
경쟁의 규칙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는
67.2%가 “공정하지 않다” 라고 답했습니다.



공정경쟁의 걸림돌로는
인맥주의와 부정부패, 학벌주의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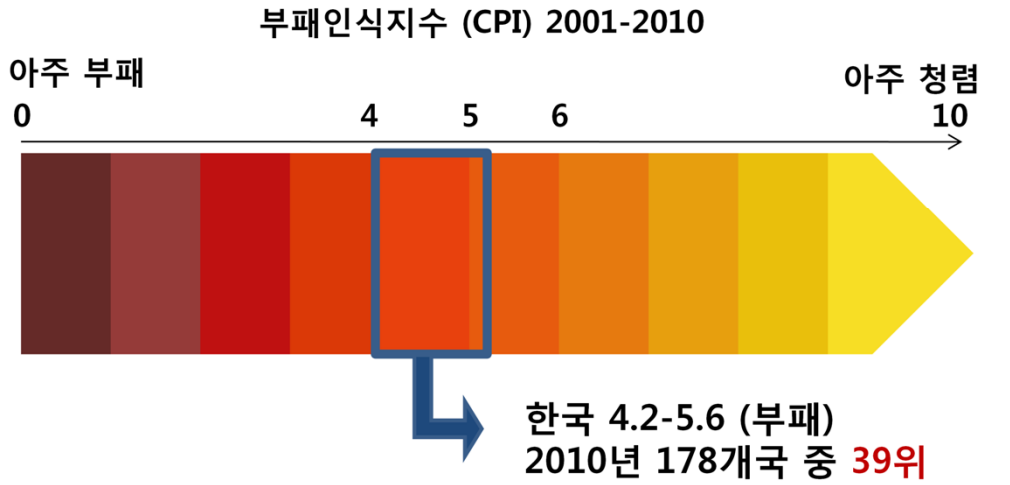
주요기관의 낮은 신뢰도



SBS-갤럽 설문조사. 19세이상 남녀 1009명,
2010 9.28-10.11 오차범위 +_3.1%P, 95%신뢰수준

반드시 공정성이 필요한 법원, 대기업, 정부, 검찰, 국회 모두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40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개선되지 않는 부패수준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1-2010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매긴 부패인식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백일흔여덟개(178) 나라 가운데 39위로
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높은 부패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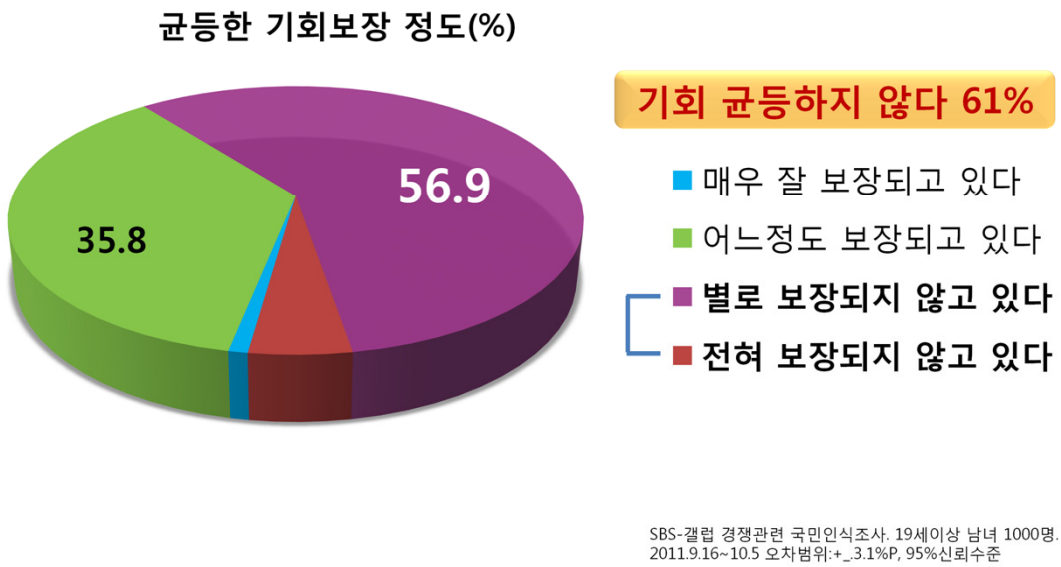
경쟁 승리 위한 규칙 위반 의향

소득수준별	규칙 어기겠다	규칙 지키겠다
199만원 이하	22.4	71.2
200~299만원	26.8	69.4
300~399만원	26.1	65.2
400~499만원	28.7	64.9
500만원 이상	**37.4**	60.6
모름/무응답	11.1	66.7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한편 소득이 높을수록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져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경쟁의 룰에 대한
위반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쟁의 기회 얼마나 균등한가?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다음은 기회균등과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열에 여섯은
우리사회에서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 결과에 승복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쟁의 결과에 얼마나 승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승복한다	어느 정도 승복한다	별로 승복하지 않는다	전혀 승복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2.0%	44.9%	**46.6%**	**4.1%**	2.4%

승복하지 않는다 50.7%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이러다 보니 절반이상의 사람들은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별연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그러면 여기서
경쟁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 KDI의 고영선 연구본부장님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회 불균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KDI

-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대해 다양한 의견 존재, 그러나 최소한 "사전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 이런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보육, 교육, 노동시장정책
  -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본 공평하게 지원
  - 이 분야 정책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님

SB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61%가
"기회 균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1%가 경쟁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전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보육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공평하게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정책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육: 빠른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은 미흡 KDI

- **예산 매년 약 50%씩 증가**: 2002년 2천억원 → 2010년 4조원
- **그러나 전반적 보육서비스 질은 미흡**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결과(2005~2010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합계
전체 시설수(개소)	1,917	1,470	14,368	66	17,359	370	35,550
참여율(%)	111.9	130.4	97.9	98.5	80.9	79.0	91.4
인증률(%) (전체 시설수 대비)	84.8	85.7	56.6	30.8	52.5	54.9	57.2

주: 1) 전체 시설수는 2009년 말 기준, 참여 시설수는 2010년 5월 말 기준. 2) 중복참여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V," 2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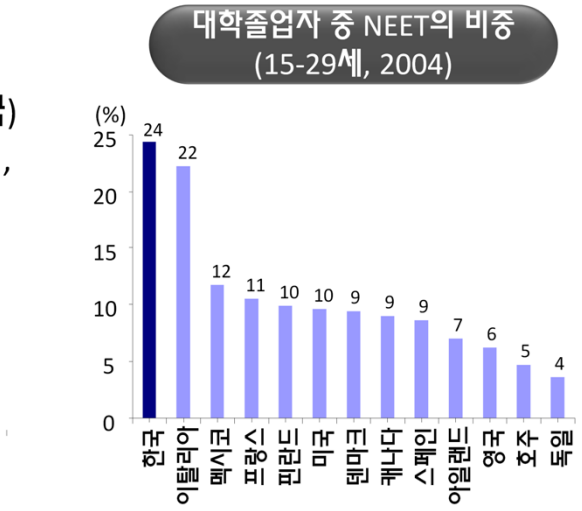
- **평가인증제도 강화 필요**: 평가결과의 상세한 공개, 未인증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먼저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그 동안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은 약 35,000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7%의 시설만이 정부인증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부인증도 받지 않은 영세한 시설들이
보육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가정은
믿고 맡길 보육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기관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하고, 질이 낮은 보육시설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부실한 교육서비스가 청년실업의 중요원인

KDI

- **대학교육 품질 매우 낮은 수준**
  - IMD **대학 경쟁력 순위**(2011, 59**개국**)
    : **싱가포르** 2**위**, **홍콩** 17**위**, **대만** 19**위**, **한국** 39**위**
  - **세계** 200**위에 포함된 대학 수** (2010/2011)
    : **미국** 72**개**, **영국** 29**개**, **중국** 6**개**, **한국** 4**개**
  - **대학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상황**



주: NEET는 근로, 교육,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한국 및 뉴질랜드 2005년, 영국 2003년.
자료: OECD.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대학교육을 살펴보면,
품질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IMD의 대학 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9개국 가운데 39위에 불과합니다.
또 세계 200위에 포함된 대학 수가 4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대학교육의 질이 낮다 보니,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졸자 중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소위 NEET 집단의 비중이 24%에 달합니다.
결국 "대학교육이 등록금 값을 못하니 등록금이나 깎아 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대학 구조조정과 초,중등 교육 시스템의 개편 필요

- **대학교육 및 초,중등 교육의 질적 제고가 절실**
  -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 통해 대학교육의 평균적 수준 제고**
  - **초,중등 교육 역시 학교 단위의 자율과 책임 강화, 우수교사 육성 등을 위해 노력**
    -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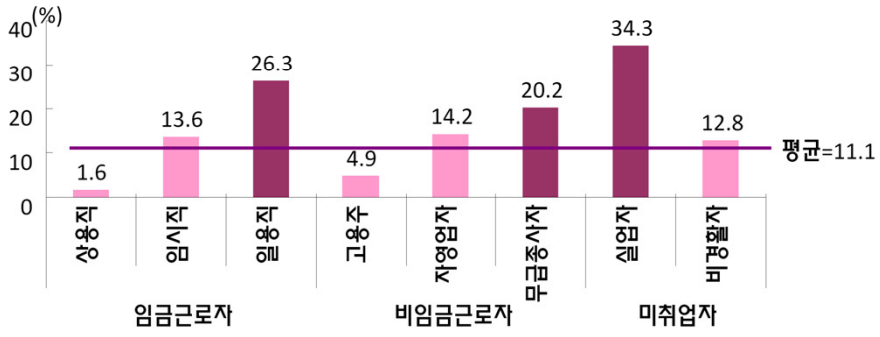
현재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대학교육과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평균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 역시 학교 단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교사를 육성함으로써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능력은 있으나 집안이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빈곤위험에 주목

KDI

- 실업자,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의 빈곤율 높은 수준

18~64세 근로능력자 중 종사상지위별 집단의 빈곤발생률



주: 경상소득 기준.
자료: 노대명 외, "근로빈곤증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빈곤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세~64세의 근로능력자들을 대상으로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실업자 가운데 약 1/3이 빈곤층이고,
무급가족종사자의 약 1/5이 빈곤층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약 ¼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 지원 불충분

KDI

-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 특히 공공고용서비스 (취직상담, 직업알선 등) 미흡
  - 직업훈련 미흡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출(2009)

노동시장정책	한 국	OECD 평 균
1.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	0.02	0.16
2. 직업훈련	0.07	0.18
3. 직무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0.00	0.00
4. 고용보조금	0.06	0.10
5. 보호고용 및 재활	0.02	0.09
6. 직접 일자리 창출	0.22	0.07
7. 창업지원	0.01	0.02
8.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	0.42	0.95
9. 조기퇴직	0.00	0.09
10. 계	0.82	1.67
11. 적극적 정책(1-7)	0.40	0.62
12. 소극적 정책(8-9)	0.42	1.04

자료: OECD.

(단위: GDP 대비, %)

그런데 이들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취직상담이나 직업알선 등을 담당하는
공공고용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직업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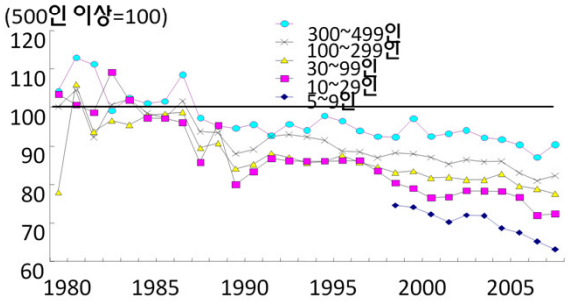
노동시장: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도 중요한 문제

KDI

■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기업 대비 임금은 지속 하락

● 외국에 비해 영세기업(1~9인) 고용비중 매우 높은 수준

기업규모별 임금



자료: 통계청.

기업규모별 고용비중(제조업, 2002년)

(단위: %)

기업규모	한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1~9인	42.9	10.1	6.7	10.8	12.0
10~49인	20.7	18.8	14.5	28.4	19.0
50~249인	23.2	25.8	23.7	29.9	22.3
250인 이상	13.3	45.3	55.1	30.9	46.7

자료: OECD,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05.

취약계층의 빈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임금을 100이라 할 때,
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이 주는 임금은 점점 더 하락해 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영세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1인~9인 규모의 기업은
전체 제조업 고용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KDI

- **근로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 **본격 추진**
  - **노동시장정책: 상담, 훈련, 직업알선 등 확대**
  -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 **보육정책: 저소득층 취업모 지원에 초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 **'보호'보다는 '규모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 추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정책에서 있어서는
상담, 훈련, 직업알선 등의 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근로장려세제는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취업모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중소기업들을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보다는,
이들 가운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하지만,
단순히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뉴미디어로 본 한국의 경쟁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 경쟁의 주 대상인
20대에서 40대가 주로 이용하는 뉴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경쟁을/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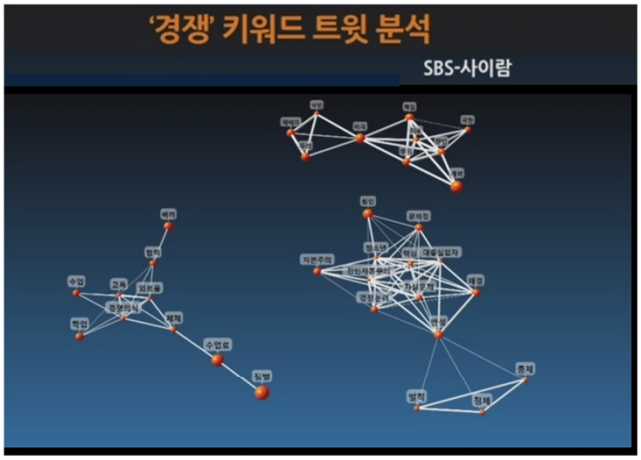
SBS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업 사이람과 함께
트위터에서 2011년 상반기/ '경쟁'과 관련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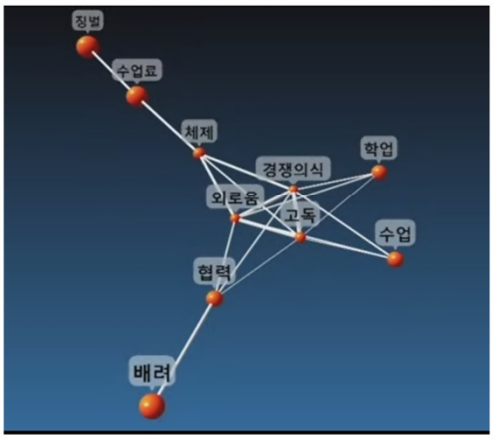
‘경쟁’ 포함 트윗 분석 SBS-사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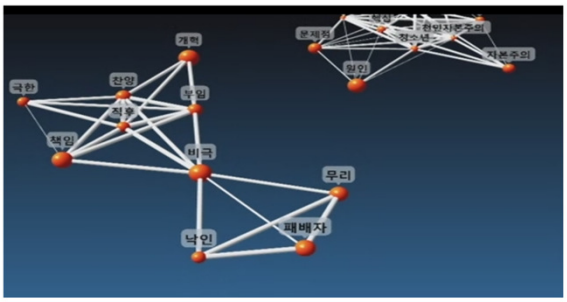
자문 및 감수: 나은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올 1월부터 9월까지
“경쟁 " 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트윗은
모두 36만여 건이었습니다.
하루에 천 개, 1달에 4만개의 트윗이
경쟁 관련 내용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경쟁’’관련 트윗이 가장 많이 작성된 날은
카이스트 대학생이 목숨을 끊은/ 4월 8일이었습니다.







자문 및 감수: 나은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vcr start)
4월 8일과 10일 사이에 경쟁과 관련된 키워드가
어떤 단어들과 연결돼 있는지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극한-책임-비극이라는 말이
패배자-낙인과 함께 언급되면서
무한 경쟁과 그 폐해가 서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또 경쟁으로 인한 고독이나 외로움 등
심리를 대변하는 말들이 협력, 배려 같은 말과 연결되기도 하고
천민자본주의-문제점-대졸실업자-자살문제 등의 단어가
반성-해결방안 같은 말과 연결되면서
지금의 과잉 경쟁이 잃어가고 가치들을
돌아보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관련 트윗 분석

조사기간: 2011년 1–9월
트윗개수: 82,129건

SBS-사이람(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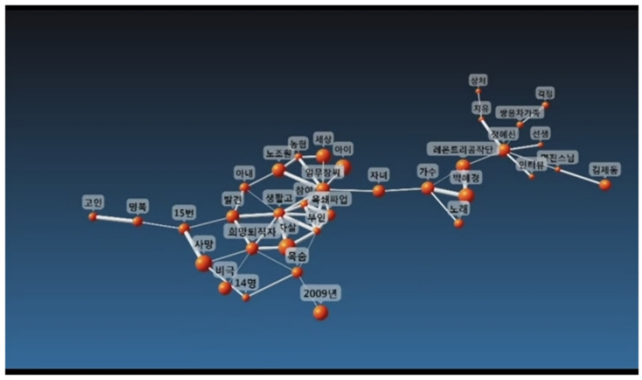
작성일	트윗	RT
2월 27일	쌍용차 노조원....유가족 아이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이 정신적인 치료부분이라고 합니다...혹시 **정신과 전문의사분들 중에 함께 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46
3월 20일	...해고된 쌍차 가족 아이들 60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의논하려 합니다. **모여주세요!!!!!!**	96
6월 1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아이들이 공부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세요! 신청기다립니다!	140
7월 1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뿐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와락>**을 시작한다...우리사회 어두운 곳에 와락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날이 오길.	41

자문 및 감수: 나은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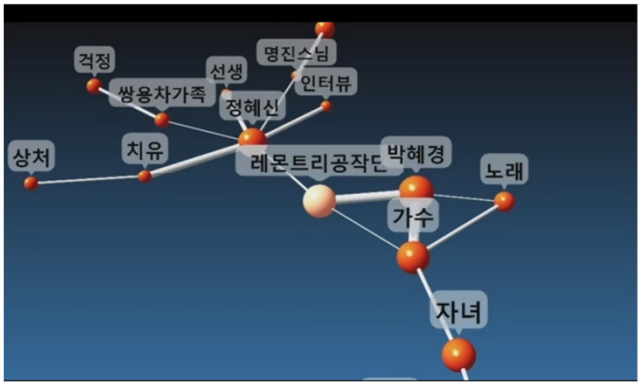
경쟁과 관련해 트위터 내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회 안전망이 약한 우리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발생 2년째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올해만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8만 2천여 트윗이 작성됐습니다.



SBS-사이람(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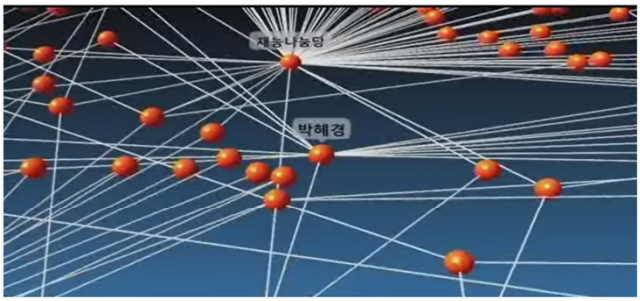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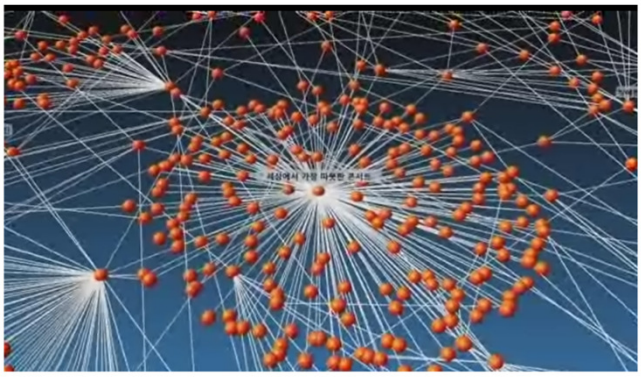
자문 및 감수: 나은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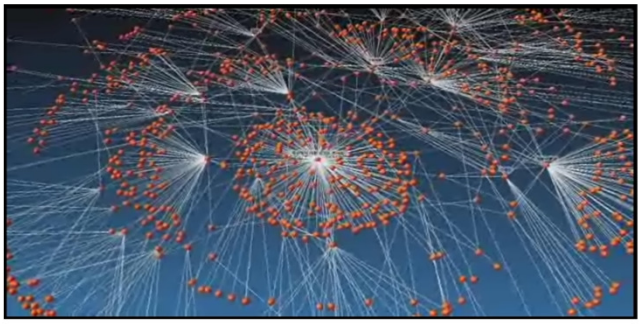
VCR START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소식 못지 않게
그들을 도와주자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수 박혜경씨가 트위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및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능기부 행사를 시작했는가 하면/
정혜신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앞장서
이들을 위한 상담치료를 시작했고
이들과 연결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씩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SBS-사이람(2011)







자문 및 감수: 나은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VCR START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트위터 내에 리트윗이 열 번 이상 되는
주요 재능기부 프로젝트들의 네트워크 지도를 살펴봤더니
목적과 활동은 달랐지만/ 서로 모두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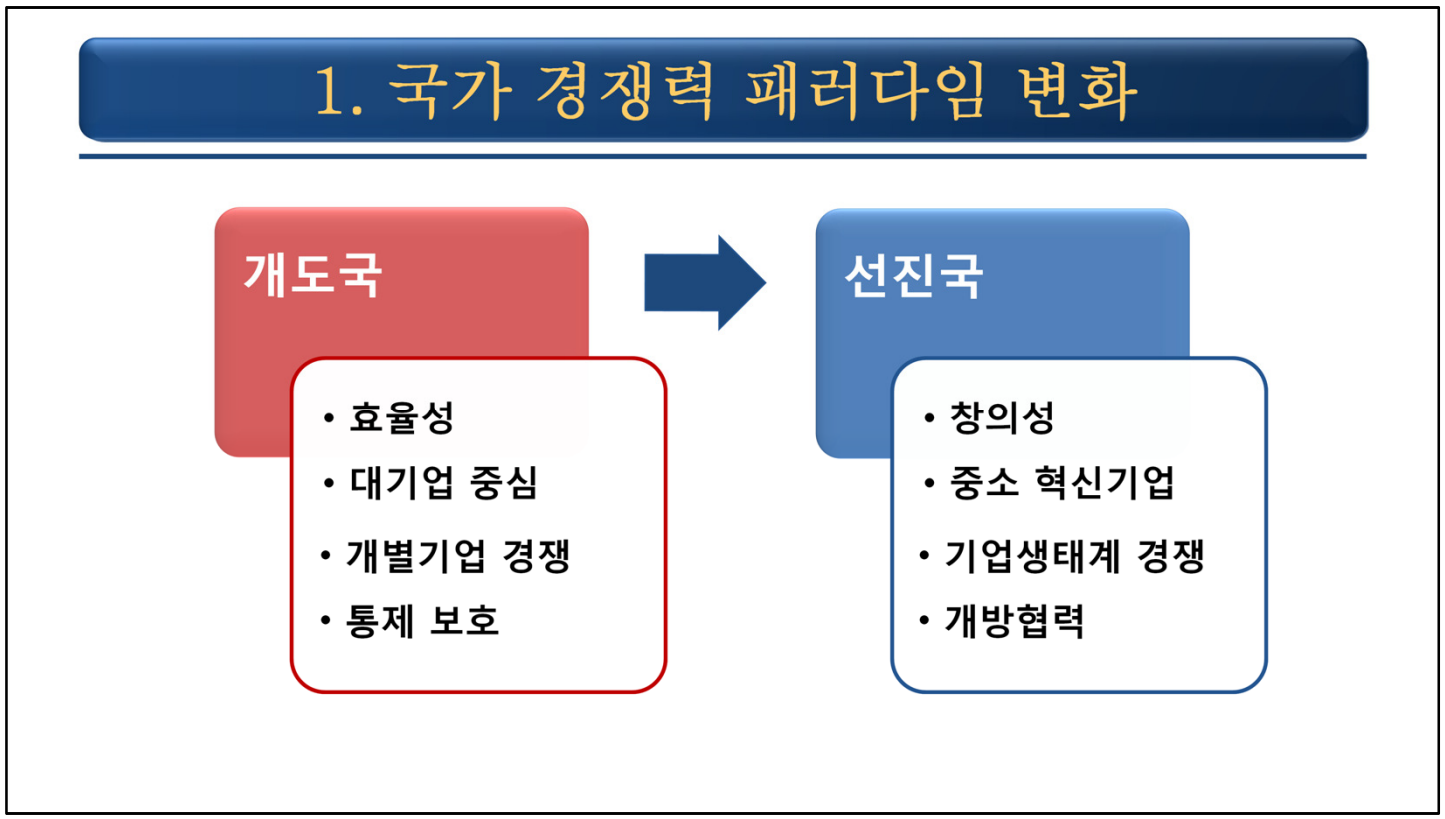
즉 관심사는 달라도/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지금은 과잉경쟁으로 피폐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작으나마 우리 민족 고유의 협력상생 DNA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 SBS 제언-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장 신경렬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명암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바람직한 경쟁 모습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경쟁 방식이 변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가의 경쟁력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의 효율성과 대기업 중심의 경쟁방식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중소 혁신기업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끼리 벌였던 경쟁이
이제는 업종을 뛰어넘는
생태계 중심의 개방과 협력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은
얼마나 이런 변화에 부합하고 있을까요?

특별연설 “이제는 기업도 생태계”

정영환

맥킨지 & 컴퍼니
아태지역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

도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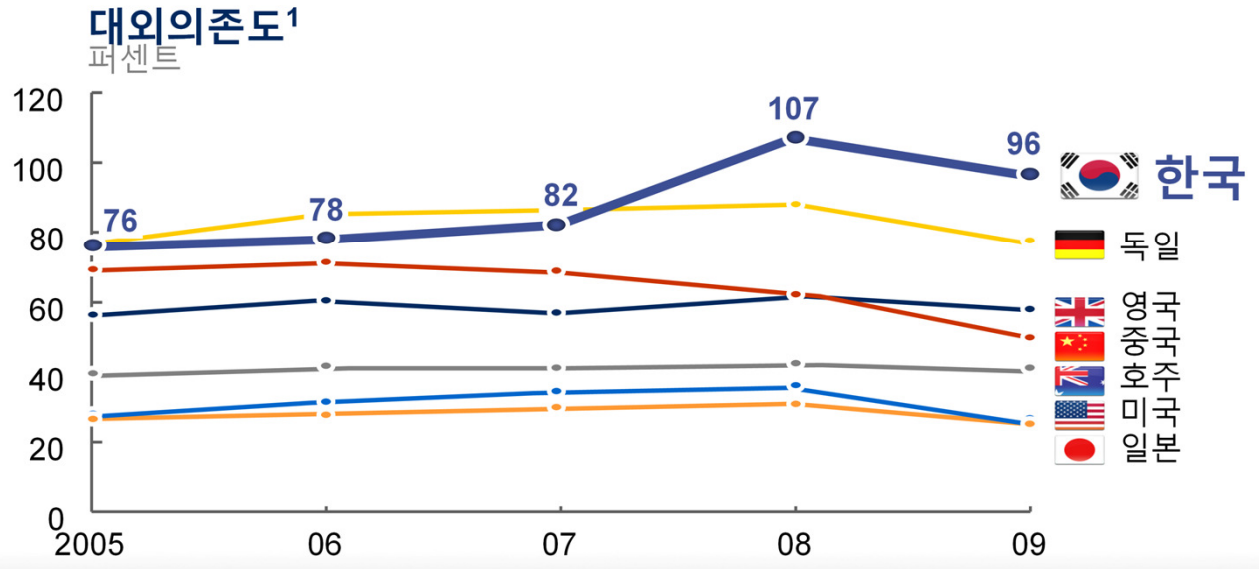
맥킨지 & 컴퍼니 디지털 전략 전문가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 서울 사무소가
한국기업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 방향성을 찾아봤습니다.

정영환 아태지역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와
도준웅 전략 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킨지 정영환입니다.

글로벌 시장 의존도



1 대외 의존도 = {(수출 + 수입) / 국내 총 생산} X 100
자료: 한국은행, 세계은행 (IBRD)

McKinsey & Company |

안녕하십니까? McKinsey 정영환 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의존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즉, 글로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방식은, 급변하는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경쟁방식은, CDMA부터, iPhone 국내 출시를 1년 이상 지연시킨, 한국형 무선 인터넷 표준인 WIPI, 또는 아래아 한글과 같이 우리만의 독자표준을 만드는 등, 내수시장의 니즈에 맞춰 표준화하고 경쟁하던 방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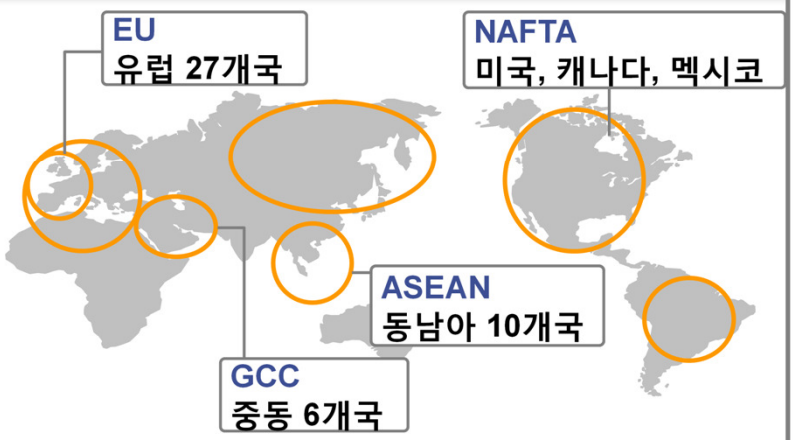
그러다보니 어떤 면에선, 글로벌 생태계에는 적합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생겨났고, 이는 우리를 고립된 Galapagos Island 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fast-follower, 그리고 world-class productivity 전략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의 급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우리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Zeus 신에 의해 미궁에 갇히게 된 Icarus는, 밀납으로 날개를 만들어, 태양빛을 따라 날아서 살아 나왔지만, 태양까지 가려는 욕망을 추구하다, 결국 태양열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ICARUS PARADOX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한 Korean miracle이, Korean Icarus paradox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글로벌 경쟁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최근 Digitalization과 같은 macro trend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어떤 방식의 경쟁을 해야 하는지, Kyle이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기업 주도의 새로운 생태계

지역 중심의 경제 블록



기업주도의 새로운 생태계

35억	월 **페이스북** 방문자 수
28억	하루 **구글** 검색량[2]
20억	하루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청취되는 횟수
1억	하루 **트위터**에서 트윗되는 수[1]
150만	하루 **애플 앱스토어** 앱 다운로드

1 2010년 9월 기준, 2 2009년 12월 기준, 건수
자료: 맥킨지 팀 분석, Press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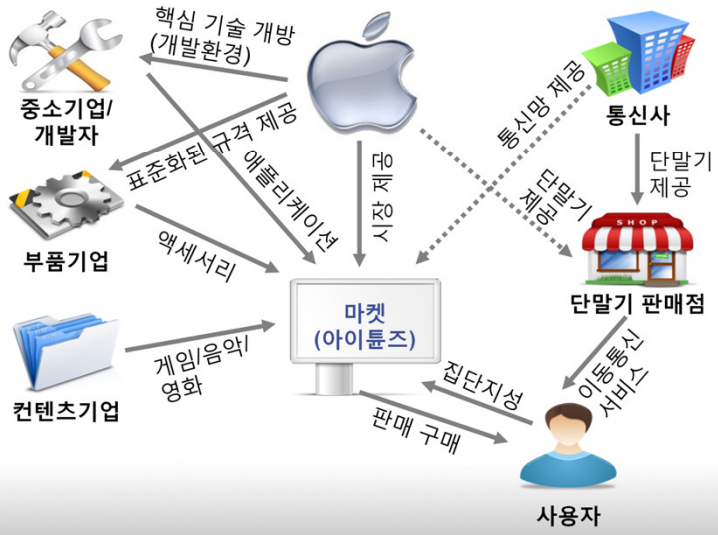
McKinsey & Company |

네, 도준웅 입니다.
최근의 주목할만한 현상은, 기존의 EU, APEC과 같은, 지역중심의 경제 블럭(Block)에서, 지금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주도로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태계 안을 잠시 들여다 보면, 한 달에 세계 인구의 반인 35억명이 페이스북을 직접 방문하고, 애플을 통해 하루 150만개의 앱을 다운받아서 쓰는 정말 거대한 경제블록 입니다.

신 생태계(Eco System)의 특징

애플의 협업적 상생의 생태계



- 핵심기술 개방 및 플랫폼 제공
- 공동 창조 (Co-creation)
- 구전을 통한 소비의 연결 (Connected Consumption)

McKinsey & Company |

최근 이런 기업주도 생태계의 특징은 첫째, 기업이 핵심기술을 개방하여 애플 iTunes와 같은 장(요즘 플랫폼이라고들 하죠)을 제공하고, 둘째, UCC 동영상처럼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소비자들이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부터, 생산활동까지 모든 기업활동에 참여해서, 소위 말하는 Co-creation을 하고(같이 만드는 거죠?), 그에 따른 이익을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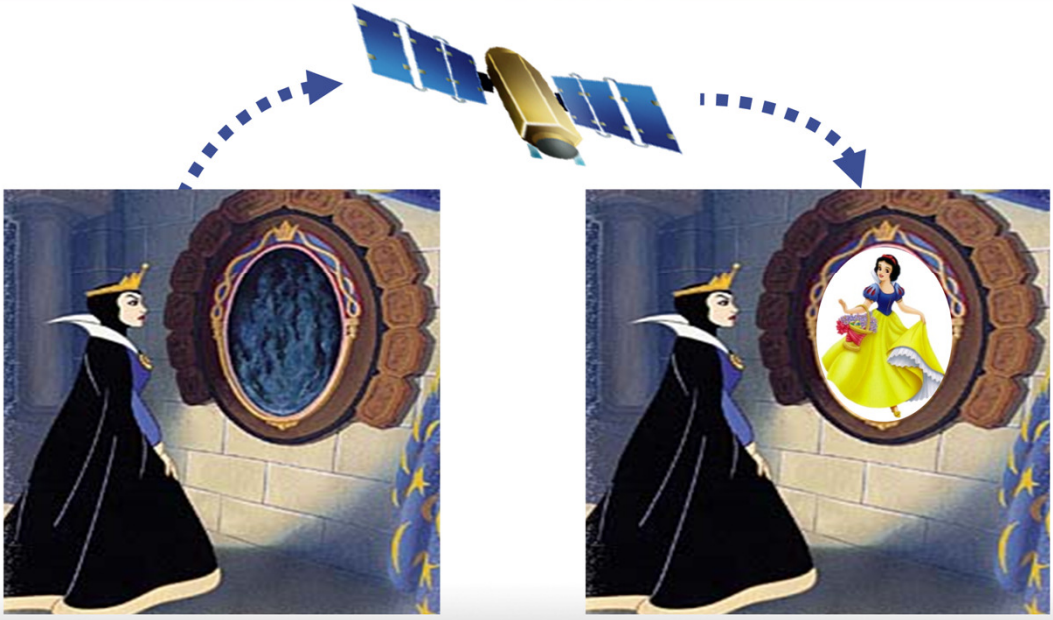
이 생태계의 소비자는, TV나 신문 광고보다,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른 소비자의 추천을 더 신뢰하고, 서로의 입소문에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비가 연결되는 현상, 즉, Connected Consumption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보다, 모바일 사업전략을 내라', 스마트폰 유행이니 사업전략을 내라', 전 임원이 트위터 아이디 만들고 빨리 소통해라 와 같이, 디지털을 별개의 세일즈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애플, 구글 사례를 든다고 해서, 지금 IT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로 인해 기존의 산업들이, 어떤 것은 확장되고, 어떤 것은 빨라졌구요, 또 어떤 것은 필요 없어 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Enabler'라는 개념으로 디지털을 이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지털을 통한 진화 (이네이블러)



McKinsey & Company |

1930년에 쓰여졌던 백설공주 이야기에도 마녀가 거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미 음성 인식 기술이 등장했고, 거울이 GPS를 통해 백설공주를 찾아내고, 그 화면을 무선데이터 통신기술을 통해 거울로 전송하는 장면에서 이미 이때부터, 컨셉은 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가 이로 인해 진화된 것으로 봐야지, 이를 별개의 가상세계로 분리해서 생각한다거나,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데서 이미 우리는 디지털을 잘 못 이해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스마트 TV에 대한 시장의 기대

약육강식의 생태계
=> 공존의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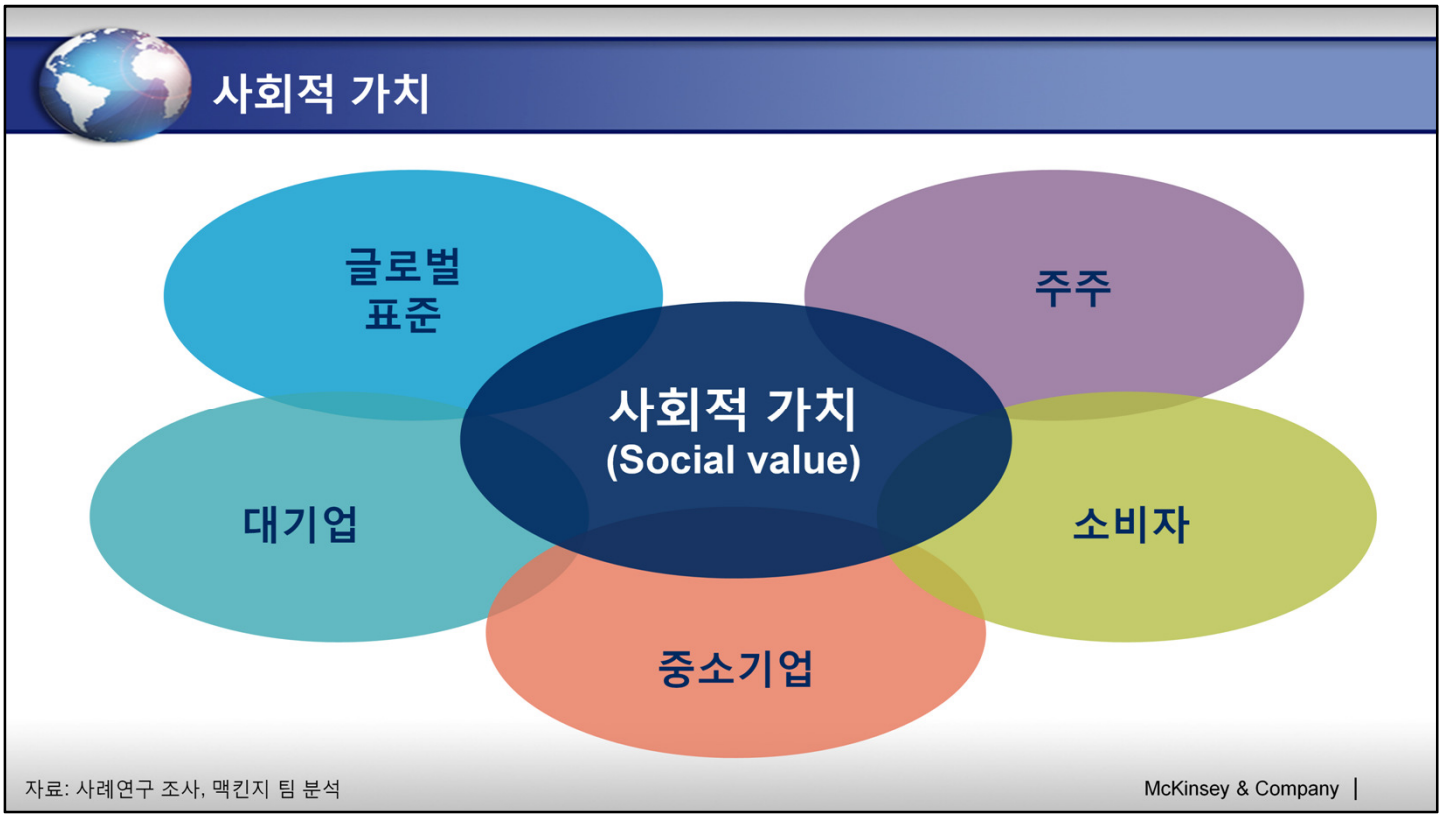
과감한 M&A와 제휴를
=>역할과 존재감 확보

중소기업의 경쟁력
"세계최초?"

한국식 성공방정식
=>특성에 맞는 전략 수정

자료: 사례연구 조사, 맥킨지 팀 분석

화면에 보시는 것이, 스마트 TV에 대한 시장의 기대입니다. 이와 같이, 신 생태계에서는 경쟁자보다 잘 만들어진 TV하나로 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아니라, 바로 '공존의 생태계' 입니다. 즉, 우리 기업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생태계에 뛰어들어서, 과감한 M&A와 제휴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과 존재감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장을 열어주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랜 기간 대기업 하청만 하다 보니, 호환성도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에 대한 글로벌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pain-killing item, 즉, 실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말 '필요한' 제품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벤처들은, 세계 최초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컵 바닥에 별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다면 이 컵은 세계 최초의 밑바닥에 별모양의 구멍이 뚫린 컵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정작, 세계 시장의 needs가 없는 곳에 많은 경쟁력을 낭비하고 있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과 조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짜피 이 글로벌 생태계에서 경쟁해야 할 운명이라면, 네이버, 싸이월드 그리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안방에서만 이들을 물리치고 스스로 디지털 강국임을 외치며, 점점 우리를 더 갈라파고스로 만들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디지털로 인해 진화된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존의 제품의 완성도에 주력해왔던 '한국식 성공방정식'을 벗어나서, 이 거대 생태계의, 새로운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 상품만 파는게 아니라 그 기업의 철학과 스토리 또한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익과 성장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주주의 상생을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소셜밸류(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소셜밸류를 지향한다는 것은, 절대 봉사나 총수의 사재출연, 또는 대기업에서 많이 벌었으니 나눠주라는 식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경영철학을 바꾸고 생태계를 재편성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셜밸류를 진정성 있게, 추구해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업의 핵심적 성공요인이자, '생존 방정식'이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기업이 찾아야 할 '공존의 생태계'임을 강조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과 공유의 합리성

승자독식 구조 개선

→ **약자에 대한 배려**

→ **패자에게 재도전 기회**

상생의 경쟁이 이뤄지려면
성과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승자독식의 성과 공유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약자를 배려하고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OECD 경제국장 인터뷰)

OECD경제국장 인터뷰

요르겐 엘메스코프 OECD경제국장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높은 성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내지만 위험을 감행하다 보면 패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잘 만들어진 사회안전망은 그렇게 낙오된 사람들을 다시 경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Korea is among the OECD countries that has spends the least on its social safety net.
High growth has to be associated with risk taking, dynamic society and where there is risk taking there are also losers. A well developed safety net allow you to help the losers and get them back into the economy again"

요르겐 엘메스코프 OECD 경제국 국장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높은 성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내지만 위험을 감행하다 보면 패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잘 만들어진 사회안전망은 그렇게 낙오된 사람들을 다시 경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2. 성과 공유의 합리성

승자독식 구조 개선

→ 약자에 대한 배려

→ 패자에게 재도전 기회

→ 사회적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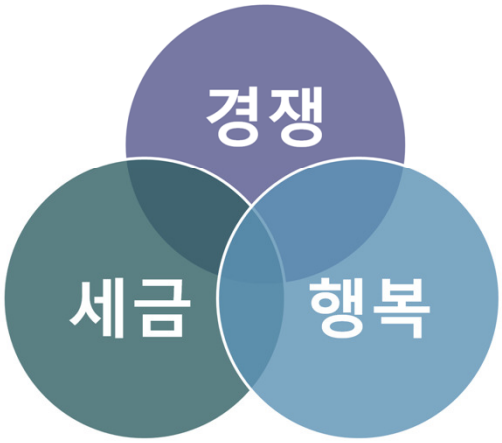
“경쟁과 세금을 통한 보다 행복한 삶”

제임스 멀리스
홍콩중문대학교 석좌교수

조세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멀리스 홍콩 중문대 석좌교수는
조세제도가 성과배분 방식과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멀리스 교수님의 특별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Professor Mirrlees,

경쟁, 세금, 그리고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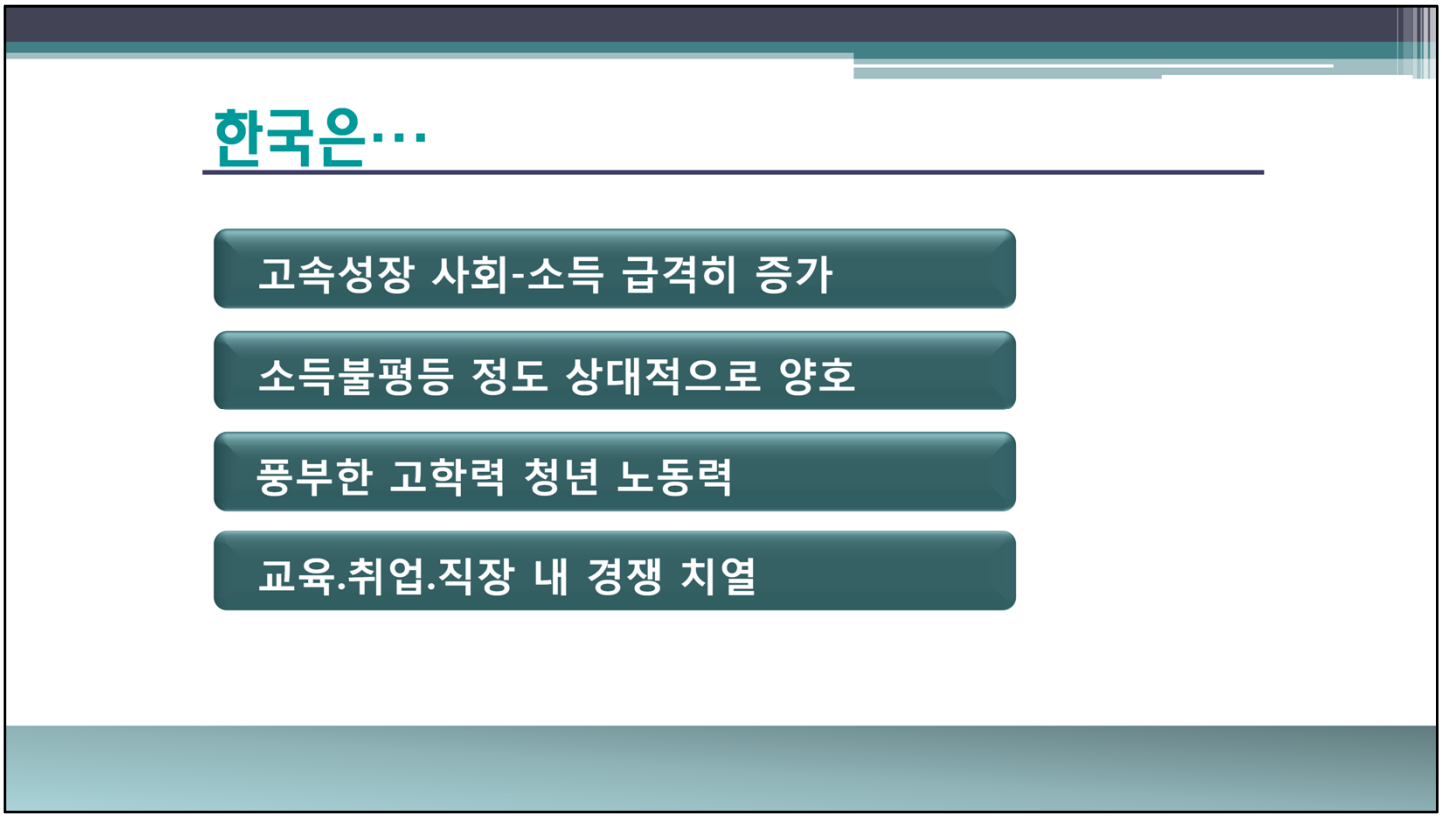
CLICK

People say that competition and taxes can make them quite unhappy. Even if you compete successfully – for a good school, a good job, or in sport -- your effort, care and concentration may be stressful and painful; losing is distressing. But competition helps to make us work, producing more, which is good for everyone.

CLICK

Similarly, while taxes make us worse off; we want things tax revenue makes possible, and welfare benefits are financed by taxation. So, how much taxation is too much, when is competition too intense?

CLICK
I am going to suggest that South Korea might want to have higher taxes, and less competition. Doing the first might achieve the second.



What do outsiders like me think we know about South Korea?

CLICK

The South Korean economy grew rapidly most of the time between 1965 and 2000. I think in terms of consumption it was as good as China's more recent growth, growing tenfold in forty years.

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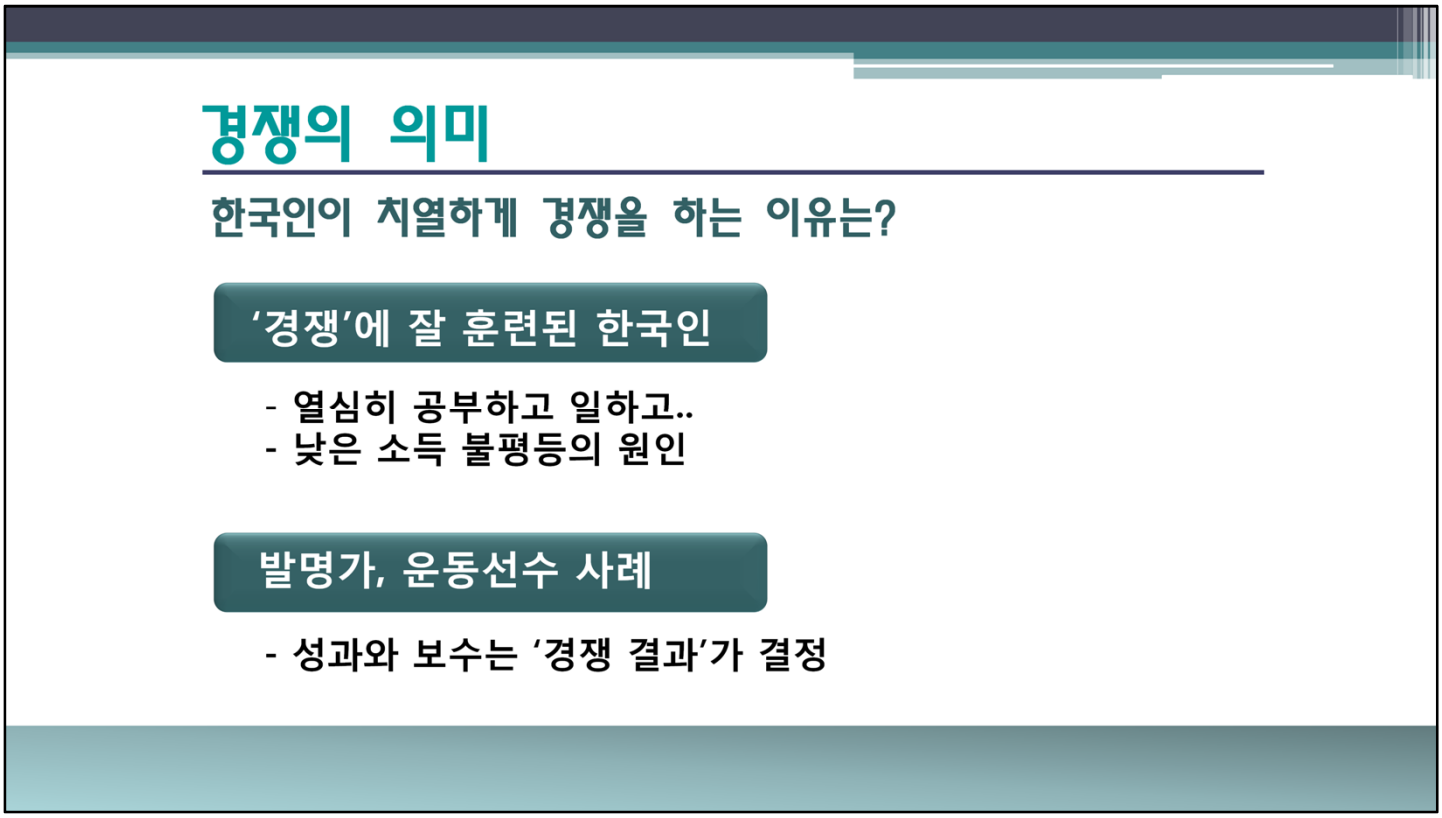
South Korea has less income inequality than most other countries. The top 20% of income earners have four times as much income as the lowest 20%. In the United States, it is more like eight times.

CLICK

The labour force is highly educated, and rapidly becoming more so. 96% of the 18-21 age group are in tertiary education.

CLICK

South Korea is said to be a highly competitive society. Schoolchildren go to evening schools, and work till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People put every effort into getting promotion, to winning in the employment game. We are also told that this competition is very stressful. South Korea's "life satisfaction index" in the World Values Survey is low for its average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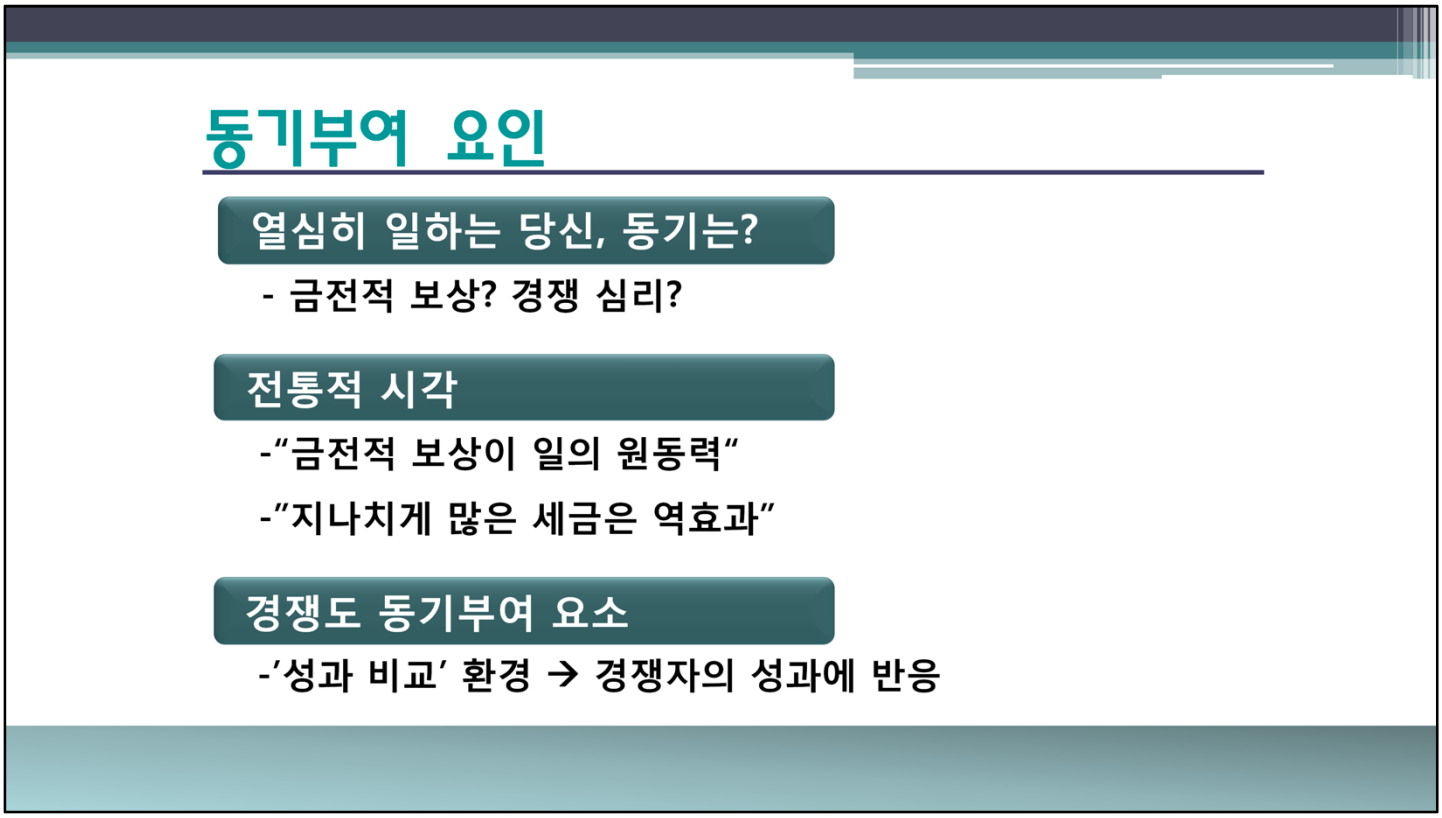


Why are people so competitive? Presumably they work hard, and their parents press them to work hard, for the sake of future income. They may also want a more prestigious position in society. Why are Koreans more competitive than people in other countries where inequality of incomes is greater?. People in Hong Kong seem to have more to gain by getting a good job than Koreans.

CLICK
Maybe Koreans compete harder because the competition is stronger. The educational system – regular schools, evening schools, individual tutors, helpful parents, and the young people's own efforts – gets almost everyone into universities, colleges and other tertiary institutions. Almost everyone is prepared for a skilled or professional occupation. So there is some scarcity of people willing to do less skilled jobs, which reduces inequality. But the incentive to compete hard is still strong.

CLICK
For some people that is obvious. An inventor has to think of something before anyone else does. If he is a week late, he gets no reward. He works hard at inventing partly for the fun of it, partly for the royalties he will get if he succeeds, but mainly to be first. How hard must he work? Hard enough to beat his nearest competition. Society gains little if a new drug is created a month sooner. But it makes all the difference to the inventor. The incentive to invent is the threat that others can do better, faster.

Sportsmen get bigger prizes the more people they beat. The size of prizes has some influence on how well sportsmen play, but the main influence is how hard others play. Then everyone works at it harder than is really necessary. Just as schoolchildren learn many not very useful things, so that they can know more than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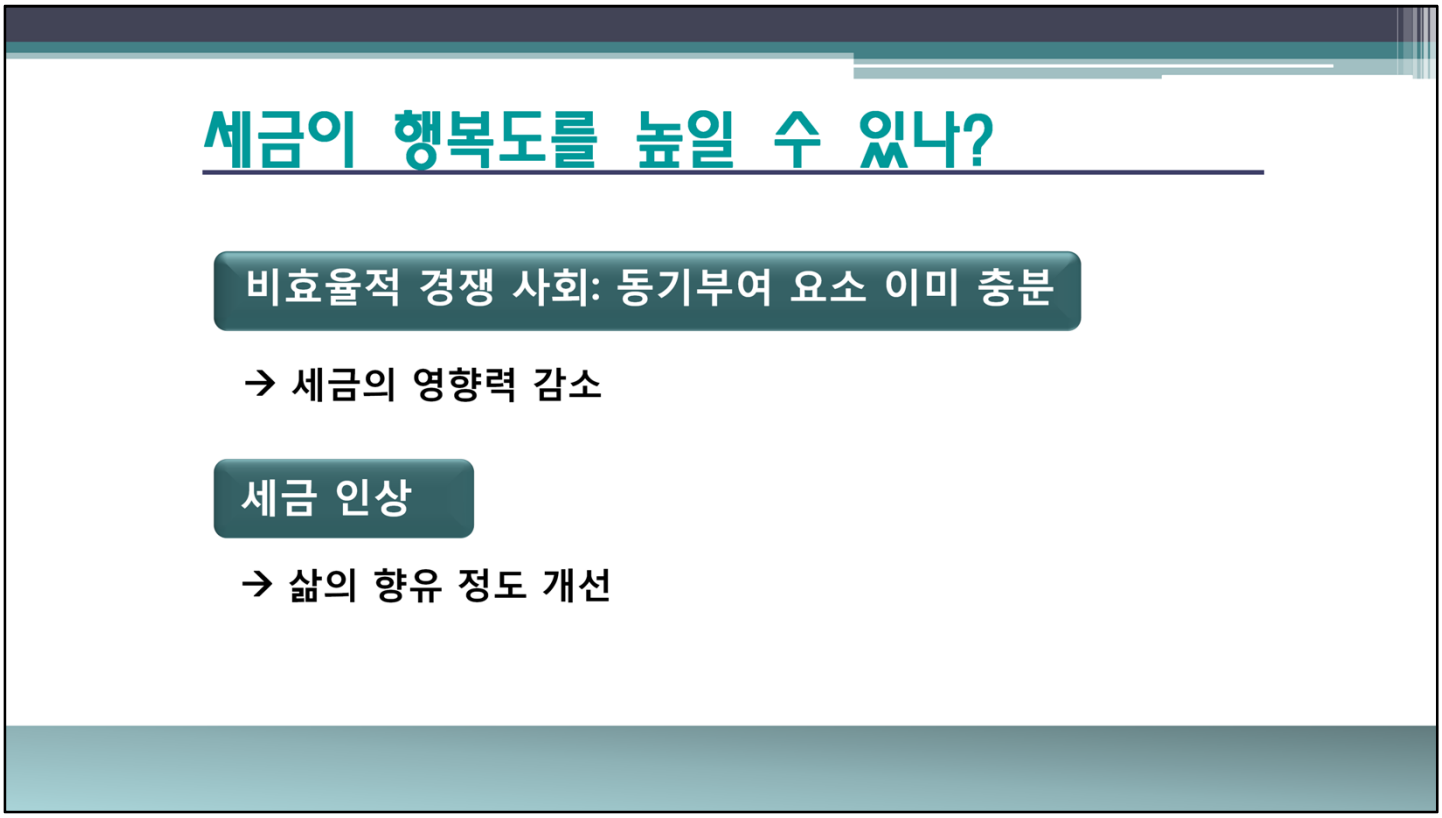
CLICK

Hard work, effort and stress in South Korea may be better explained by the incentive to beat others than by the incentive of money.

When economists (and politicians) claim tax rates should not be too high, they assume high taxes would reduce the incentive to work. Even with that, marginal tax rates (income and sales taxes combined) of 50% and more can easily be justified. Most countries with more than South Korea's real income per head have taxation at around that level. The United States has lower tax rates than that; and so does South Korea.

CLICK

Now, the desire (or need) to get ahead is another incentive to work, in addition to monetary incentives. You might work longer hours to get more money. Or you might work longer hours because your colleagues are doing it (and they are doing it because you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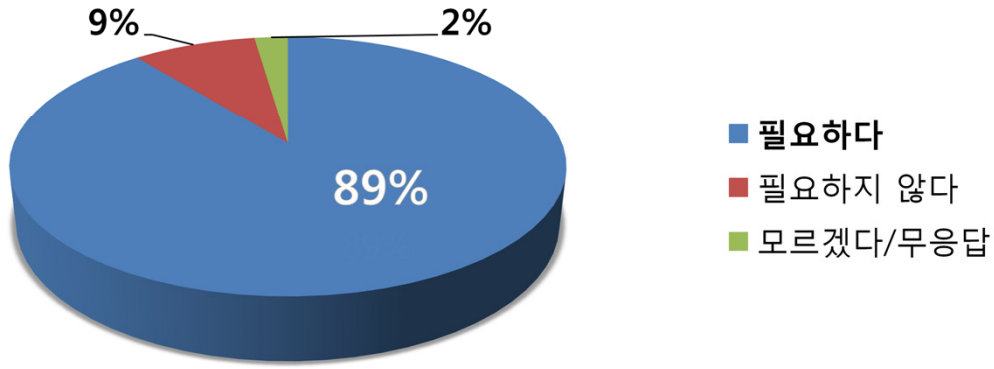
Higher tax rates would induce people to work less hard. They should do fewer useless things to get ahead, such as getting boring and irrelevant qualifications, or aggressive self-promotion.

CLICK

With less unnecessarily hard and competitive work, people would be better off. They can enjoy life more. It's just a suggestion. And it should not be carried too far! Thank you

사회 안전망과 복지 확대 필요성

양극화 줄이기 위해 사회 안전망과 복지 확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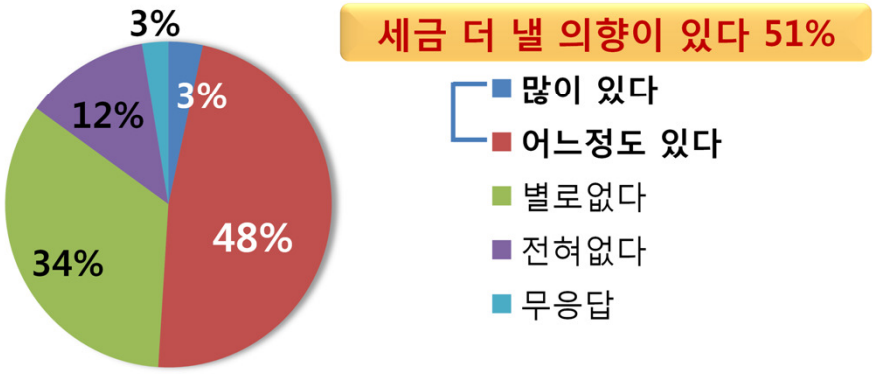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멀리스 교수께서도 제안하셨지만
SBS- 갤럽 공동조사 결과
우리 국민 대부분도 복지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금 더 낼 의향 있는가?

사회 안전망과 복지 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이 있는가?



SBS-갤럽 경쟁관련 국민인식조사. 19세이상 남녀 1000명.
2011.9.16~10.5 오차범위:+_.3.1%P, 95%신뢰수준

뿐만 아니라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3.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함께 가는 희망 사회

→사회경제적 안전성 확보
→불안한 경쟁에서 희망, 창의적 경쟁으로
→신뢰와 협력의 공생 정치

사회 정의

→무엇을 위한 경쟁, 무엇을 위한 성장?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멀리 오래 가기위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속에서 함께가는 희망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치러야 하는 사생결단식 경쟁은
희망과 창의의 경쟁으로 바뀔 수 있고
신뢰와 협력의 공생 정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데도 샌들 교수의 '정의론'은
백만부가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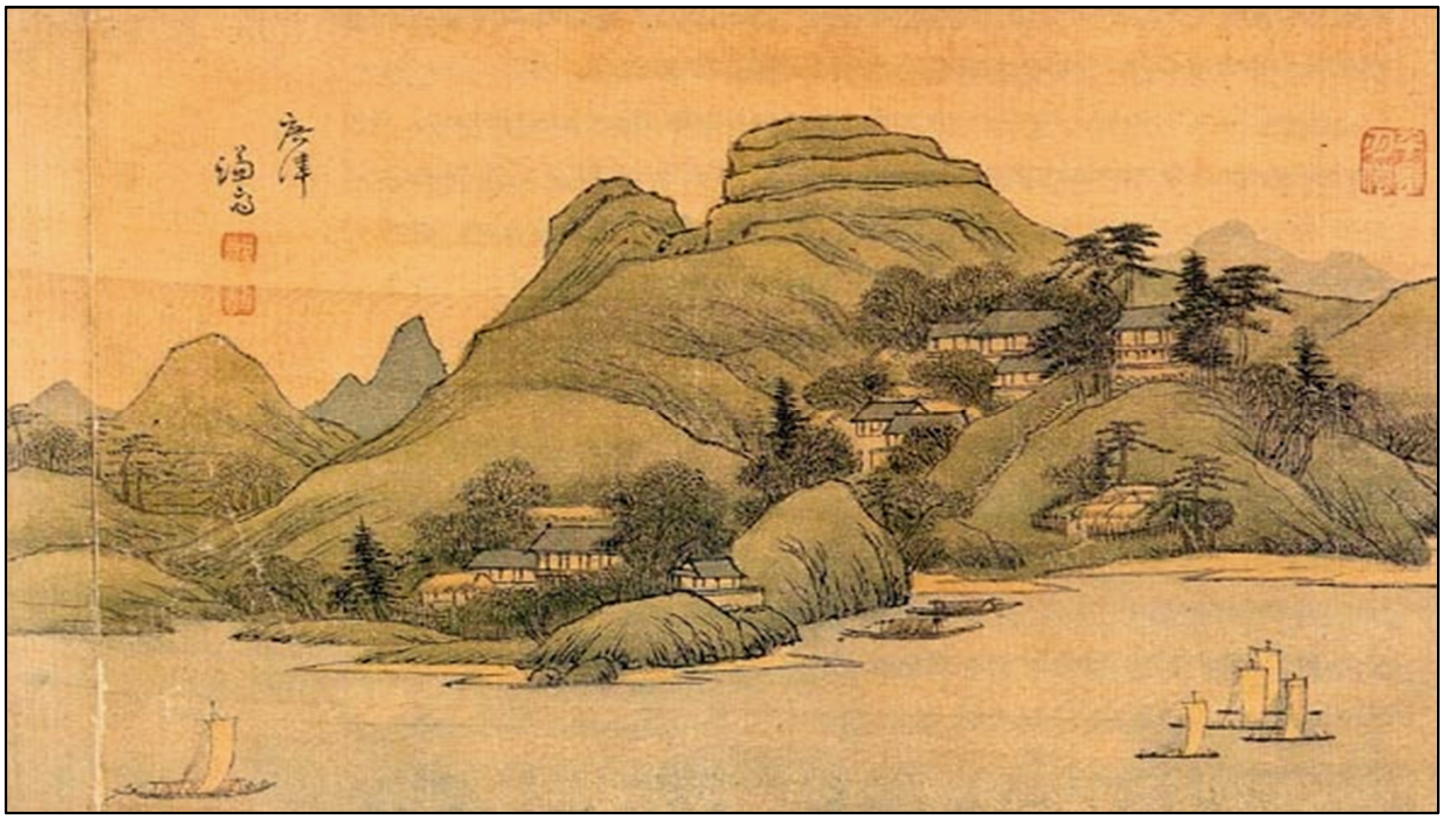
특별연설

“사회정의와 복지에 입각한 한국 민주주의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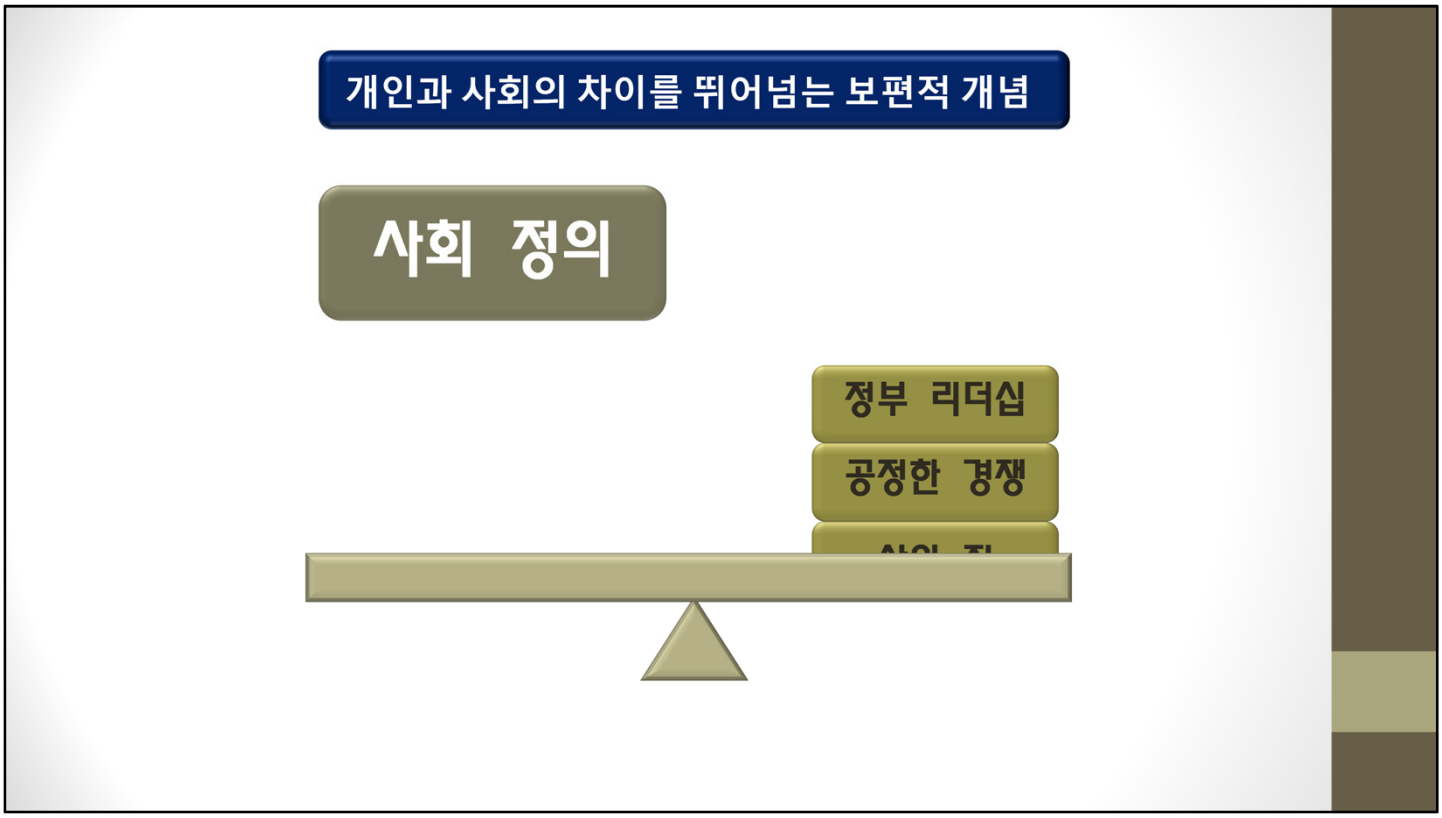
조 오펜하이머
메릴랜드 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명예교수

그래서 사회정의와 복지, 그리고 민주주의 상관관계 연구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메릴랜드 대학의 오펜하이머 교수를 모시고 지속 발전을 위한 한국 민주주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 Oppenheimer~



I am honored to address you today. Perhaps, you will see that the paintings of Jeong Seon and the works of philosophers have much in com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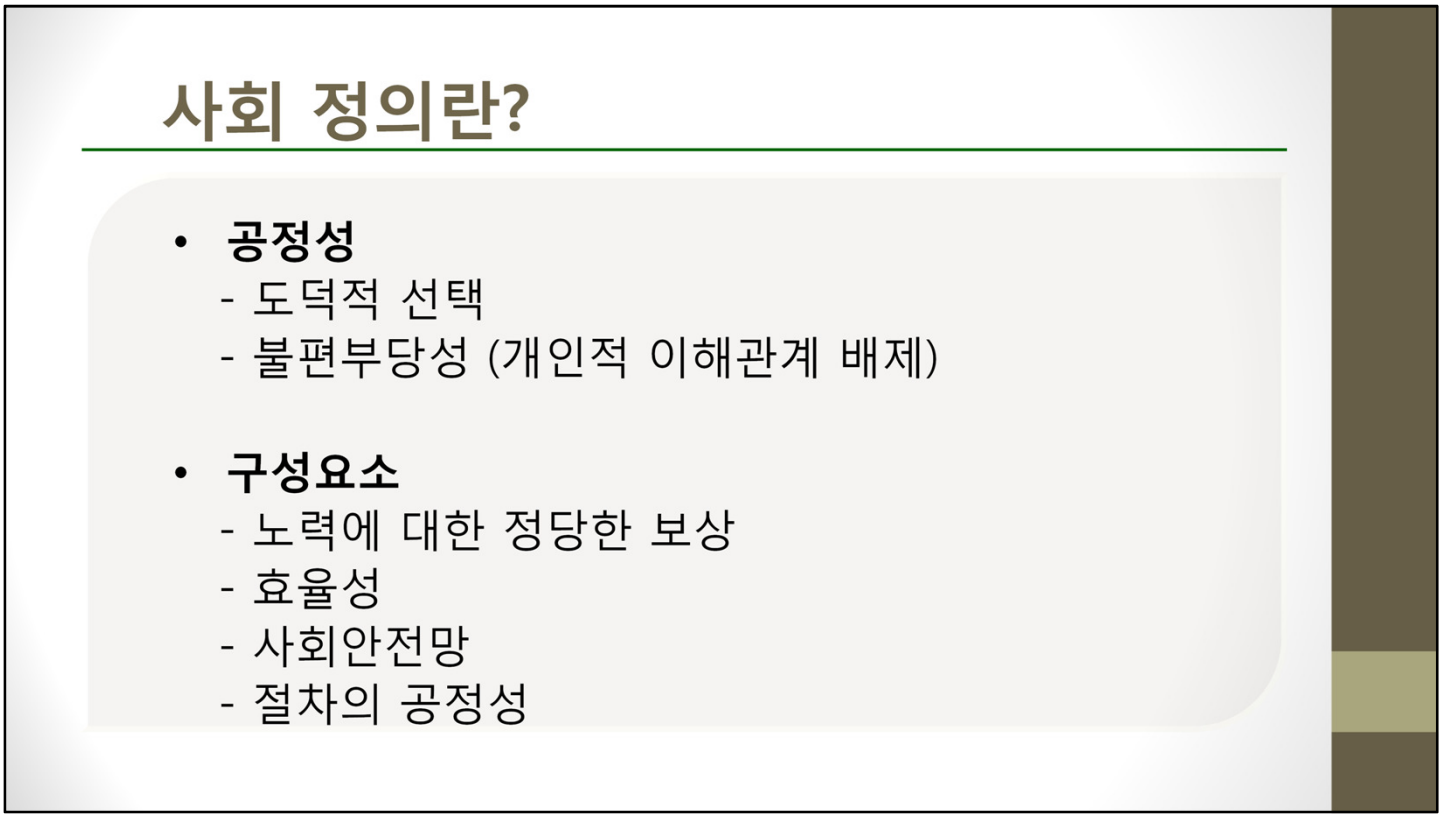


CLICK

Social justice is a key to
[CLICK] developing better lives and
[CLICK]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for one's citizens.
[CLICK] It can help us measure governmental performance and the performance of our
leaders.
[CLICK] Understanding social justice gives you leverage over how best to move Korea for the future.

Everywhere we find indicators showing Korea's economic and political progress: There are lots of positives.

But I am to discuss your problems and social justice. You probably believe the concept of justice varies from society to society - person to person. How then would we even know what social justice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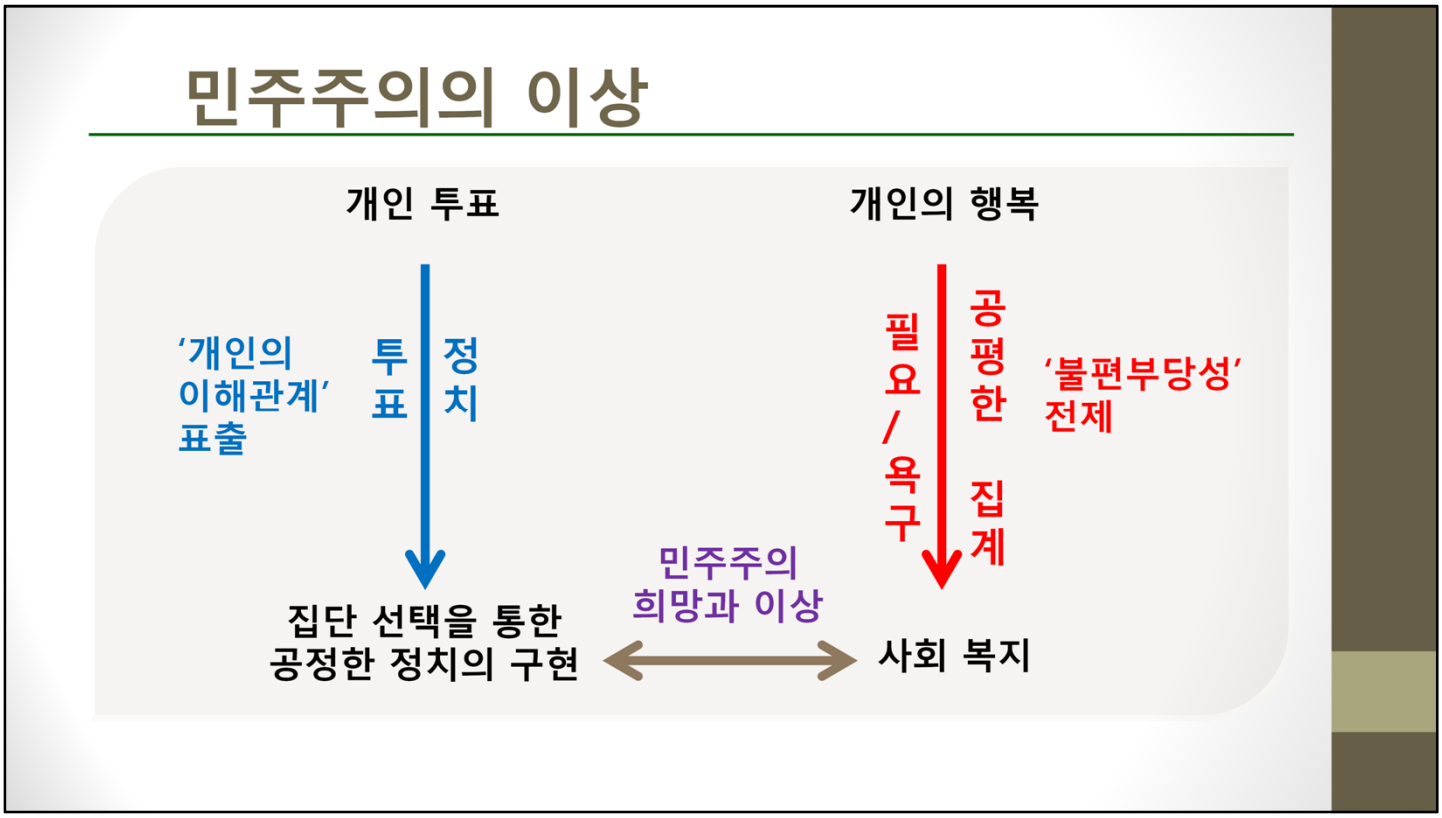
Social justice relates to fairness.

CLICK
Fairness is a moral concept. One discovers justice by adopting a moral - impartial - point of view. Impartiality prevents self-interest from obscuring reasoning and understanding.

CLICK
So to discover social justice, one must reason impartially:
reason *without considering our personal interests.*
This is the starting point for modern theories of social justice. They argue that differences coming from cultural and other factors then disappear.
Surprisingly, experiments show they are right.
Reasoning impartially, people always identify social justice in distribution the same way. Students and the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workers, in Japan, US, Australia, Canada, the Phillippines, and even in Communist Poland, all see that a regime that guarantees social Justice

CLICK
aims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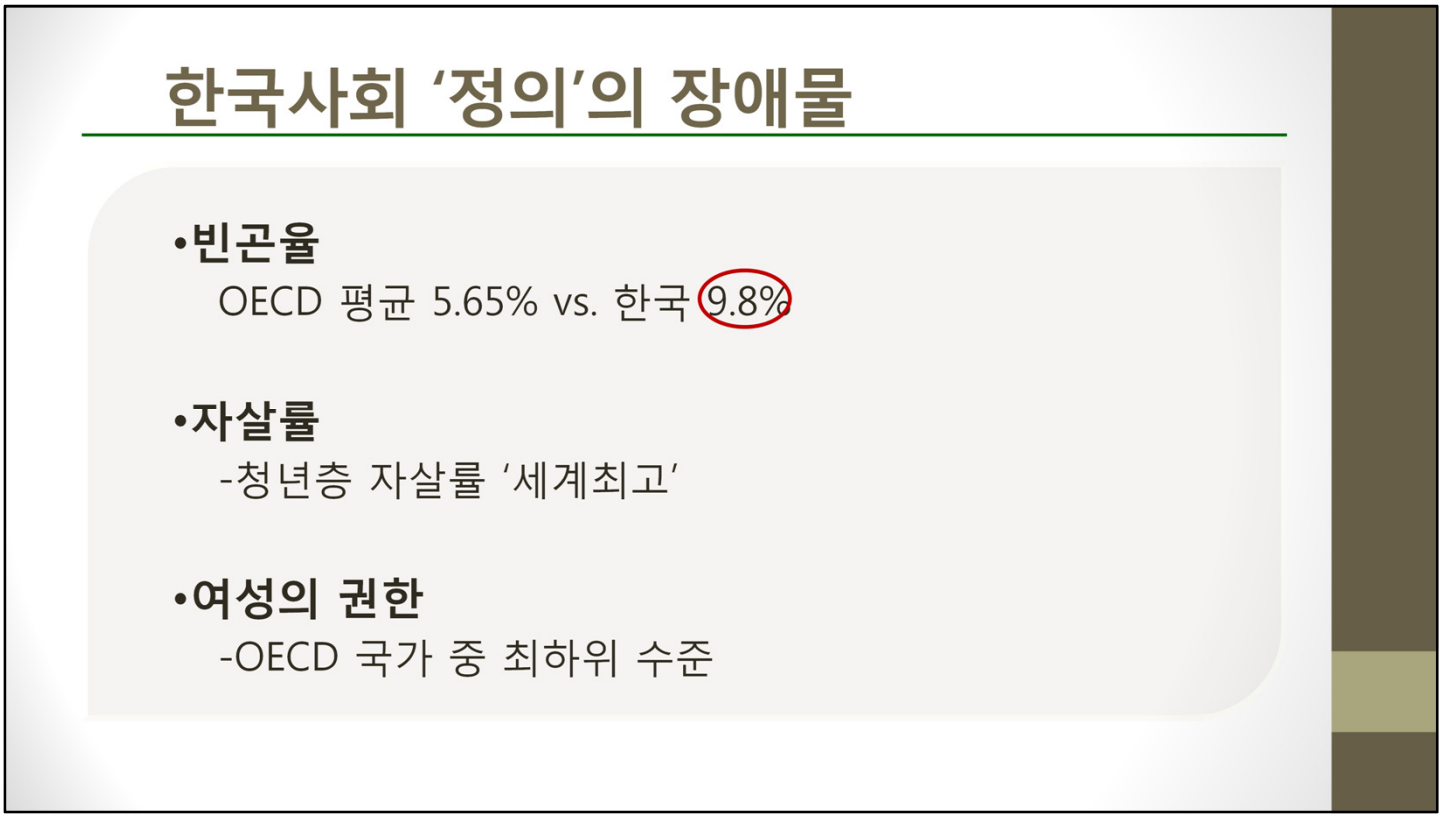
! a reward for productive efforts:**JUST DESERTS**
! deliver **EFFICIENCY**
! deliver a social safety net - **A FLOOR** of support to meet basic needs
! and deliver **PROCEDURAL FAIRNESS**.
Why is this important?



CLICK:
In democracy social welfare consists of a fair aggregation of the wellbeing of individual citizens.

CLICK:
Citizens support democracy because they hope freedom to express and organize
Around their needs, coupled with voting, will create a government and policies that meet their needs and enhances their wellbeing.
They hope to get fair policies from the democratic process.

CLICK:
Unfortunately, we play the game of politics AFTER acquiring our personal property and interests. So the fit between a fair, and just aggregation, and the actual political aggregation, is at best, loose: a weak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utcomes and social welfare.
Knowing social justice lets us identify the problems to push our leaders and politicians to improve life rather than merely to satisfy interests.
What are some of these problems her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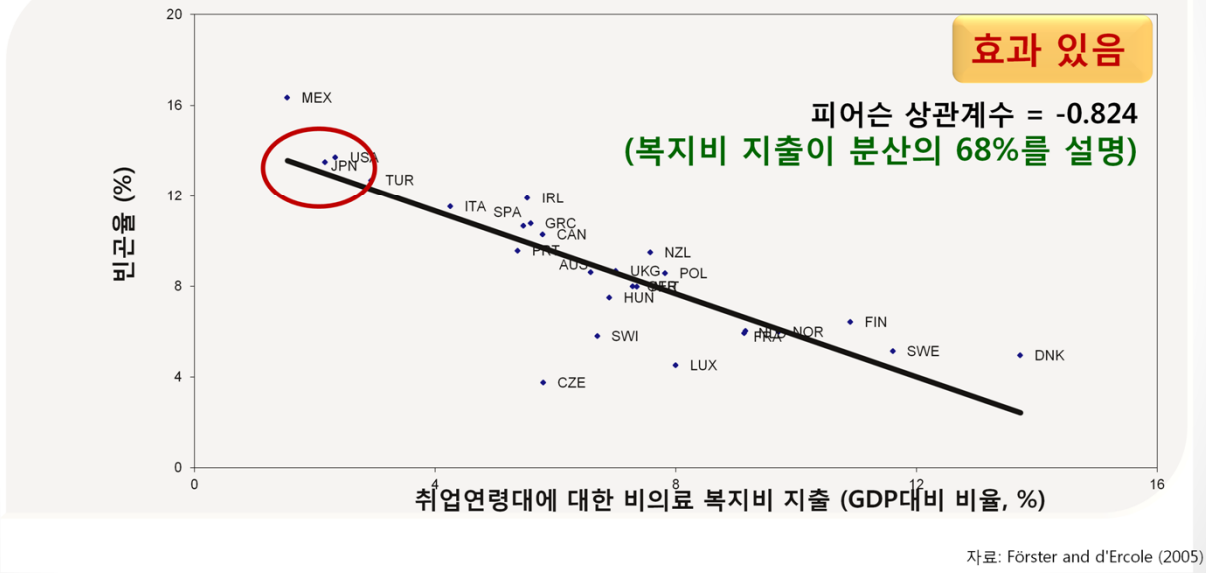
What are some of these problems here in Korea?

CLICK
Poverty: 9.8% of Korean in 2005 - more than a third above the OECD's average.

CLICK
Suicide rates - reaching world records among your adults.

CLICK
Very low levels of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Some of these, such as poverty, indicate people are left without unable to meet their basic needs. Can political action help satisfy these basic economic needs?

복지비 지출과 빈곤율의 관계: "복지정책, 효과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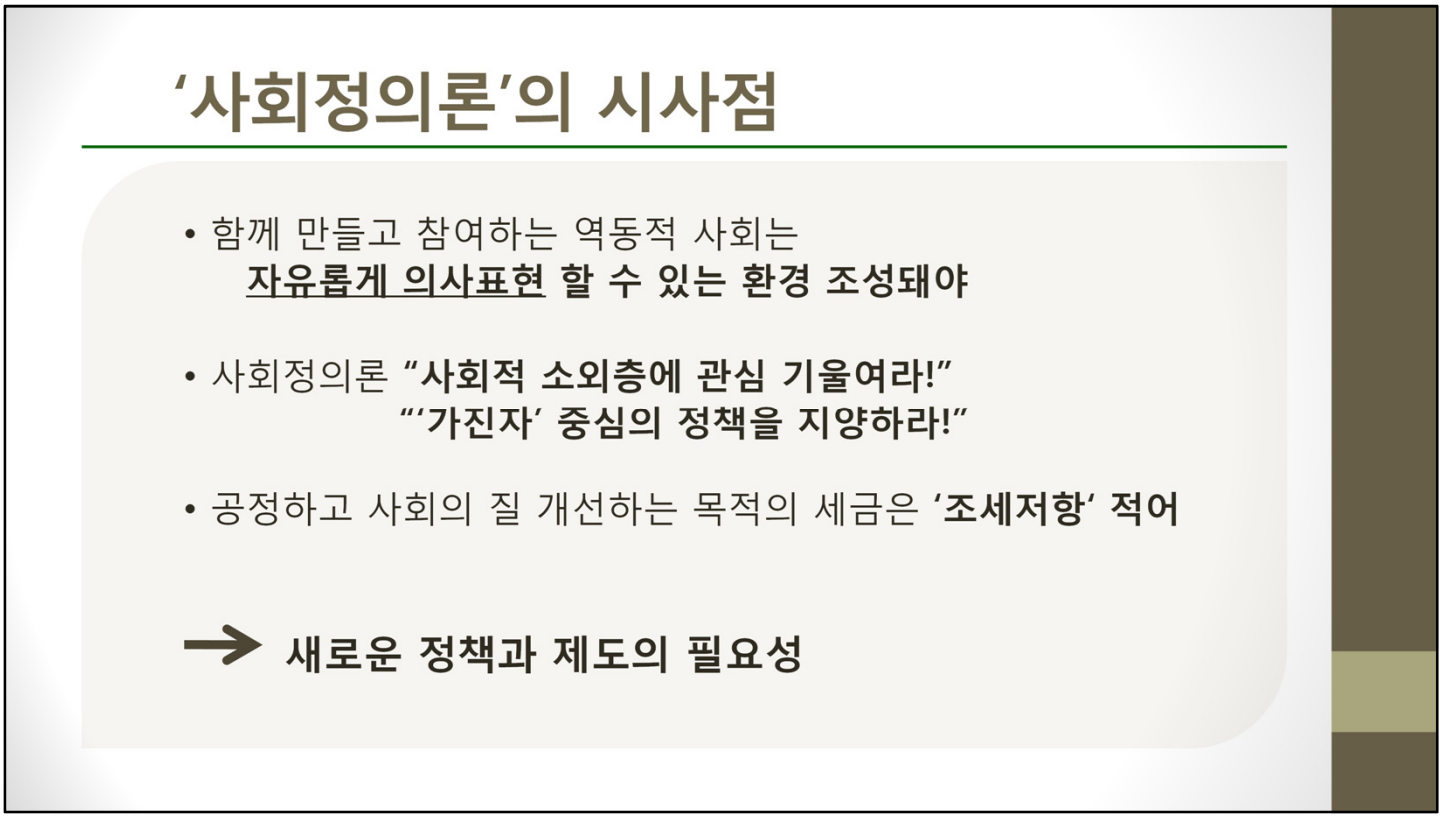


자료: Förster and d'Ercole (2005)

Consider the data:

CLICK
It shows a strong relationship indeed between policy and outcomes:

CLICK
Hence there is no excuse to ignore these problems.



But what of those non-economic problems: suicide, women's disempowerment? They also reflect a problems of justice. Some groups are
apparently less able to speak up concerning their needs.

People have the legal rights in Korea: to organize, to speak out. But it takes more than laws to empower people. They must **feel that they can**
speak out. Perhaps the Korean desire for conformity make some groups unwilling to speak out -- to ask for help.
New needs are created by changes: foreigners, new Koreans, coming as wives and workers; disempowered citizens created by modernization
Are such new groups encouraged to mobilize around their interests? Do social pressures mean that Korea is too selective regarding the sorts of problems you hear about, and those you don't? Encourage the voices of the needy!

CLICK:
What does a social justice point of view say: "keep your eye on the bottom;
CLICK
don't play favorites!" Poverty is more significant than income inequality. People
must feel the game is fair! High suicide rates indicate basic supports are
missing to get through life's problems. These missing support don't reflect callous behavior. With rapid change distances between family members increase, time isn't available.
Traditional forms of help don't work well creating new needs that must be addressed with new institutions.

CLICK:
When thinking from an impartial point of view people support fair policies that improve society. So with care, the needed policies can be en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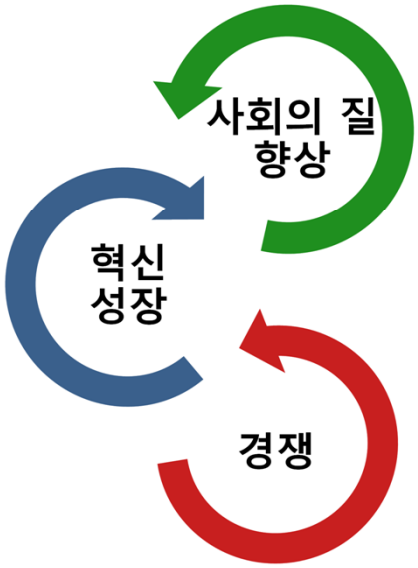
Policy changes should respect legitimate expectations: for example, those of older citizens who made responsible plans around traditions that had deep cultural roots.

CLICK
Those plans can no longer be satisfied without Korea developing new
policies and new institutions. Korea must encourage those with other new
problems to make their voices heard. Leaders must listen to and respect
these voices: for their problems also require change so that all Koreans can
live good lives, and have a fair chance to make their unique contributions to
Korea's bright future.

Women in my family my mother, my daughter, my sister, my niece: are wonderful artists.
They taught me that great artists, teach us to look at things anew, as Jeong Seon does in this famous landscape. So now

CLICK:
let the philosophers teach us to se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a just and moral and impartial one-to lead the country to a better future. Thank you.

‘사회의 질’ 향상을 위한 SBS선언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와
공동 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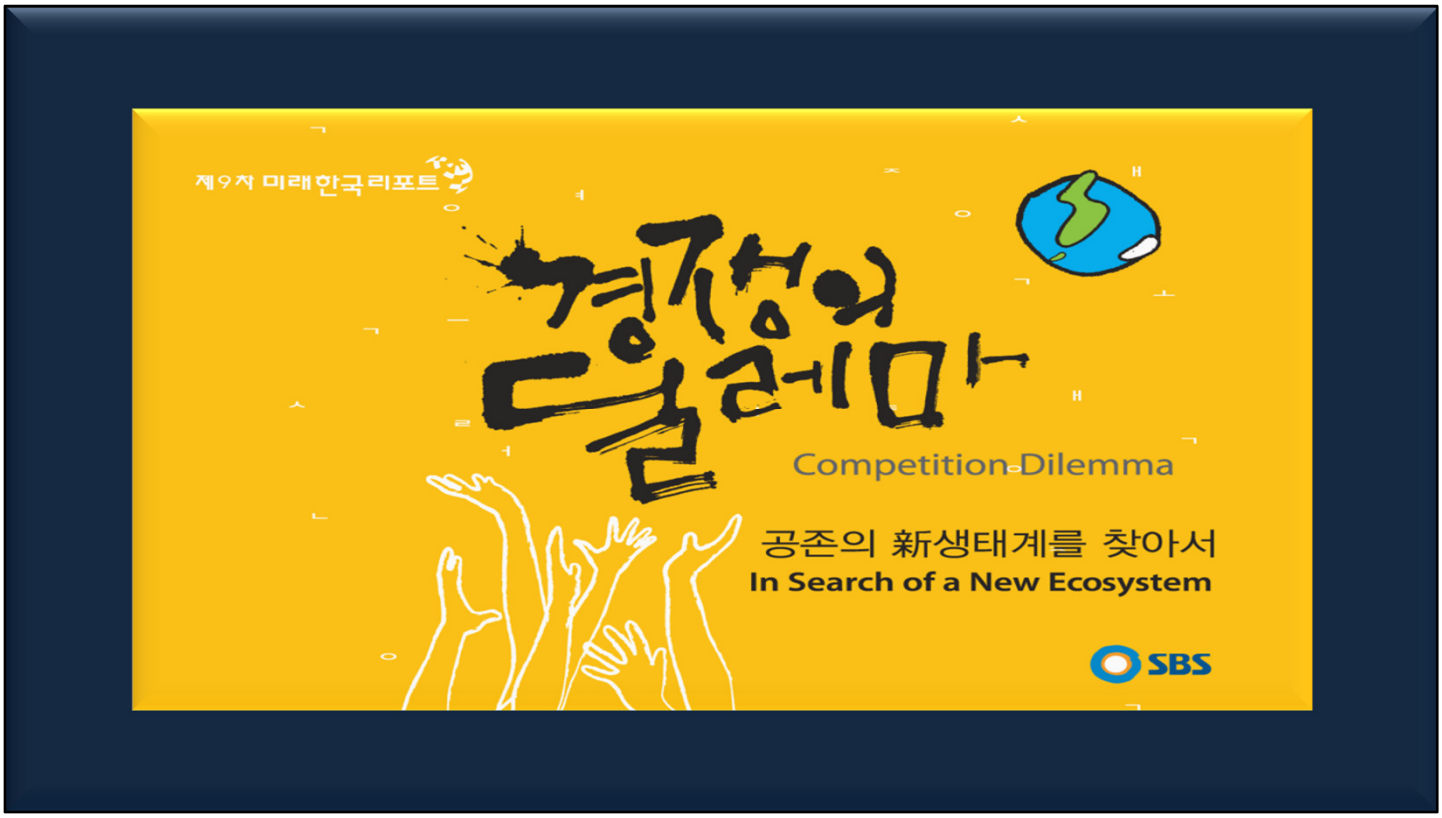
정책 방향, 대안 제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대 확산

지금까지 살펴본 바람직한 경쟁의 방식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들일 것입니다.

SBS는 경쟁이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그 성장의 과실이 사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상생의 경쟁이 이뤄지는
선순환적 사회를 만드는데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와 함께
사회의 질에 관한 정례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극심한 경쟁에 지쳐가고,
승자도 패자도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정치의 책임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권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줄 것인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먼저 홍준표 대표 모시겠습니다.

1960년도초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62불정도였습니다. 50년이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10대 무역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125개 분야가 되었고 세계 5위이내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478개 정도로 세계 기술 대국으로 성장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그늘의 가려진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론을 중심으로 하는 불공정경쟁사회의 대속은 한국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전략시킬 우려가 있고 소외계층은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불만계층의 증대는 이제
포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증오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논쟁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일방적으로 정치권을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사회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사회는 저는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서로 증오하는 사회가 아니고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가진자들이 그만큼 양보를 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진자 들이 오히려 자기 것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8월 15일 대통령 선언에서 공정사회를 내걸었습니다. 그 공정사회라는 것은 출발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승복이라고 봅니다. 출발의 불공정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될 것이고, 과정의 공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그런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결과에 대한 승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할 때는 해법을 통해서 억지를 부리지말고 승복을 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강평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이런 공정사회가 이 정부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상당히 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정사회, 공정경쟁사회의 전국지표를 돌아보고 한국사회를 더욱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갈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SBS에서, 미래한국리포트에서 밝혀주신 여러가지 정책지표는 앞으로 당을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갈라파고스처럼 되지않기 위해서 한미 FTA문제는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재확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부탁드립니다.

SBS가 그동안 꾸준히 한국사회의 과제, 특히 세계 속의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세영 회장님, 또 우원길 대표이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가 되어서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한 자스민 혁명이 이집트 무바라크, 리비아의 카다피까지 무너트리고 세계를 민주화의 길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전에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더니 이제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고 하는 분노의 시위가 폭발이 되어서 1%의 탐욕에 가득 찬 특권층이 99%의 시민을 옥죄는 데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와 저항의 물결이 한국에도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잠실 운동장에는 음식점 주인이 전국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에는 카드수수료가 1.5%인데, 설렁탕 집과 자장면 집은 2.7%를 내는 데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들이 내건 구호는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같이 좀 살자, 우리 뿔났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좌절과 분노의 중심이 20대에서 40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할, 청년 실업, 등록금, 전세대란, 교육/보육비, 가계부채, 양극화 사회와 분열의 사회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강평

손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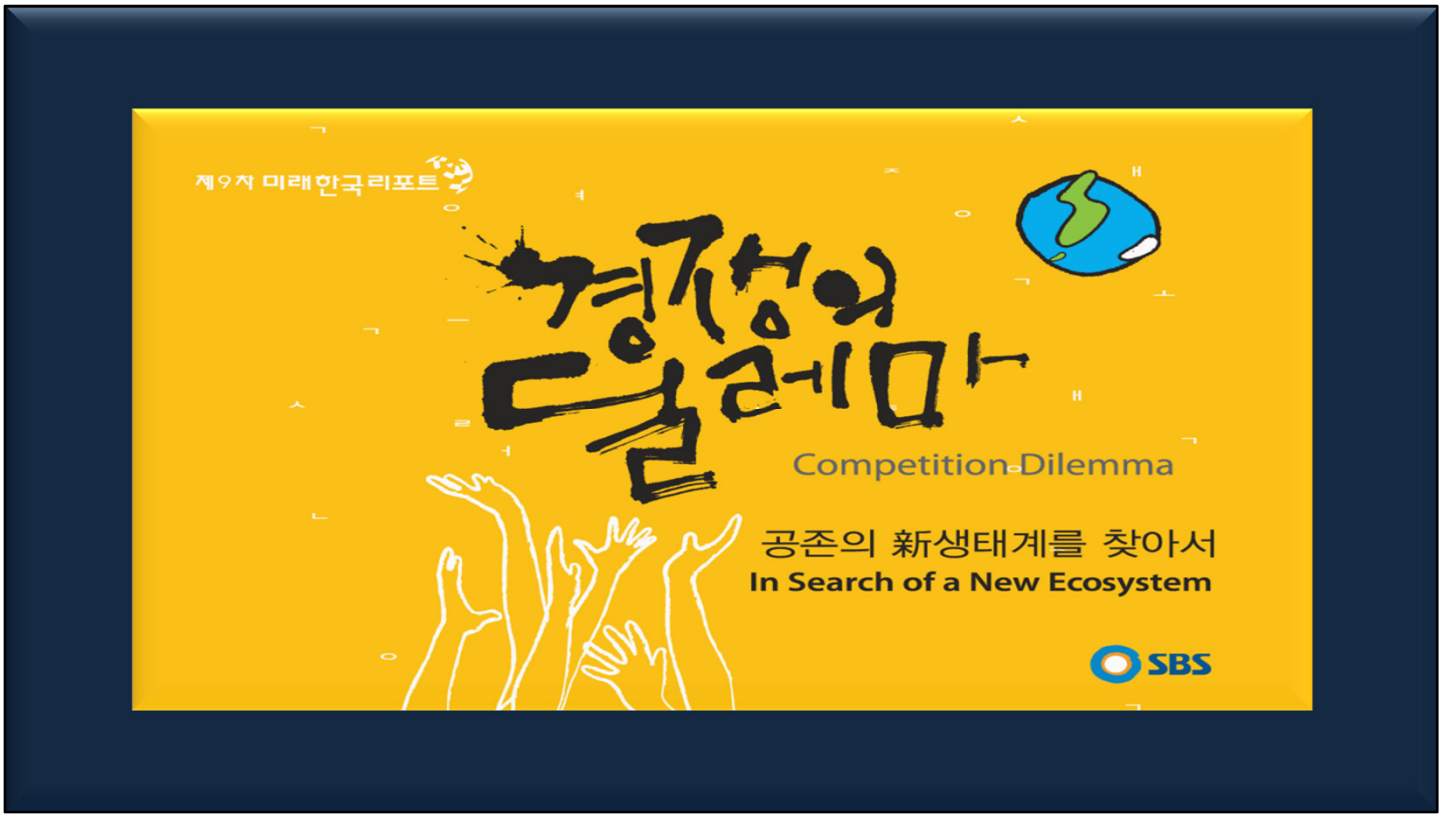
민주당 대표

이러한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안철수 현상과 정당에 대한 불신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거대한 물결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 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경제만능사회가 가져온 반칙과 특권, 이것은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의 사회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양극화, 분열의 사회에 대해서는 복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사회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기회균등의 강조가 자칫 경쟁사회를 정당화하는 데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요구는 이제 같이 좀 살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빈층, 저소득층에 대한 구휼적, 자선적인 사회 정책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서울 시민들의 반응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통해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된 사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민생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사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차 미래한국리포트
'경쟁의 딜레마-공존의 신생태계를 찾아서 ' 를 주제로 한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SBS는 앞으로도 미래한국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언론사로서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